

시로 읽는 성보순례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국보 제17호 부석사무량수전앞석등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번영하는 사람은 알아보기 쉽고,
파멸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멸망한다.
〈숫타니파타〉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3월 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881호 2012년 3월 28일 수요일

선거가 보살행입니다

조계종, 불교인의 올바른 선거참여 리플렛 전국 사찰 배포

최근 조계종 지도자 연수회에서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설문 결과를 근거로 "불자들의 정치 · 사회의식이 낮다" "불교계는 사회적 대안제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금년 총선 · 대선의 주요 이슈로 상식 · 정의 · 공정 · 평화 · 복지를 꼽으며, "불교계에서 명분 있는 사회적 요구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연 · 혈연 · 지연 · 지역 이기주의 등 후보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준이 넘치고 있다.

불자라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서 바르게 실천하는 길일까.

조계종은 최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불자들의 올바른 선거참여를 위한 '선거가 보살행입니다' 라는 소책자(1만8000부)와 리플렛(22만부)를 제작해 전국 사찰 및 신도단체에 배포했다.

안내 소책자는 3부로 구성됐다. 제1부에는 '중생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선거참여' 를 주제로 불교인의 선거참여 3대원칙, 올바른 후보를 뽑기 위한 불교인의 5대 기준, 불자들의 선거 참여 독려 등 내용이 담겼다. 제2부에는 '선거시기 불자들의 지역공동체 참여를 위하여' 를 주제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찰과 불교의 역할 등을 담았다. 제3부에는 '불교와 사회, 불교와 정치' 를 주제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불교정치, 불교에서 말하는 정치지도자, 소통과 공감의 부처님 리더십 등을 소개했다. 또, 참고자료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일반 안내 자료를 첨부했다.

조계종은 불교인의 선거참여 3대원칙으로 ▷투표 참여 ▷공명 선거 ▷후보 선택을 선정했다. 조계종은

후보선택 5대 기준

1. 전통문화 계승발전
2. 사회적 약자 배려
3. 청렴과 종교평화
4. 생명과 환경 존중
5. 사회적 갈등 통합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위해 필요한 자질과 성품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①전통문화 계승발전 ②사회적 약자배려 ③청렴과 종교 평화 ④생명과 환경 존중 ⑤사회적 갈등 통합 등 후보 선택 5대 기준도 제시했다.

또, 불교계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지역사회 발전에서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지역공동체 참여를 독려했다.

조계종은 총선의 지역적 의미와 사찰의 역할도 분석 · 수록했다.

지역문화발전을 지원해 불교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역정치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민주화의 선도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역할론도 제시됐다. 특히, 지역 공동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약 개발과 제시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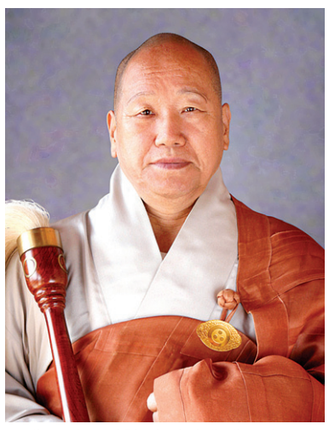
조계종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려면 인문학적 소양과 철학과 종교적 이념이 살아있어야 한다. 윤리 · 철학 · 종교가 살아 있는 사회 그러한 정신적 가치로 진정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사회가 진정 행복한 사회이다. 그 가치를 장려하고 일깨우는 리더가 진정한 불교적 리더이다"라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투표율이 낮으면 선거를 위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대표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사찰과 불교단체를 비롯한 불자들이 나서 투표를 독려하자"고 말했다.

조계종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전국 사찰서 법문을 통해 신도들에게 투표 참여를 권장하고 투표 참여 캠페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소책자와 리플렛은 22일 초하루 법회를 시작으로 총선 기간 동안 사찰의 각종 법회 및 행사시에 법문과 더불어 불자들에게 배포된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조계종 전국 사찰 및 기관에 배포된 종정예하 근영(왼쪽)과 교시

'지계청정' '정진화합' '광도중생'

조계종 제13대 종정 진제 대종사 교시…28일 추대식

조계종 제13대 종정 진제법원 대종사가 3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릴 추대식을 앞두고 종도들에게 '지계청정(持戒淸淨)', '정진화합(精進和合)', '광도중생(廣度衆生)' 의 새 교시를 내렸다.

진제 대종사의 종정 추대식에는 원로회의의장 종산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주요 소임 스님과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등 종단 중진스님,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등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 세계적 종교간 대화 지도자인 탑비 잭 벰포라드 등 외빈 등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종정추대식서 생명평화 1000일 등불 점등

결사추진본부 1000일 장정…첫주자 강정마을 대책위장

한국불교1번지 조계사에 '꺼지지 않는 생명평화의 등불' 이 켜진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이하 결사추진본부)는 '민족화해 · 평화통일 ·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 실현을 위한 1000일 정진결사' 를 3월 28일 오후 3시 조계사 일주문 옆 정진단과 조계사 대웅전에서 입재한다고 발표했다.

1000일 정진결사는 ▷생명평화 1000일 정진 ▷사부대중 야단법석 ▷시민초청 무차대회로 이뤄졌다.

'1000일 정진결사' 는 출재가 종무원, 시민단체, 사부대중, 시민대중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매일 24시간 끊이지 않고 2014년 12월 22일까지 릴레이 기도 방식으로 이어지는 대장정이다.

입재는 제13대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 추대식에서 종정예하의 '1000일 정진등' 점등으로 시작된다. 첫 정진은 강정마을 고권일 대책위원장이 참여한다.

이어 통일운동가 백기완 선생, 외국인 해니헨드리케(스위스), 김정우 쌍용차해고자대책위원장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웃종교인 김진해 목사(기독교), 김정일 신부(가톨릭), 이성심 교무(원불교) 등도 참여한다.

결사추진본부는 "농민, 청년, 다문화 가족 등 각 단체의 상징적 대표자들이 각각 1시간씩 첫날 릴레이로 정진을 한다"고 말했다.

1000일 정진등은 조계사 대웅전과 정진단에 동시에 점등돼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자성과 쇄신 결사실현을 위한 '꺼지지 않는 상징적 등불' 이 될 전망이다.

야단법석은 5월 중 첫 법석 자리를 열어 불교 내부의 궁금증이나 사회적 의제 등을 대중적으로 드러내 토론하는 자리이다.

결사추진본부는 건전한 토론문화와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대승적 견지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무차대회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부처님으로 모셔 공양을 대접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사본부장 도법 스님은 "1000일 정진, 야단법석, 무차대회를 통해 한국 불교 1번지인 조계사가 시대와 함께 호흡하면서 뭇 생명의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하는 생명평화의 도량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1000일 정진결사 참여방법 조계종 결사본부 홈페이지 내 '참가자 일정표' 에 기재 또는 전화(02-2011-1928)나 이메일(1000day@buddhism.or.kr), 서면 등으로 신청해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

"종교인에 과세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에 논란

최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조사에서 국민 65%가 '종교인의 과세에 찬성한다' 고 답한데 이어, 주무부처 장관이 종교인 과세 문제를 언급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19일 머니투데이에 출연해 "종교인 과세를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종교인 과세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빨리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 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종교 활동에는 특별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비 측면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경비를 어떻게 인정할 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종교인에 대한 엄격한 과세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진 않았다"면서 "과세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1면

지체 말고 시행하라

종자연, 성명서 발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교인에게도 과세가 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빠른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3월 23일 '종교인 과세 지체하지 말고 시행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함과 더불어 종교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 방법이다. 종교인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종자연은 "종교인이 국민의 의무는 하지 않고 종교인으로서의 특혜만을 주장한다면 종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자연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국민의 다수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주저말고 현행 법제에 부합하는 일관된 조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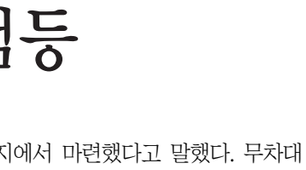
조동섭 기자



"나르는 축구공 만큼 우리 꿈도 키울게요" 재가불자 축구동호회 FC붓다(회장 이동격)가 캄보디아 초등학교에 축구용품을 지원해 스포츠를 통한 자비행을 펼쳤다. FC붓다는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이 설립 ·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 북쪽 국경오지마을 오다르민쩨이주 뗌뽀디봉 마을, 뗌뽀디봉 초등학교 축구부에 축구용품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축구부 전원 유니폼과 축구공 등을 전달했다. 조동섭 기자

881호 CONTENTS

시방세계 5
템플스테이 러시아 관광박람회



종립대학을 가다 12
동국대 경주캠퍼스

중국 고판화 유적지답사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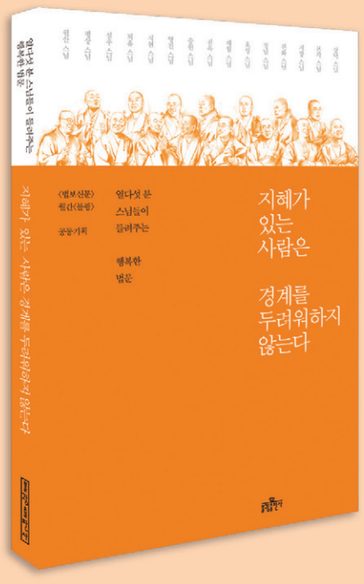
여성지도자 15
동국대 불교대학장 계환 스님

지혜의 보고 불서 23
대행 스님 법어집 러시아어역 출간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가장 사랑받았고 감동적이었던
열다섯 분 스님들의 법문을 가려 엮었습니다

왜 나의 마음을 찾아야 하는지
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지
왜 내 이웃을 살피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만큼 중요한지

열다섯 분 스님들이 들려주는 단순하고 명쾌한 결론

2011~2012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산 스님 외 14명 / 176쪽 / 11,000원



2009~2010
기억에 남는 명법문
성수 스님 외 19명 / 208쪽 / 12,000원



2010~2011
사랑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고산 스님 외 17명 / 152쪽 / 10,800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 / bulkwang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7호 부석사무량수전앞석등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이 하 석

삶 가닥가닥 뽑아올리면 그늘의 잔뿌리들 많아서
무량수전 앞 무량수 비는 날 잦은가
석등에 등불 켜듯 절하는 어미들
석등 아래 어른대는 그 아들딸들의 도망가는 그림자들

연꽃받침 위 화사석火舍石 사방 창에 불 켜면
네 모서리 장엄하여 피어난 보살들이 잘 빚어내어서
우련하니 귀꽃도 밝혀드는

석등의, 오래 한데 뎁혀 사는 꿈

그 맑은 등의 심지 돋우어 돋우어
무량수전 무량수불이 무량무량 큰 광명 우려내야
부모 잃고 한밤중 문득 깨어나 스스로 지옥의 중심에 앉아 있는
걸 느끼는 나까지
비로소 그 빛 쬐어 먼 눈조차 훤해지는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이하석 시인은… 1948년 경북 고령 출생. 1971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투명한 속〉 〈김씨의 옆얼굴〉 〈측백나무 울타리〉 등.

‘선거법 제정안’ 종회 통과 관심

조계종 종헌종법특위, 제189회 임시중앙종회에 상정

선거공영제를 골자로 종무원장 선거법, 중앙종회 및 교구종회의원 선거법 등을 하나로 묶은 ‘선거법 제정안’이 확정됐다. 또,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을 명확히 하고, 교구본사 주지의 만장일치 추대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선거과정에서 매수 및 이익유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법안, 이하 종헌종법특위)는 3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선거법 제정안’과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27일 제189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선거법 제정안은 선거공영제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 중앙종회 · 교구종회의원 선거에 필요한 종책 홍보, 토론회 등에 관한 경비를 종단에서 집행하게 된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살포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의 10배를 징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공권정지 3~10년의 징계와 징계 종교일로부터 10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벌칙조항을 강화했다.

교구본사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법에서는 본사주지 자격을 법계 종덕 이상, 연령 70세 이하 비구 가운데 ▷중앙종무기관 부 · 실장급 종무원 2년 이상 경력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또는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 4년 이상 경력 ▷말사주지 8년 이상 경력 ▷중앙종회의원 4년 이상 경력 가운데 한가지만 충족시키는 것으로 개정했다.

특히, 산중총회 구성원에 비구니스님을 포함시켜 비구니스님들의 참종권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산중총회 구성원은 기존 비구계를 수지한 교구 재적승과 본사 국장급 이상 비구 스님 등에서 법계 혜덕 이상의 비구니스님이 추가됐다.

산중총회 구성원 가운데 2년분 이상의

선거공영제가 제 · 개정 근간
금품수수 처벌, 만장일치 추대 신설
산중총회에 비구니 참여 명시 눈길

사찰분담금 미납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도 강화됐다.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해 논란이 돼 온 거주승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해 교구지역에 2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를 기본으로, 산중총회 집회일 전 2년간 당해 교구 선원에서 4안거를 성만하거나 관할 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4회 이상 신고하고 월 적정액 이상의 보시를 2년 이상 지급 받은 소임자로 개정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던 본사주지 선출 절차를 만장일치제로 바꾼 것은 주목할 만한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은 출석의원 2/3 이상 동의로 선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동의를 받은 스님에게 후보자 선출을 위임토록 했다. 1~2인의 후보자가 등록한 때에는 의사정족수를 적용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후보자를 선출토록 했다. 3인 이상 후보자 등록시는 출석한 구성원의 동의에 따라 2인의 후보자를 결정토록 했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한 구성원의 2/3 동의가 있으면 만장일치로 간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불교방송에 영향력 강화

불교방송 이사회, ‘총무원장 추천인사 이사’로 개정

겸직 금지 조항으로 유명무실하던 조계종 총무원장의 불교방송 이사 참여 조항이 총무원장 추천 인사의 이사 참여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의 불교방송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불교방송 이사회(이사장 영담)는 3월 2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78차 이사회를 열고 총무원장 지명 인사의 이사 추천을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정관 제5조 3항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종회의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에 “단, 총무원장이 이사로 참여할 수 없을 경우, 총무원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이사로 추천하며, 임기는 총무원장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날 이사회는 김규칠 · 명호근 이사의 사임에 따라 후임 이사로 구상진 서울시립대 교수, 이수덕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를 선임했다.

한편, 조계종 종헌 제54조는 “총무원장은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이사장, 중앙승가대학 이사장, 불교사회복지원 이사장, 기타 국가 법령에 의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일체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 당선 확정

조계종 중앙선관위, 소청 기각…범어사 후보 심사 처리

법주사 차기 주지 선거를 두고 제기됐던 선거소청이 기각돼 현조 스님의 주지직 당선이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 이하 선관위)는 3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5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호법부 조사 결과 장주 스님이 제기한 고발 사건의 구체적 증거가 제기되지 않았고, 장주 스님도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말해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25일 예정된 범어사 주지선거 후보로 상운 · 수불 · 원정 스님의 후보자격 이상없음을 결정했다. 또, 선거인단 384명을 확정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종단부채 대책위, 종회 상임분과위 등 신설

태고종 제108차 임시중앙종회서

태고종이 악성 부채 해결을 위해 ‘종단부채 책임규명 및 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원활한 종회 운영을 위해 종회 사무처와 종회 상임분과위를 신설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산)는 3월 20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08차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종회는 ▷원로회의 결원 추대 인준안 ▷2011년도 종단 세입세출 결산안 ▷전승관 국고보조금 재정산 건 ▷종단 사찰임의 경매실행 예정 통보건 ▷동방대학원 대학교 수습대책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혜초 종정스님은 선시를 통해 “종단화합을 위해서는 아집을 버리고, 진정한 대화를 수용하며, 침착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회의장 도산 스님은 개회사에서 상임분과위원회 활성화, (가칭)종도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종도들과의 소통확대를 약속했다. 또, 중앙종회 사무처를 개설해 실질적인 종회 사무에 전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종무방침 연술에서 “지난해는 종단이 교육불사 차원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종립 동방대학원대학교의 불미스러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전승관 국고보조금 문제, 종단의 막대한 부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종론의 통일과 종단안정, 종도간 화합을 통해 종단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종단부채 책임규명 및 진상대책위원회는 종회의원 3명, 종무원장 2명, 총무원 소임자 2명으로 구성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前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비리 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게 된다.

조동섭 기자



3월 20일 태고종 제108차 임시중앙종회 입재식에서 스님들이 삼귀의례를 하는 모습

錦虛堂 日輪大禪師 寂滅世界에 進入하시다

羅州 多宝寺 雨華老師에 出家하시여 諸方禪院에서 一生을 修禪精進하시고, 특히 海印寺 性徹老師 會上에서 오랫동안 修行하시니, 그 禪風이 毫釐의 妄塵도 許容치 않으니, 과연 淸淨世界에 노니는 純眞無垢의 삶이셨습니다. 세수 71세 법랍 50세로 홀연히 多宝禪院에서 本地風光에 合流하시니, 그 如如한 소식을 無知한 後學이 어찌 알리요.

妄身의 離世緣과 大禪師와의 인연을 아쉬워하여 遠行의 고단함을 마다않고 大禪師의 往生極樂을 念願하여 주신 큰 스님, 도반스님, 신도님, 유족 여러분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不孝上座 知劍 三拜

금허당 일륜대선사 49재 안내

3재 양력 3월 25일 10시 다보사
4재 양력 4월 1일 10시 다보사
5재 양력 4월 8일 10시 다보사
6재 양력 4월 15일 10시 다보사
7재 양력 4월 22일 10시 다보사

전라남도 나주시 경현동 629번지 다보사 ☎ (061)334-4201

조계종 환경위원회 14인 일괄 사퇴

지리산 케이블카 관련 화엄사 토지사용 '조건부 승인' 마찰

조계종 환경 현안 담당기구인 환경위원회 위원 16인 가운데 연락이 되지 않는 2인을 제외한 전원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 이하 환경위)는 3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리산 등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했다. 또, 조계종 집행부가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구례 화엄사의 토지사용 신청을 승인할 경우 전원 사퇴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은 21일 종무회의에서 화엄사 토지사용 신청건을 보류시켰으나, 23일 오전 긴급종무회의에서는 조건부 승인 처분을 내렸다.

조계종은 이날 조건부 승인을 통해 케이블카 시범사업 선정이 완료되는 6월말까지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종단 내 공론을 모으되, 종단과 환경위원회의 뜻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인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무회의 후 청사를 나서던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종단과 환경위의 뜻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키로 했다"며, 장명 스님에게는 "강경한 입장으로만 접근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환경위는 "조건부 승인은 사실상 승인이다"라며 "23일 환경위원 16인 가운데 성효 스님(제주 관음사 주지)과 현종 스님(강릉 현덕사 주지)을 제외한 전원이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일괄 사퇴서를 제출했다. 환경위원 가운데 이영경 교수(동국대)와 최송현 교수(부산대)는 조계종이 추천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직도 함께 사퇴했다.

장명 스님은 사퇴서 제출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위원회와 불교환경단체, 불교사회단체,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집행부가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토지사용 승인한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종무회의에 참여한 분들 모두가 어떠한 사회적 영향과 역사적 의미, 시대적 책임감부재 등 엄청난 파장을 주는 결정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케이블카 건설 문제는 사찰의 수행환경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책임은 총무원장과 관련 부장들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위, "전문가 불러놓고 외면 화엄사 승인 신청…관례 불보듯"

VS

사회부, "환경위 배제는 실무 착오 6월말까지 공청회…타당성 검토"

환경위원 이병인 교수(부산대)도 "환경위 의견은 애초부터 화엄사의 계획 철회와 총무원의 반려였다. 조건부라니 총무원이 결정할 일을 두고 왜 물타기를 하는지 갑갑하다"고 말했다.

장명 스님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이유는 밖으로는 미사여구로 포장하지만 결국 소수의 이익만을 챙기고 추구하기 때문이다. 지금 종단의 결정이 그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스님은 "녹색성장이라면서 국토를 황폐화 시키고 보존위주로 관리해야 할 국립공원 지역마저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케이블카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를 종단이 맹목적으로 추인하고 추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오른쪽)이 부재중인 총무원장 스님을 대신해 사서실장 심경 스님에게 환경위원회 위원들의 일괄 사퇴서를 제출한 뒤 합장하고 있다.

환경위의 이 같은 반발은 조계종 사회부등 現 집행부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의도적으로 종법기구인 환경위를 배제했다는 데 있다.

장명 스님은 "사회부는 1월 재무부로부터 환경위원회와의 공동조사를 요청 받았음에도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승인했다"며 "몇몇 종무원에 의해 진행된 현장조사의 전문성과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종무회의에서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승인이다. 앞으로 전국 사찰에서 케이블카 건설 등 개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명 스님은 "조계종에 생명결사·소통이 있기는 한 것이냐"며 "환경위원장직은 내놓았지만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종회에서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브리핑을 통해 "종단은 케이블카 건설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시범사업까지 막을 수는 없다. 신청조차 못하게 막는 것은 횡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화엄사의 토지사용 신청건은 케이블카 시범사업으로 이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국립공원 측이 심의기구를 통해 환경 훼손이나 문화재 보존 등 문제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 거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혜경 스님은 화엄사 현장조사에서 환경위가 배제된 것에 대해 "협의 과정서 실무적 착오에 의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사퇴한 환경위원은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을 비롯해 이병인, 만초 스님, 상덕 스님, 심산 스님, 주경 스님, 진각 스님, 태범 스님, 서재영, 유정길, 윤여창, 이영경, 오충현, 최송현 등 14명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이웃종단 다녀와 분심냈습니다"

조계종 지도자연수 참가 스님들 한 목소리

진각종·천태종 등 이웃종단 방문을 통해 치러진 조계종 지도자연수에서 종단 중진스님들이 크게 분심(奮心)을 냈다고 조계종 기획실이 전했다.

조계종 기획실은 3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지도자연수 브리핑을 통해 연수 의의와 토론 내용 등을 발표했다.

조계종 기획실은 "이번 행사는 종단 역사상 최초로 종단 집행부, 본사주지, 종회의원 등이 단체로 진각종 천태종 원불교 등 3개 종단 운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참가자들은 ▷진각종의 인사시스템 ▷천태종의 재정투명성과 신도들과 함께 하는 사찰관리 ▷원불교의 교역자 100% 활용과 해외포교 활성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참가자들은 통합 재정운영과 투명한 재정관리에 종단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행사 둘째날인 16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대중공사에서는 종단 재정투명화와 인사시스템 개선 방안이 집중논의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본사단위의 통합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다수의 참석자들이 총무원장스님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기획실은 "본사 중심의 통합 재정관리는 종단 현실을 감안해 35대 집행부에서는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진행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인사시스템 개선은 현재 직할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고과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조계종은 향후 본사 행정력 및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공사에 앞서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불교사회연구소의 과거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불자들의 정치·사회의식이 낮음과 불교계가 사회적 대안제시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님은 총선,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서는 사찰이 ▷불교문화 중심의 지역문화 창달 ▷지역사회와 소통과 화합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시민 정치 참여 ▷불자와 지역민의 정치사회의식 고취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각종-인사 천태종-신도 운영
원불교-해외포교 활성화
시스템 강화 등 개선 필요성 확인

조계종 기획실은 "이번 연수에서 통합 재정관리 등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없었다. 다만 방안을 만들어가자는 대중의 취지를 확인한 행사"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계가 더 도와 달라"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과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3월 2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천막농성 중인 쌍용자동차 해고자를 비롯한 비정규직·해고 노동자들을 방문해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쌍용차 해고자인 김정욱 지부장과 김득중 수석부위원장은 "불교계가 쌍용차를 비롯한 해고자, 비정규직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출가제도 개선 공청회 열기로

승가교육진흥위, 출가제도개선소위 구성

조계종이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 추세를 점검 대안 마련을 위한 기구를 승가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설치하고 공청회를 상반기 중 개최한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승진위)는 3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기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출가제도 개선 소위원회'는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을 위원장으로 간사 법인 스님과 종광·성문·일운 스님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승진위 위원장 자승 스님은 승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 후 인사말을 통해 올해 승진위가 집중해야 할 사업 중 출가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자승 스님은 "현재 청년출가자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전체 출가자도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종단 출가 종책은 자발적인 출가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제도를 갖고 있기에 종단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투표 참여가 애국입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는 3월 20일 오후 12시~1시까지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1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에서 주관해 실시됐다. 사진은 실승 공동대표 정휴 스님의 1인 캠페인 모습. 박재완 기자

"교회 투표소는 그만"

종평위, 중앙선관위에 공문 발송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용)는 3월 23일 4·11총선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했다.

이 공문은 4·11 총선에서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금지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종교자유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을 미리 권고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종평위는 공문에서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47조 4항을 준수해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도록 지역선거관리 위원회에 관련 지침을 하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미리 이유를 밝혀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선관위가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섭 기자

INTERNATIONAL BODHISATTVA

국제보살계

한국·일본·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고승대덕 큰스님이 증명하십니다.

관음종 개산조 태허 조사 탄신
108주년 기념 재법회

이 보살계를 받으면 삼세의 죄업장이 소멸되고
무명과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며 계를 받는 인연과 수지의 공덕으로
위없는 불도를 성취하게 됩니다.

◦일 시 : 불기2556(2012)년 4월 4일 오후 2시
◦장 소 : 관음종·경남교구본사 영축산 법성사
◦주 최 :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
◦후 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문화체육관광부
(문의 :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 02)763-0054)

일 주 문



진각복지재단 알뜰바자회

진각복지재단 이사장 혜정 정사는 3월 12~16일 진각종 총인원 경내 주차장에서 알뜰바자회를 개최했다.



범어사 컵스카우트 창단

부산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은 3월 18일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불교스카우트 컵스카우트 창단식을 개최했다.



동화사 국제선체험관 개관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4월 1일 통일약사여래대불 참배단에서 국제선체험관 개관 행사를 개최한다.



금산사 합동수륙재

전주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4월 14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전북불교 합동수륙재를 봉행한다. (063)548-4442



대흥사 나라사랑 글쓰기 대회

해남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4월 16일 대흥사 일대에서 제18회 나라사랑 글쓰기 · 대회를 개최한다.



퇴휴 스님, 중앙승가대 도서관 1000만원 전달

서울 법장사 주지 퇴휴 스님은 3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아름다운동행에 중앙승가대 도서관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문수사 삼불 봉안 점안법회

문경 문수사 주지 법천 스님은 4월 1일 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덕운 스님 초청 미륵존불 · 해수관음 · 지장보살 석불 봉불 점안 법회를 봉행한다.



경제인불자聯, 지승동 회장 취임

지승동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 제2대 회장은 3월 3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회장으로 취임했다.

〈인사〉 최용춘 학교법인 보문학원 이사장 추대



최용춘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은 3월 19일 보문학원 이사회의에서 보문학원 이사장에 만장일치로 재추대됐다.

최 이사장의 임기는 2013년 3월 10일까지이다.

불교 응용분야 연구 손 잡다

협약맺는 불교심리연구원 윤희조 원장과 밝은사람들연구소 박찬욱 소장



윤희조 불교와심리연구원 원장(사진 좌)과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이 협약에 앞서 불교 응용분야 연구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심리와 상담 분야에서 불교의 현대적 이해와 적용에 대해 고민해 온 두 연구 기관이 향후 학술연찬회를 비롯한 학술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키로 해 눈길을 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와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과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가 3월 13일 맺은 협력협약이 그 것이다.

두 기관은 밝은사람들연구소가 단독으로 10차례 개최해 온 학술연찬회를 공동 개최하고, 불교심리학 및 불교상담학 분야 인력풀 공유 등 연구를 위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2005년 설립된 불교와심리연구원은 불교심리학 관련 심포지엄 개최 및 학술지 '불교와 심리'를 발간하고 있으며, 2006년 문을 연 밝은사람들연구소는 학술연찬회를 통해 불교학과 대중의 소통을 이끌어오고 있다.

두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1차 학술연찬회는 '믿음'을 주제로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린다.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초기불교), 석길암 금강대 HK교수(대승불교),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선불교),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학 명예교수(비교종교), 권명수 한국신학대 교수(심리학) 등이 참여한다. 또 학술연찬회에 앞서 4월 28~29일에는 문경 용성선원에서 패널 전원이 참여해 워크숍을 개최한다.

두 기관의 대표 윤희조 불교와심리연구원 원장과 밝은사람들연구소장을 만나 불교 심리와 상담 분야의 발전 방향과 학술교류에 대해 들어보았다.

Q :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 연구 협력을 공유하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 협약의 계기와 기대효과 등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박찬욱 소장: 윤희조 원장과는 제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1기 학생으로 있으면서부터 개인적인 친분을 쌓게 됐습니다. 밝은사람들연구소를 운영하며 학술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개인적인 공감대와 함께 이 분야에 학제 등이 완비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학술회의 진행 예정
연구풀 공유 시너지 기대

윤희조 원장: 서불대는 내년 10년을 맞이합니다. 서불대에는 전공과목이 있어 불교 상담, 불교심리 등 다양한 응용분야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밝은사람들연구소 또한 학술연찬회가 10회 차를 넘어섰습니다. 연구 분야와 대중화 분야에서 인프라를 구축한 두 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최근 상담, 심리, 명상 등 불교와 접합할 수 있는 분야에 불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희조 원장: GNP가 2만 달러가 넘어서면 상담과 심리 분야에 눈이 뜨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명상단체, 심리 연구기관 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도 스님들의 주도 하에 선원에서 명상 심리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활황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각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 이 분야를 보다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박찬욱 소장: 동국대에서 진행 중인 불교심리상담 강좌가 교내 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단 '불교'하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좋아합니다. 젊은 세대에 맞게 어려운 불교용어를 최소화 하며 삶 속에 불교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 응용분야의 활성화는 곧 포교입니다.

Q: 말씀하셨다 시피 최근 불교 응용분야에 다양한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를 둘 것인가요?

박찬욱 소장: 가장 먼저 학술연찬회의 변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개별 원고 청탁 등으로 섭외하고 강연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좌장을 팀장으로 여러 팀을 구성해 종합토론이 보다 원활하게 됐습니다. 서불대와 진행하는 이번 연찬회는 강단을 없애고 프리젠테이션과 집중토론 등 주제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희조 원장: 4월 28~29일 문경에서 진행되는 워크샵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발제문을 가지고 미리 워크숍을 하며 학자들 간에 교류가 진행되는 것도 하나의 차별화랄까요?

글=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0@hyunbul.com

진각종 총인원 일주문 이전 '지진불사'

진각종(통리원장 혜정 정사)은 3월 19일 총인원 일주문 이전 지진불사를 봉행했다.

불사는 오불봉청 및 정공을 시작으로 발원강도, 오대서원, 유가삼밀, 천지팔양신주경봉독, 시토 순으로 진행됐다.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총인원 일주문이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며 "일주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혜정 정사는 "길은 도라고 하여 길이 바로 서면 정도가 바로 서는 것"이라며 "오늘 이 일주문 이전 지진불사가 진각종의 정도가 바로서는 초석이 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총무부장 무외 정사는 강도발원을 통해 "이 공사가 원만히 성취돼 이 길목을 지나는 모두가 미혹과 번뇌를 벗어버리고 심인을 밝혀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발원한다"며 "종단이 뜻을 세우고 종도가 받들어서 이루어지는 일주문 이전을 통해 총인원이 일체중생의 삼독을 다스리고 청정한 신심을 북돋우는 거룩한 수행의 터전이 되기를 서원한다"고 발원했다.

진각종은 진각문화전승원 완공에 맞춰 일주문을 예전의 자리로 되돌려 놓게 된다.

지진불사에는 성초 총인예하를 비롯한 원로스승 일정 종사, 지혜심 전수와 통리원장 혜정 정사, 진각대학원장 겸 재무 · 건설부장 수성 정사, 서울교구청장 겸 총무부장 무외 정사, 교육부장 관천 정사, 서울교구 스승 및 종무원들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동국대 경주캠, 비구니 수행관 '사라림' 개관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비구니 학인스님들을 위한 수행관이 마련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종)는 3월 17일 비구니 수행관 '사라림' 개관식을 개최했다.

김영종 경주캠퍼스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사라림이 완성될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학인스님들의 수행에 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배려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은 법인사무처장 종민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사라림 건립은 비구니 학인스님들이 용맹정진할 수 있는 수행공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학문과 수행의 두 날개를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석림동문회 회장 영담 스님은 축사에서 "학인스님들이 사라림에서 수행정진해 부처님 가르침을 체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축사에서 "한국불교 미래가 비구니 스님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비구니 학인스님들을 격려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내에 신축된 사라림은 비구니스님들의 건학이념 구현과 수행정진을 목적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415평 규모로 건립됐다. 사라림에는 60여 스님들이 기숙하게 된다.

조동섭 기자

운암 김성숙 43주기 추모재 4월 12일 봉행

상해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냈던 태허 스님, 운암 김성숙 선생의 서거 43주기를 맞아 추모재가 봉행된다.

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이하, 운암사업회)는 4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국립현충원 임시정부요인 묘역에서 추모재를 봉행한다. 추모재는 묵념을 시작으로 추모사와 추모헌정, 조총발사, 묘소참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운암사업회는 "올해로 탄신 115주년을 맞는 운암 선생의 숭고한 삶을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에 많은 이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운암 김성숙 선생은 일제 치하 당시 남양주 봉선사로 출가했던 태허 스님으로, 만해 스님 등과 함께 3.1운동을 주도했고 이후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지내며 항일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펼치다 1969년 별세했다.

한편, 운암사업회는 3 · 1절을 앞두고 1964년 태허 스님이 쓴 〈혁명일기〉를 책으로 발간한 바 있다. (02)391-9100

노덕현 기자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템플스테이도량

성지순례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녹여주는 골굴사

◈ 주 변 성 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11시,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0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3월중
◆ 개강일시 : 2012년 3월 개강. 매주 (화,목)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러시아 모스크바에 한국불교를 알리다

'2012 러시아 관광박람회' 서 한국 템플스테이 각광

한국불교의 대표 상품이자 포교수단으로 자리매김한 템플스테이가 문화 예술의 도시로 꼽히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선보여 큰 호응을 받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은 3월 17~20일 모스크바 근교 쿠쿠스 엑스포장에서 열린 '제7회 인투어마켓(Intourmarket)'에서 한국불교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인투어마켓은 러시아가 자국민들의 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회로 러시아 경제 붐을 타고 매년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제7회 인투어마켓에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러시아 주변국들을 비롯해 유럽, 아프리카 등 138개국 1230개 여행관련 업체가 참가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인경 체험, 좌선, 선무도 시연, 연등 만들기 등 행사를 진행했다. 또 영어와 러시아어로 제작한 홍보용 영상을 통해 템플스테이를 홍보했다.

템플스테이 10주년을 기념해 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세계화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영국 관광객 등 유럽의 외국인들과 러시아 현지인들이 대거 참가했다. 이들은 템플스테이 홍보부스에서 인경 체험 등을 하며 감탄사를 토했다.

특히 모스크바 달마사 불자들을 비롯한 러시아 사람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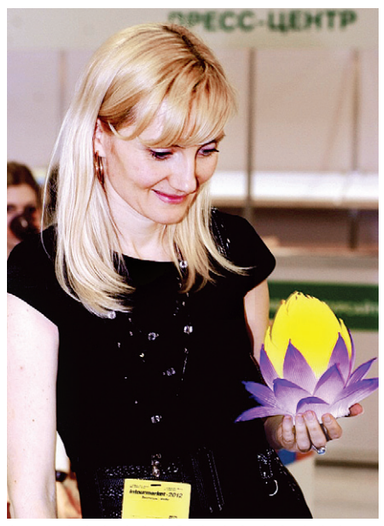
타지아나 타르토바(24세 · 여) 씨는 "인터넷을 통해 템플스테이에 대해 알게 됐다. 한국에 꼭 한번 가 한국불교문화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페테르부르크에 갈 때면 한국사찰에 들러 참선 수행을 한다"며 "인투어마켓에서 스님과 함께 참선을 하고 〈반야심경〉을 직접 탁본하며 한국불교에 대한 애정이 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반야심경〉 인경체험 코너는 큰 인기를 끌었다.







직접 만든 연등(좌)과 연등제작 현장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러시아 여성과 유럽 관광 산업 관계자들

불교문화사업단 3월 20일 러시아관광박람회 홍보 유럽 관광객 템플스테이 관심

현지에서 행사를 주관한 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견진 스님은 "러시아 정교 신앙이 깊숙이 자리 잡은 현지인들이 한국불교를 체험하고 보내는 찬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템플스테이 세계화와 대중화를 위해서 종교적 측면과 문화적 방식을 어떻게 공유해야 할지 가늠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견진 스님은 이어 "템플스테이가 단순히 한국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프로그램이 아닌 한국 불교를 세계화하는 첩경이란 점에서 향후 러시아어를 비롯한 세계 각국어로 등 역경에 힘쓰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박람회에서는 인형문화가 발달한 러시아에 맞춰 특별 제작된 '템플스테이 닥종이 인형전'이 큰 관심을 받았다.

또 조계종이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전문 템플스테이 사찰'의 운영진이 홍보단으로 참가해 원활한 통역으로 한국불교를 알렸다. 아울려 홍보단은 국제 행사 참관을 통해 관광업계의 동향 파악 등도 진행했다.

외국인 전문 템플스테이 사찰인 묘각사의 템플스테이 관장 여여 스님은 "러시아는 정치와 종교가 한데 어우러진 문화와 범신론적인 슬라브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라며 "러시아인들 삶에 문화와 예술, 종교가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 사람들에게 불교와 한국문화가 어떻게 관심을 불러일으킬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현재 독일, 프랑스, 뉴욕 등 해외 각지에서 템플스테이와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부터 매년 세계 4대 관광박람회 중 하나인 독일 ITB 국제관광박람회와 파리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최우수 전시관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닥종이 인형전, 인경 체험 선무도 등 대중 반응 좋아 독일 · 프랑스에서도 인기

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지현 스님은 "한국불교 세계화는 불교를 넘어 한국브랜드를 알리는 의미도 크다"며 "템플스테이는 사찰음식, 불교전통을 통해 서양 사람들이 동양과 한국의 전통을 접하고 한국을 찾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2002년 33개 사찰로 시작한 템플스테이가 전국 118개 사찰로 확대됐으며 누적 참가자 수도 7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과 세계인이 서로 소통하는 국가별, 연령별, 직업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러시아에서 불교란?

종교를 아편으로 간주한 구소련의 자취가 남아있는 러시아에서도 불교가 있을까? 답은 '있다'다.

현재 러시아는 104개 민족이 120가지의 언어를 사용하며, 53개의 민족국가 · 자치기구 또는 민족 구역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다양한 민족 가운데는 러시아족 · 터키족을 비롯하여, 몽고족과 티베트족 · 한족(漢族) 그리고 한국에서 간 한족(韓族) 등이 있다.

러시아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몽고나 중국 또는 티베트를 통한 것으로 18세기 이전부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로 티베트 계통의 불교가 성행했다.

불교가 가장 성행한 부리야트에 위치한 승원(僧院)은 러시아 공산혁명 당시 많은 탄압을 받았다. 박해에 대응해 러시아 불교는 자생(自生)을 위해 공산주의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려 했지만 1929년부터 러시아의 사찰은 폐쇄되기 시작했고, 1937년에는 부리야트에 남아있는 마지막 사찰까지 폐쇄됐다.

공산주의 시대 러시아에서 불교는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특히 불교세가 강한 칼미크 지방에서는 1939년 불교도 학살이 있었고, 이후에도 시베리아 강제이주 등이 진행됐다.

하지만 근근히 명맥을 이어나가 현재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보고(1984)에 따르면 러시아 전체인구의 0.1%에 해당하는 40만 명이 불교인구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최근 젊은이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세력이 왕성한 부리야트에 스님 30여 명이 있으며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몽고에서 5년의 교육을 받는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으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구입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대모집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서울 경기 전국 학인 대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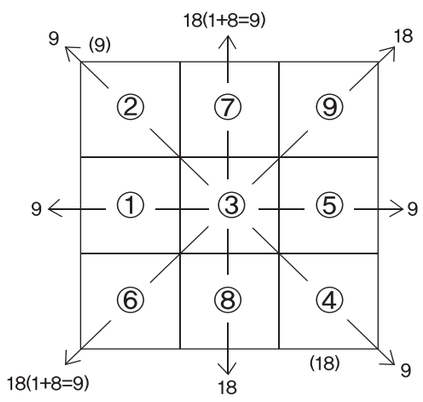
최고수로 가는길!

집중 5일 완성
저자 : 법화 종헌 (정흥교) 큰스님 직강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천왕사 불교대학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창시자

만세력 없이도 일생을 꿰뚫어 보는 비술



[구단구궁 원리도]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표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부산,경상,호남,충청,강원,제주 교육안내!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천왕사불교대학분원

강의 일정표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3일 – 부교재 중심 (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 ·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교육전문도량 불교대학 천왕사에서는
전국 학인을 대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구단구궁법 창시자
법화종헌스님의 직강으로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쉽게 접할수 있는
학문입니다. 구단 구궁법의 많은 관심과
스님, 일반인 분들의 문의가
쇄도한 바 경기 의왕 천왕사에서
개강하게 되었사오니
동참 문의 부탁드립니다.

도성 합장

• 구궁법 창시자 법화종헌스님 외에 강의 및 인쇄물, 저작물 등을 배포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 인터넷 · TV · 라디오 등 미디어 매체도 포함 됩니다.

교육전문도량 불교대학 천 왕 사 (주지 도성 혜관)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120번지 교무접수처 ☎ 031)421-1268 / 010-9207-6160 / 010-7415-0803

“발심품계법회 반야용선 타는 것과 같아”

조계종 포교원, 호압사서 발심품계법회…351명 신도 등록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에 의지해야 하고, 밤에는 등불에 의지해야 합니다. 불자라면 단연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합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신도등록 100만명을 위해 3월 22일 서울 호압사(주지 정묵)에서 첫 발심품계법회를 봉행했다. 포교원은 새 신도들을 위한 신도등록 체계화를 위해 올해 핵심 주요 사업으로 신도교육과 조직화 사업에 나섰다. 발심품계법회는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신도교육 체계 정비와 함께 시행됐다.

이번 행사는 발심-행도-부동-선혜 4단계 중 첫 발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교원은 초발심 신도들과 아직 신도등록을 하지 못한 신도들을 대상으로 초발심의 중요성과 사찰 · 종단의 신도로서의 의미, 발심품계의 의미와 가치 등에 설명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발심품계법회는 참다운 불자로 거듭나기 위한 의식이다. 마치 반야용선을 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호압사 신도 351명에게는 신도등록 후 품계제도의 첫 번째 단계인 발심품계가 품서 됐다. 이들은 재가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오계를 수지한 후 수계의식과 연비의식을 진행했다.

지원 스님은 발심품계를 품서 받은 신도들에게 “뜨거운 신앙심으로 부처가 되겠다는 원력을 가져야 한다”며 “원력은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원력에는 발심 도전 열정 정열 행동이 있어야 한다. 원력이 곧 희망의 가장 큰 보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공덕화(법명) 보살은 “호압사를 다닌 지 오래됐지만 신도등록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이번 기회로 신도등록도 하고 발심품계법회에 참여하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열심히 수행해야겠다는 의지가 다시 생겨났다”고 말했다.

이밖에 행사에서는 신도등록을 하고 그동안 호압사에서 신도교육과 신행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 신도 184명에게 행도품계에 해당하는 품계 휘장이 수여됐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호압사 신도들에게 발심 품계와 함께 연비의식을 하고 있다.

호압사 주지 종묵 스님은 “호압사는 이번 계기를 통해 정기적으로 발심품계법회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첫 발심품계가 호압사에서 이뤄진 만큼 신도등록 100만명을 위해 호압사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교원은 수도권 사찰을 중심으로 발심품계법회를 정례화 해, 지속적으로 발심품계법회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5년 내 사회적기업 100개 설립할 것”

불교계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2기 개설

날마다좋은날(이사장 김의정) 사회적기업전문지원사업단(단장 이찬영, 이하 사업단)이 불교문화콘텐츠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불교계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2기’를 개설했다. 강연은 4월 13일~6월 15일 중앙신도회 선운당에서 매주 목요일 실시된다.

사업단은 지난 해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1기를 개설한 바 있다.

올해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원론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정책자금 · 투자자금의 펀딩 및 운용 ▷모금 ▷관광 ▷영농 및 유통 ▷문화 ▷생태 및 환경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관계 등 사회적기업 창업에 유용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또한 전병길 신라문화원 원장, 이진천 봄내살림 대표, 김이선 우리가만드는미래 대표 등 현재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최고 CEO들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전문 강사진들이 나서 사회적기업 경영에 관한 그들의 노하우들을 전수한다.

이찬영 단장은 “한국사회에서 종교계의 비중은 큰 편이다. 이미 개신교에서는 ‘1교회 1사회적기업’ 운동에 나섰고, 가톨릭에서도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불교계 사회적기업은 9개에 불과하다”며 “사업단은 향후 5년 내에 양질의 사회적기업 100개를 설립해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이 단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불교계의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발굴하고 인적자원을 양성시켜 사회전반에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불교계 사회적기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02)732-7273

이은정 기자

홍보 강화…장기기증 확산 도모키로

생명나눔 임시이사회 · 정기총회 개최…새 이사 선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3월 23일 본부 회의실에서 제32차 임시이사회 및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2011년도 회계감사 결과 보고, 2011년 사업 보고 및 회계 결산 보고, 2012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승인에 대한 주요 안건을 논의했으며, 임원 선출 심의 승인을 진행했다.

혜수 스님 등 신임이사 선출

환자 돕기 사업에 15억 예산 확정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사업 ▷홍보 캠페인 역량 강화 ▷효율적 회원 및 후원자 관리 ▷환자 돕기 사업 등 16개 사업에 예산 15억 6700만원으로 확정 · 결의했다.

이어 임기 만료된 정묵 스님(호압사 주지), 덕정 정사(진각종 문화사회부장) 연임을 결의했고, 이사 동광 스님(청담문화재단 이사장) 사의 표명에 따라 혜수 스님(한마음선원 재무)을 신임이사로 선출했다. 임기 만료된 감사로는 현암 스님(법륜사 주지), 이기화 감사(안진회계법인 고문)의 연임을 결의했다. 이 밖에 경남지역본부에서 손도수 본부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본부장으로 장효익(경남대학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본부장을 선임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봄을 맞이해 17일 BBS불교방송 법당에서 ‘생명나눔 작은 콘서트’를 개최했다. BBS불교방송 프로그램 고한우 · 세리의 ‘활력충전 2시 4시가 공동주최한 이 콘서트에는 생명나눔 장기 및 후원회원과 불교방송 청취자 등 400여 명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는 가수 주병선, 박상민 씨와 시원한 가창력과 깊은 울림을 전달하는 가수 유지나, 임지훈 씨가 참여했다.

일면 스님은 “장기기증은 나에게는 인연이 다해서 없어지고 말 것을 주는 일이지만,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에게는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선물”이라며 “하루하루 장기이식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신 부처님 말씀 따라 기증문화가 더욱 활발해지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승보를 공양 하는 마음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 대웅전 앞마당에 커다란 발우 보시함이 등장했다. 조계사는 3월 22일 ‘노스님 병원비 마련’을 위한 생전예수재 입재식을 봉행했다. 발우 보시함은 종단이 진행 중인 승보공양 사업과 연계해 5월 12일 회향법회까지 모금이 계속된다. 모금액 전액은 승보 공양 사업에 기탁된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시민강원 19일 개강

효탄 스님 〈금강경〉 주제 강의

대안연구공동체(대표 김종락)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3월 19일부터 ‘불교시민 강원’을 개최했다. ‘불교 시민 강원’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 서강빌딩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7시 30분에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강의는 前 조계종 문화부장 효탄 스님이 강사로 나서 〈금강경〉에 대해 10주 동안 강의 한다.

강사로 나선 효탄 스님은 “사찰이 아닌 이런 열린 공간에서 일반인들에게 〈금강경〉을 강의하니 색다른 기분이 들어 기분이 좋다”며 “앞으로 이런 취지의 강좌들이 더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종락 대표는 “〈금강경〉은 조계종 소의경전으로 일반인들에게 유익한 수업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다음 학기에는 〈반야심경〉 〈천수경〉 등 불자들이 즐겨 보는 경전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02)777-0616

이은정 기자

“사찰음식은 한국의 진정한 음식같아요”

프랑스 최고 요리사 토마스 켈러 김천 청암사서 사찰음식 체험



“이번 한국방문에서 가장 기뻤던 것은 청암사에서 사찰음식문화를 체험한 것입니다. 사찰음식문화는 한국의 진정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권위있는 일간지인 르몽드(Le Monde)의 음식 평론가를 감탄시킨 프렌치 런드리(French Laundry)의 총주방장 토마스 켈러(Thomas Keller · 사진)가 김천 청암사의 사찰음식을 체험하고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토마스 켈러는 삼성카드와 신라호텔의 초청으로 갈라디너 행사를 갖기 위해 3월 12일 내한해 10일간 한국에 머물렀다.

일정 중 19일 청암사를 방문한 토마스 켈러는 “한국의 정신문화와 사찰음식의 진수를 경험하기 위해 청암사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토마스 켈러와 일행 20여 명은 스님의 발우공양하는 모습을 보고 경건한 모습으로 참관에 임하면서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토마스 켈러는 사찰음식을 음미하는 동안 제철야채를 비롯해 김치, 동치미, 시래기와 같은 저장야채의 조리법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된장, 고추장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재료준비에서 상차림에 이르는 정성스러움에 감탄을 표시했다.

토마스 켈러는 더덕 · 시금치 무침을 스님들에게 배우면서 “다시 청암사를 찾게 되면, 스님들과 함께 밭에서 채소를 재배해 요리하고 싶다”며 “나의 요리 철학이 불교의 윤회사상과 닿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청암사의 체험이 나의 요리에 어떤 영감으로 작용할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청암사 학인스님들은 평소 단련해 왔던 태극권을 대웅전 마당에서 시연하고 청암사 보리수 열매로 만든 108염주를 토마스 켈러에게 선물했다.

상덕 스님은 “토마스 켈러가 자신이 쓰던 칼을 청암사에 보내주겠다고 했다”며 “토마스 켈러의 방문은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문화도 알리는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토마스 켈러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1983년 프랑스 최고급 식당에서 일하며 요리의 기본을 다진 뒤 1994년 ‘프렌치 론드리’를 인수해 세계 최고 레스토랑으로 만들었다. 미슐랭가이드는 “세심한 기술과 기쁨이 완전무결한 정밀함과 결합해 미각을 깨워 일으키는 음식을 만들어 낸다”고 극찬했다.

이나은 기자

참된 불교의 근본교단
재단법인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법인허가 취득에 따른 제증명 재등록 공고

한국근본불교 조계종이 태국 왓벤져 왕립사원으로부터 남방불교의 교법을 전수하여 참된불교의 근본교단을 창종한 이래 18년 동안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치며 진력한 결과 전국에 16교구본사와 종도교육을 감내할 총본산 행정중심 총무원 청사 등을 완성하고 마침내 종도들의 숙원사업이던 법인 설립을 지난 2012년 3월 2일 서울시로부터 설립허가증을 득하고 재단법인 한국근본불교 조계종으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이 모두는 종단의 큰 스님과 수많은 종도님의 성원과 원력이라 생각하며 아울러 지난날 발급된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을 일괄 재발급하오니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아래의 내용으로 재 발급 받으시기루 바랍니다.

- 아 래 -

▣ 준비서면 : 주민등록등본 1통, 최근 여권사진 3매, 개별승적부 1통
(인터넷, 우편, 팩스 사용가능)

▣ 대 상 : 본종 승려, 법사, 신도

▣ 접 수 처 : 서울 은평구 녹번동 89-13 송림사 1층 (총무원장 전화 011-352-7751)
전화 02)358-6641-2 / 팩스 02)358-6643
홈페이지 www.keunbon.org

입 종 안 내

본 종에 입종하고자 하는 승려, 법사를 환영합니다.
승려가 되고자 하는 행자를 모집합니다 - 숙식제공)

재단법인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이사장 겸 총무원장 **의륜** 합장

신라 고승 혜각 스님 비문 발견

中 푸단대 로우씨 고려대 '사총' 제73집서 발표

혜능-신회 직계 혜각 스님 비문
40년간 민가서 식탁 사용돼
남종선 정통 계승자 증명

육조혜능의 법맥을 이은 제7조 하택신회의 직제자였던 신라 고승 혜각(惠覺; ?~774) 스님의 비문이 최초로 발견됐다. 이번 발견은 신라 혜각 스님이 육조혜능과 하택신회의 법을 이은 계승자로 중국 하북(河北) 지역에서 남종선 권위를 확립했음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中 푸단대학(復旦大)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로우정하오(樓正豪) 씨는 최근 고려대 사학회가 발간한 〈사총(史叢)〉 제73집에 '새로 발견된 신라 입당구법승 혜각선사의 비명(碑銘)'을 기고했다.

로우 씨는 "2009년 7월21일 허베이성(河北省) 싱타이시(邢臺市) 시주앙촌(寺庄村)의 한 민가에서 신라 입당구법승인 혜각 선사와 관련된 '大唐□□□寺故覺禪師碑銘并序' 비석 파편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민가는 비석이 원래 있었던 칠천사지(漆泉寺址)에서 1km 가량 떨어진 곳으로 민가 주인인 첸생진(陳生金 · 83)씨가 중국 문화혁명(1966~1968) 때 네 조각으로 파괴된 비석 중 두 조각을 집으로 옮겨와 40년간 식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혜각 스님의 비석이 있던 칠천사는 청대까지 남아있던 대규모 선종사찰이다. 현재 칠천사지에는 혜각 스님 비석의 귀부와 이수가 남아있다.

이번에 발견된 혜각 스님의 비문은 상단 오른쪽(높이 110.8cm, 넓이 53cm, 두께 26cm)과 하단 왼쪽(높이 103.5cm, 넓이 50cm, 두께 26cm) 부분이다.

로우정하오씨는 "발견된 조각으로 유추해 볼 때 전체 비석의 높이와 넓이는 각각 215cm와 104c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스님의 비문은 해서와 행서로 쓰여져 있고 마모가 심한 편이다.

로우정하오 씨는 "훼손 정도가 심하지만 비석의 상당부분이 해석 가능하다. 비문 연구를 통해 혜각 스님의 생애와 사상의 대체적인 윤곽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로우 씨는 "비문 내용 분석을 통해 혜각 스님은 유식학이 성행했던 신라 성덕왕대에 선종을 배우기 위해 입당했던 구법승이었으며, 하택신회의 유일한 외국인 제자이자 정통 남종선의 계승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혜각 스님은 형주 개원사(開元寺)에 육조혜능비 건립 및 하북 지역에서 남종선의 권위 확립한 당사자였으며, 최치원이 지은 '지증대사비'에 소개될 정도로 당나라에서 입적한 신라 최고의 구법승이었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한국불교학 인물 총망라

동국대 BK21 제1팀 '한국불학자 생애와 사상' 완간 앞둬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한국 불학자를 총망라한 자료집이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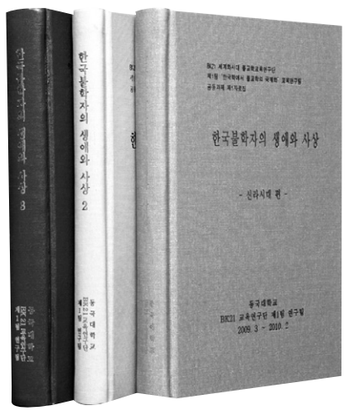
동국대 BK21 세계화시대 불교학교육연구단 제1팀(팀장 고영섭)은 최근까지 〈한국불학자의 생애와 사상〉 1 · 2 · 3권을 펴내고, 2013년 2월 4권 완간을 앞두고 있다.

2009년 3월부터 시작된 사업을 통해 제1팀은 매년 한 권씩 성과물을 책으로 출간했다.

제1권(2009년 3월~2010년 2월)에서는 '통불교'의 완성자 원효 스님을 비롯해 연기적 지평의 융합자 원측 스님, 동아시아 지장신앙의 정초자 신방 스님, 한국 화엄의 대성자 의상 스님 등 신라시대 16인의 선지식을 수록했다.

제2권(2010년 3월~2011년 2월)에서는 고려불교를 재설계한 통방학자 의천 스님, 고려 중후기 위앙선 계승자 지겸 스님, 고려대장경의 기획 편찬자 수기 스님, 고려 후기 천태종 계승자 천인 스님 등 고려시대 12인의 스님을 정리했다.

제3권(2011년 3월~2012년 2월)에서는 무심선의 정초자 백운 스님, 원융불교 구현자 태고 스님, 고려말 불교의 전법자 나옹 스님, 조선 태조의 왕사 무학 스님 등 15인의 고려 및 조선시대 스님을 담았다.



고영섭 제1팀장은 "BK21연구단 제1팀은 고려후기와 조선전기에 이 땅에 살면서 불교를 믿고 불학을 했던 한국불학자의 삶과 생각을 탐구했다.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고전에 대한 천착'과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문제의식 아래 이뤄진 결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서울의 문화재 한 눈에

'서울의 문화재' 증보판 발간…5 · 6권은 불교문화재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는 최근 서울시 소재 1400여 종 문화재를 책자와 시디(CD)에 담은 〈서울의 문화재〉 증보판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서울의 문화재〉는 2003년에 발간한 책의 증보판으로, 국가지정 및 서울시 지정 문화재를 전문가의 설명과 사진 및 도면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책은 국배판 6권으로 구성돼 있고 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다.

이는 2003년 발간 당시에 비해 서울시 소재 문화재가 800여 건에서 1400여 건으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제5권은 불교문화재 중 불화와 불교경전 등을 담고 있다. 수월관음도와 팔상도, 〈화엄경〉, 〈연화경〉 등은 우리나라 정신문화유산 중 하나인 불교문화의 일면을 엿보게 한다.

제6권은 불화와 불교경전 외 불교 관련 문화재를 수록했다. 문화재로 지정된 서울소재 사찰들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불상 등을 담고 있다.

책은 서울시 종합자료관 및 정부간행물 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조동섭 기자

불교와 사상의학의 만남

동국대 불문연, 31일 오후 1시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과 한의학연구소는 3월 31일 오후 1시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본관 2층 불교학술원 세미나실에서 '불교와 사상의학의 만남-인간 이해의 새로운 접점을 찾아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불교와 사상의학을 통한 심신치유프로토콜 구축'을 주제로 한국연구재단 융합과제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연구원은 2011년 9월부터 연구를 진행 중이다.

행사에는 불교학 전공자 5인과 사상의학 전공자 3인이 논문을 발표한다.

제1부 불교의 의학적 인간론에서는 이필원 동국대 한의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가 '사대요소설과 명상수행, 그리고 수행의 효과'를,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인간유형연구'를, 박서연 동국대 한의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가 '한국불교사와 동양의학사에서의 인간론 변용비교'를, 이기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가 '불교와 사상의학의 의(醫) 개념 비교고찰'을 발표한다. 조동섭 기자

인도학과 논리학 조명

4월 6일 오후 1시 동국대 100주년 기념관서

인도철학회(회장 서행정)와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유진)은 4월 6일 오후 1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100주년기념관 5층 세미나실에서 '인도학과 논리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이태승 위덕대 교수가 '현장의 유식비량 논난에 대한 중관학적 고찰' ▷성청환(동국대 교수가 '분별과 사분별에 대한 논쟁' ▷권서용 부산대 교수가 '대상인식과 자기 인식으로서의 지각과 추리에 관한 다르마키르티의 논증' ▷안양규 동국대 교수가 '붓다와 크리슈나무르티의 철학적 공통기반' 등을 발표한다. (054)770-2506 조동섭 기자

호국도량 북한산 중흥사 역사적 조명

불광연구원, 3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대표적인 호국도량이던 경기 중흥사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행사가 열린다.

불광연구원(원장 지홍)은 3월 3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산성과 호국도량 북한산 중흥사'를 주제로 승군 수사찰 북한산 중흥사 복원기념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역사, 산성 · 방위, 승군, 인물 · 종조, 가람 · 복원 등 5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주제는 황인규 동국대 교수가 주제발표 '북한산지를 통해 본 북한산사의 위상과 역할'를 통해 북한산성을 관리했던 북한산의 여러 사찰들과 중흥사의 위상에 대해 고찰한다.

제2주제는 박재광 전쟁기념사업회 책임연구원이 '수도방위와 북한산성의 전략적 · 지정학적 가치'를 통해 수도방위에 있어서 북한산성의 전략적 가치와 국방학적 관점에서 본 중흥사에 대해 발표한다.

제3주제는 조명제 신라대 교수가 '북한산성의 축성과 관리에서 승군과 중흥사의 역할'을 주제로 북한산성 축성에서 승군의 역할과 중흥사의 위상에 대해 발표한다.

제4주제는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한국불교사에서 중흥사의 위상과 역할'을 통해 중흥사와 조계종의 관련성을 조명한다.



제5주제는 이경미 역사건축기술연구소 소장이 '승영사찰 중흥사의 가람배치와 복원방향'을 주제로 중흥사의 가람배치와 특징에 대해 발표한다. 조동섭 기자

한국불교선리硏, 제6회 학술상 수상자 발표

우수상에 동국대 이자랑 HK연구교수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3월 20일 제6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우수상에는 이자랑 HK연구교수(동국대 불교학술원)의 '멸쟁건도의 다수결 원칙을 통해서 본 승가 분쟁 해결의 이념'이 선정됐다.

학술상에는 김치온 교수(진각대학원)의 '용성선사의 선밀쌍수에 대한 고찰'과 박상란 연구교수(강남대 인문과학연구소)의 '1930년대 불교잡지 동화의 성격과 전시동화(戰時童話)의 문제', 장은화 조계종 국제포교사의 '일본계 미국선(禪)의 여성과 사회참여 그리고 간화선 세계화에 대한 제언' 등 3편이 선정됐다.

우수상 수상자에는 500만원, 학술상 3명에게는 각각 300만원이 주어지며, 논문은 학술발표 후 등재후보 학술지인 〈선문화연구〉에 게재된다.

조동섭 기자

社團法人 大韓佛敎 宗團總聯合會 任員 改編 및 會員宗團 加入 公告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는 1984년 故 서경보 세계초대법왕 일붕 큰스님께서 창회한 이래 1994년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로 확대 재창회한 이래 1백여 종단 단체의 참여로 발전하고 활동해 오면서 그동안 매년 2회씩 연합법회를 통해 성도재일, 출가재일, 열반재일은 물론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단일교단으로써의 단결과 승려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진력해 한국 최대의 단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회원종단과 회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회의 숙원사업이었던 법인등록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각 종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앙망합니다.

■ 참가방법 : 우편접수 또는 팩스, 전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적극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종단 및 단체가입 또는 지부설립)

■ 참가자격 : 현재 설립운영 중인 각 종단 및 불교관련 신행단체 또는 사회사업단체

■ 접 수 처 : 서울 은평구 녹번로 6가길 7호
전화 02)358-6641-3 / 팩스 02)358-6643

■ 각 종단 업무대행 해 드립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 제 2012-33호

총재 의륜 회장 청운 합장

대구 운불련 창립 26주년 기념대법회 봉행

대구 운전불자기사연합회는 3월 20일 대구 동도 충전소 2층 자비원 법당에서 창립 26주년과 호출택시 출범 1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김주본 대구 운불련 회장은 "일본의 NK택시를 능가하는 봉사 정신으로 지역 사회의 사랑을 받는 호출택시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동화사 부주지 무위 스님과 류병선 동화사 신도회장 등 교계 인사들 외 지역 총선 예비후보 출마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지난 86년 창립한 대구 운전불자기사연합은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를 기치로 내걸고 불교포교와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신행단체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1만 3000명 십시일반 결실

정토사관자재회, 4월 1일 울산 자제병원 상량

불교계 최초의 완화의료 전문병원이 대들보를 올리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이사장 능행)는 '자제병원' 상량법회를 4월 1일 오전 10시 봉행한다.

자제병원은 불교계 최초의 완화의료 전문병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자제병원은 2013년 말 완공예정으로 호스피스병동 완화의료병동 재활병동 요양병동 승가병동 등을 갖춰 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중증 이상 환자, 3기말 암환자 등을 수용하게 된다.

상량식에서는 식전행사로 하유 스님의 집전 아래 사물놀이 지신밟기가 진행된다. 본행사에서는 김경일 동국대 교수 사회로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이사장 인사말,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격려사,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격려사 등이 진행된다.

행사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울산광역시장, 울주군수, 자제병원 홍보대사 김혜옥 씨도 참가해 축사를 전한다.

또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완화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법문한다.

상량식 이후 3부 행사에서는 인드라 스님과 함께 하는 '나도 가수다' 공연 무대가 마련되며 노력봉사 갤러리 초대전도 공사현장에서 진행된다.

불교최초 완화의료전문 자제병원은 1998년 불교봉사단체 15명의 구성원으로 시작한 자비회(現 정토사관자재회)가 후원회를 비롯해 자원봉사자 1만 3000여 명 십시일반 힘으로 건립 중이라 그 의미를 더한다.

정토사관자재회는 2000년 충북 청원군에 15병상의 불교계 최초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인 정토마을을 개원한 바 있다.

2003년 서민들을 위한 완화의료 전문병원의 건립의 필요성에 따라 2005년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에 9,000여 평의 자제병원 건축 부지를 마련했다. 예산 규모는 총 70억 원 수준이다.

자제병원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108병상(호스피스병동, 완화의료병동, 재활병동, 요양병동, 승가병동 등)으로 완화의료 전문병원으로는 최대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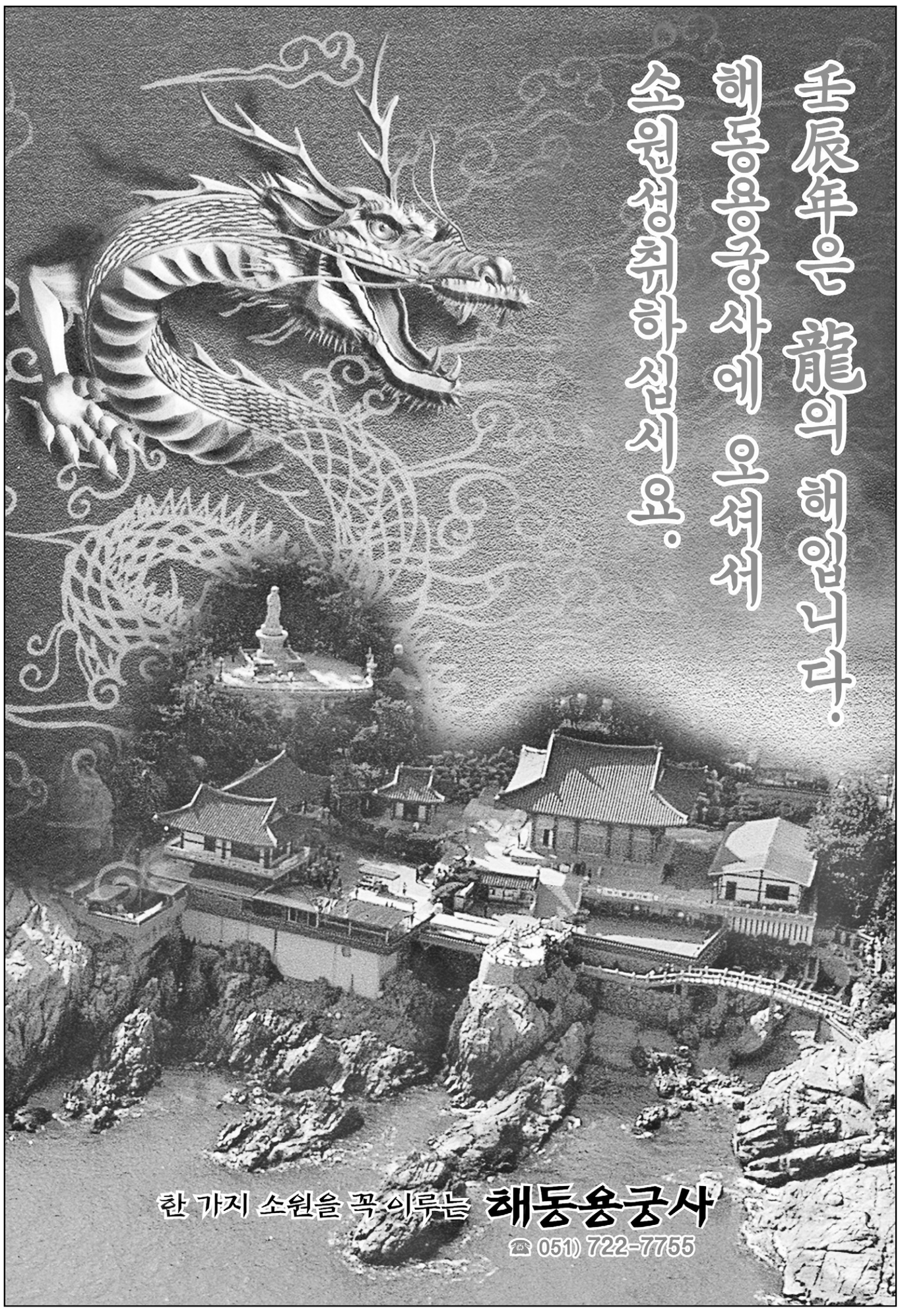
자제병원의 입원대상은 불치병 환자로 중증 이상의 환자, 3기말의 암환자 등으로 전문 호스피스 돌봄 및 환자 및 가족들을 위한 전문임상상담사의 영적 돌봄이 진행된다.

정토사관자재회는 2007년부터 울주군 자제병원 부지 인근에 마하보디 교육원을 설립해 불교전문 호스피스 인력을 양성해 영적 돌봄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있다.

능행 스님은 "자제병원이 상량식을 봉행하기까지는 '고통 받는 중생들의 안식처이자,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참뜻을 실천하는 터전'을 염원하는 1만 1500명의 국내외 불자들의 후원과 기도,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스님은 이어 "자제병원 상량식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온 시간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상량대법회 현장에서 소중한 분들과 기쁨을 나누고 다시 힘을 얻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호대종사 제64주기 추모재

선운사, 석전문도회 100여명 추모다례

근대 한국불교의 선구자로 동국대의 전신인 중앙불교학교 초대교장과 일제 강점기 조선불교교정(現 종정)을 역임한 영호당 정호 스님의 64주기 추모제가 3월 21일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에서 봉행됐다.

석전문도 100여 스님이 동참한 이날 추모제에서 도명 스님은 추모의 글을 통해 "석전대종사는 한국 근대불교의 선구자로써 후학을 지도하는 한편 종단이 어지러울 때 바로잡기 위해 헌신하신 큰 어른이자, 근대문학의 탯자리를 제공하신 문학인들의 스승이었다"고 말했다.

박한영 스님으로도 알려진 영호 스님은 율(律)·화엄(華嚴) 종주인 백파 긍선 스님의 법손으로 선(禪)·교(敎)를 겸수한 선사이자 강백이며 율사로 당대에 명성을 떨쳤던 대석학이었다.

스님은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의 초대교장과 1929년부터 1946년까지 20년 동안 조선불교교정(現 종정)으로 한국불교를 영도했다.

또 불교의 친일화에 반대해 서울 개운사에 대원불교강원(大圓佛教講院)을 설립해 청담·운허 스님 등과 문인 서정주 신석정 조지훈 김달진 김어수 등을 양성하고, 저서로〈석전시초(石顚詩?)〉〈석림수필(石林隨筆)〉〈석림초(石林抄)〉등을 남겼다.

스님은 1919년 기미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성임시정부 수립에 전북대표로 참여해 대한각(유리각)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48년 전북 내장사에서 세수 79세, 법랍 61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3월 21일 영호당 정호 스님(석전 박한영 스님) 제64기 추모재에서 166 조사전을 참배하는 석전문도스님들

군산불교신도연합회, 김수헌 회장 취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행과 전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군산불교신도연합회가 신임 회장 취임을 계기로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군산불교신도회는 3월 22일 군산불교회관에서 제6대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회장으로 취임한 김수헌 회장(사진)은 "타종교에 비해 열악한 조건 속에서 불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통해 수행과 전법을 실천하는 불자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임 허양 회장에게 감사장도 증정됐다. 초대 회장을 역임한 성광문전 전북포교사단장 등 신도회임원 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군산불교 발전을 위한 발원 등도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심 깊던 광개토대왕처럼 전법포교를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광개토대왕비문' 탁본특별전시회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가 사찰 창건 20주년을 기념해 광개토대왕비문 탁본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다.

한국불교대학은 3월 21일~ 5월 15일 옥불보전 4층 대법당에서 광개토대왕비문 탁본을 전시한다.

한국불교대학이 소장한 광개토대왕비문 탁본은 회주 우학 스님이 3년 전 중국 사찰에서 기증받은 것으로 국내에서 실물크기 탁본을 소장한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극소수에 불과하다.

우학 스님은 "광개토대왕은 평양성에 9개의 사찰을 건립했던 불심 깊은 왕이었다"면서 "올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광개토대왕 같은 훌륭한 분이 선출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학 스님이 광개토대황비문 탁본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불교대학은 탁본 보전을 위해 향후 10년 마다 한 번씩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개최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원장 유진)은 3월 21일 경주 현대호텔 다이아몬드 홀에서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취임식은 불교문화대학원 동문, 동창회 인사, 학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내빈소개, 공로패 수여, 이임사, 취임사, 축사 및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 이임회장 심산 스님은 이임사에서 동문들에게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에 동문들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을 쏟아 부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 신임회장 효신 스님은 취임사에서 "한국 불교 미래를 발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인재양성과 불국토 건설"이라며 "맡고 향기로운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김영종 경주캠퍼스 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문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지금의 불교문화대학원을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더 빛나는 불교의 도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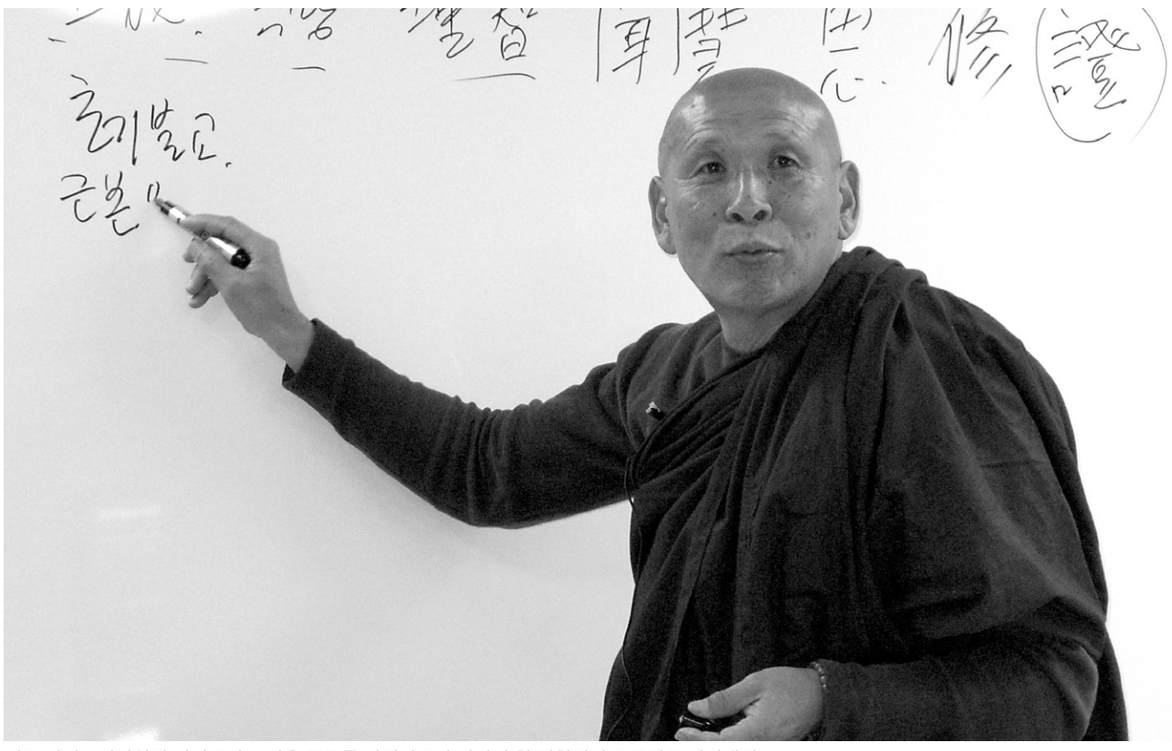
한편,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에 이어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동림동문회 회장 광진 스님 취임식도 함께 거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국불교 바로 서려면 초기불교로 돌아가야”

한국테라와다불교 열린법석…12월 14일까지 대원정사서 열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초기불교의 이론과 수행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테라와다불교는 서울 대원정사 명상연구원에서 12월 14일까지 첫째·셋째 주 금요일 오후 2~4시 ‘테라와다 열린법석’을 통해 테라와다 교리에 대해 강연한다. 둘째·넷째 주 오후 2~5시에는 수행 이론과 실제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3월 16일 경주 마하보디선원장 냐나로까 스님(한국테라와다불교 운영위원장)은 초기불교에 대해 강연했다. 스님은 현대인들이 왜 초기불교를 알고 익혀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리=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경주 마하보디선원장 냐나로까 스님은 불교를 현대인들이 알아야 할 과학적인 종교라고 설명했다.

절대적인 신은 없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神)을 지극히 높고 전지전능하며 온 우주를 창조한 절대자로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절대적인 신에게 영생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들과 다릅니다.

부처님은 고(苦)를 통해 중생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과학은 현재 불교를 인간 심리와 접목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인간의 내면과 의식, 마음을 파헤쳐 보셨습니다.

불교는 감정이나 정서에 호소하는 믿음보다 ‘앎’을 중요시합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법(法)에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자가 아닌 오직 진리에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불교는 본질적으로 신 절대자 창조자 조물주 등을 부정합니다. 또 인격신을 부정합니다.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오직 ‘앎’ 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닫다’라는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해 거짓과 참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경지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종교는 바로 우리가 ‘부처’가 되는 종교입니다. 절대자·창조자 등은 인간이 설정해 놓은 개념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절대자·창조자가 있다고 봅시다. 창조자는 반드시 전지전능 해야만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창조자의 성립 욕구를 갖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창조자가 창조할 것을 결심하지 않는다면 그 전능함을 잃게 됩니다. 창조는 무언가를 창조하겠다는 의지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창조한다는 것은 곧 전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능은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경지에 있어야만 합니다. 전능한 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야 합니다. 창조자는 무엇을 창조해도 모순이고, 하지 않아도 모순입니다. 이는 신이라는 명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통한 논리적 장난에 의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불교는 무(無)에서 유(有)가 절대 창출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더미에 벌레가 생겼다고 칩시다. 이것은 벌레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됐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의해 전도·양산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무에서 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죽음은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은 존재가 비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절대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립니다. 절대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리면 무한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을 가진 주의는 절대주의적 사고입니다. 이는 인간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불교는 인간의 문제를 오로지 신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자립종교입니다. 부처는 자신을 피난처, 즉 섬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또는 등불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법을 피난처로 삼고, 삶을 절대적인 고로 봐야 합니다.

10바라밀로 이뤄진 불교

어떤 것이 운명에서 불행을 결정할까요. 답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네가 아니라 나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이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앎’과 상대되는 단어는 ‘마음’입니다. 믿음과 앎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의식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지(理智), 감성(감정), 의지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이 3가지 중에서 감성(감정)을 중요시합니다. 감성을 대표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신념이 됩니다. 신념이 참을 보지 못하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신념은 때론 진리가 될 수 있겠지만, 진리와 관계가 없기도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은 참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참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행복은 지속가능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명백한 진실로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앎’이라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는다’와 ‘나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일 그것을 믿는 마음이 무의식까지 뻗쳐있다면 ‘믿는다’가 아니라 ‘안다’로 표현해야 합니다. ‘안다’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안다’를 표현해선 안 됩니다. 이렇게 믿음과 앎은 완벽히 다른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도 믿음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맹목적 믿음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믿음만 존재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법을 이해한 다음 수행을 하고 생활 속에서 그것을 완전히 경험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불교의 앎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지혜증득을 목표로 합니다. 지혜증득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언어를 통해 앎을 이해하기, 둘째 지혜를 바탕으로 앎을 알기, 셋째 몸과 마음의 경험을 통해 앎을 알기, 넷째 본질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증득은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불교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론과 과학이며 둘째는 내면의 지혜를 개발하는 것, 셋째는 함께하는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바라밀로 해결됩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법’을 의지처로 삼는 불교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행복
초기불교는 불교의 근본뿌리
불교는 논리적 과학적인 종교

왜 초기불교를 알아야 하는가

초기경전인 〈빠알리 니까야〉에서는 ‘사람들에게 얻은 지식’ ‘전통’ ‘소문’ ‘경전’ 등에 쓰여 있다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일단 그대로 따르기보다 우선 의심해 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의심한 뒤,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의심을 끊고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초기불교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초기불교는 근본뿌리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뿌리를 무시한 역사는 존재의 근원까지 흔들리고 맙니다.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 그 자체입니다. 이론은 삶 자체가 아닙니다. 이론은 응용돼야 합니다. 근간의 뿌리를 모르면 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초기불교를 알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불교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앎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앎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본질 무상 무아 고 연기 등에 대해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사성제(四聖諦)는 이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성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초기불교를 통해서 본말이 어떻게 전도됐고, 어떤 것을 참고해 판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불교는 현대 과학적 사고와 융화할 수 있는 해석적 방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초기불교는 철두철미한 과학적 이론이 성립합니다. 부처님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본체를 부정하는 이론을 전개했을까요. 바로 해체, 분석을 통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도자기는 그냥 보기엔 단순한 도자기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무수한 존재들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선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이 포함돼 있고, 흙 속에는 수많은 원소들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해체를 하면 실상이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으로 인간을 들여다 봤습니다. 이 같은 방법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초기불교는 이런 방법을 철두철미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불교의 이런 논리에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초기불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기불교는 가장 오래된 경전인 〈니까야〉등 주석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논리는 이론이 바탕 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문헌이 필요합니다. 문헌의 가장 오래된 형식이 바로 초기불교에 있습니다. 초기경전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전혀 가감 없이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들이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한국불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초기불교의 대한 이해는 자주불교의 이해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한국불교의 특색, 자존감, 본질을 현대적으로 어필하고 규명하려면 초기불교를 익혀 근본적인 논리가 전개돼야 합니다. 한국불교 대표 스님 가운데 단연 으뜸은 원효 스님입니다. 원효 스님의 논리와 타당성을 입증하는 근간은 초기불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불교의 자주성을 구현해내는 방법입니다.

한국은 다종교 국가입니다. 요즘 한국불교에 출가자가 점차 줄어들어 불자들은 불교의 미래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불교 세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출가하는 스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도 머지않아 이런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근본으로 돌아가 초기불교를 익히고 현대인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야 합니다.

암환자를 위한 특별 메시지

천 의 선 도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만천하에 공개 하면서



저는 천의선도 창도자며 대체의학 연구가 삼봉 김영생 스님 입니다. 저는 13세부터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2세가 된 오늘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듯이 가는길은 없을까하는 상염중에 19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신수련중에 천신의 계시를 받고 너무나 황당무계한것 같지만 천신의 메세지이니 믿고 내 주변에 말기암 환자 몇분에게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복용시켰더니 3,4개월이 지나 몸이 편안하다 하기에 병원진찰을 받아보니 암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소문에 따라 저를 찾아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데 한사람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립선,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일주일에 1번씩 4,5차례 기를 넣어 드렸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데 재발된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민중의술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의 초청을 받고 1998년 7월초에 미국에가서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병원에가서 담당의사들의 병증세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환자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5일간 했는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온 환자가 오후에 공원 산책을 혼자서 하고 돌아왔다고 담당의사가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함성을 지르며 천의선도 치료법을 전수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오하요주 주지사님이 한국의 민중의술이 세계에 으뜸이라고 찬사를 하시며 감사패를 주셨고, 17일에는 콜럼버스 시장님이 명예시민장도 주셨습니다. 2011년 월드코리아에서 세계속의 한국인 자랑스런 민중의술 대체의학 부문 대상도 받았습니다 만은 제 나이가 82세, 나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이세상에 전무후무한 천하제일의 천의(天醫) 하늘이 준 의술을 묻어두고 갈순없어 이 세상에 공개해서 한가정에 한사람씩 천하제일의 명의가 있다면 건강한 가정에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일반에 공개하면서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을 분 기다립니다. 나의 안내문에 의심이 나거든 강동구 천호2동 333-45 전화 02-568-4955 대가연 통증의원 원장 의학박사 심요택 박사님을 만나 보십시오. 심박사님은 암 환자를 대체의학의 자연요법을 체험해 보시고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감탄하시며 시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일반인이 자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는 분에게는 일체 전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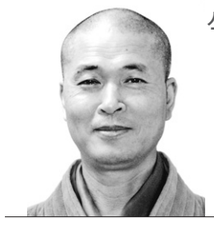
책값 50만원에 필요하면 은용해기 35만원, 매선침 100개 내지 150개 구입하면 준비완료.

천하제일의 명의가 되는데 소요시간은 천의선도를 전수 받고 실습시간 육각수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환신 받는데 10분, 5시간이면 넉넉하고 암환자를 치료 하려면 육경신수련 60일에 하루씩 6회 참석 수련하시면 됩니다. (오방신장의 관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입니다.)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의선도를 전수받으십시요.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배래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연락전화 : 010 - 4933 - 4528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선악 시비를 하지 말라

학승이 물었다. "화상의 성씨는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상주(常州)에 있어."
학승이 물었다. "춘추는 얼마나 되시는 지요."
조주 스님이 말했다. "소주(蘇州)에 있어."

問 和尚姓什麼 師云 常州有 云甲子多少 師云 蘇州有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 선사들이 대답하는 방식이 나타나 있다. 선사들은 성씨도 잊고 나이도 잊고 산다. 무심무아법(無心無我法)이 선사의 법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도 잊고 사는데 어찌 성씨와 나이를 기억하겠는가. 단지 질문자의 성의를 생각해서 비유로 대답한 것이다. 조주 스님의 성은 원래 학(郝)씨이다. 성씨를 묻는데 상주(常州)에 있다고 했으니 상주 학씨인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상주에 학씨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이를 묻는데 소주(蘇州)에 있다고 했다. 아마도 소주라는 지역에 조주 스님의 나이를 알 수 있는 특징적인 어떤 것이 있었던 모양이다.

선사는 내 나이가 110살이야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 말에는 '나' 라는 단정이 들어있고, '110' 이라는 확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없는 것이고 때문에 110세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숫자를 말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도 조주 스님의 나이를 묻는 질문에, "염주 알 숫자보다 많아"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스님이 법당에 나와서 설법했다.

"옳으니 그르니 하는 따위의 분별심이 생기면 곧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기에 대응할 말이 있는가?"

어떤 스님이 나와서 시자를 한번 툭 건드리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노스님께 대답을 드리지 않는 건가?"

조주 스님은 바로 방장실로 되돌아갔다. 나중에 시자가 가르침을 청했다.

"아까 그 스님이 알고 있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앉아있는 자는 서있는 자를 보고 서있는 자는 앉아있는 자를 본다."

上堂云 纔有是非紛然失心 還有答話分也無 有僧出撫侍者一下云 何不祇對和尚 師便歸方丈 後侍者請益 適來僧是會不會 師云 坐底見立底 立底見坐底

붓다는 선악시비를 하지 말라고 했다. 본래 선악도 없고 시비도 없는 것이 진리이다. 그러한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가리느라 허망하게 시간을 보내야 한단 말인가. 선사들도 법문 시간에 한결 같이 이것을 강조한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면서 마음이 어지러워진다면 그것은 곧 진심(眞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시비하면 마음이 흔들린다. 원래 고요한 진심을 흔들어놓는 것은 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공연히 시비로 마음을 들뜨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조주 스님 역시 이 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는가 물어본 것이다. 그러자, 한 스님이 일어나 조주 스님에게 반박했다.

그 스님의 뜻은 "선악 시비하지 말라는 것에 이의를 달 것이 뭐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할 말이 있는가 굳이 물으신다면 제가 문득 시자를 때리면서 왜 대답하지 못하느냐고 재촉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 선악시비를 가리지 말라는 것에 이의를 달 필요 없다. 그런데도 굳이 대응할 말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강제적이다. 전혀 말하고 싶지 않는, 혹은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선동해서 강제로 말하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강제적인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질문하는 선사가 잘못이다. 오히려 선사가 선악시비를 조장하는 것이고, 고요한 것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다. 한 스님의 이 말을 듣자, 조주 스님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뭐라고 더 말하다가는 먹칠한 것에 또 오물을 붓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말을 끝내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방장실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원래 앉아 있는 사람은 서있는 사람에게 눈이 가게 되어있고, 서 있는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에게 눈이 가게 되어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스님이 이 일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한 이 법을 표현할 줄도 아는 것이라고 조주 스님이 긍정한 것이다. 선사들은 긍정하는 것조차도 본인의 입으로 "그렇다." 하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말하면 그것 자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 말함으로써 묻는 자가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 선사의 문답법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 〈7〉

사성제-멸제(滅諦)

집착 벗어나 욕망의 불길 꺼진 열반의 경지

몸에 병이 들어 괴로워하는 사람은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판단력이 흐려져 엉터리 약장수나 돌팔이 의사에게 속아 병을 더 악화시키는 일을 당할 때도 있다. 요즘도 매스컴에서 굿을 하면 병이 낫는다는 꾐에 속아 돈을 뜯기거나, 효과도 없는 약을 명약으로 믿고 사서 복용했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사건 등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처지가 이와 다를 바 없다.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점점 삭막해지는 세상 속에서 안식처를 갈망하는 것이 마치 병든 자가 약을 구하러 다니는 경우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병든 자가 약을 구하고, 목마른 자가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상황은 절박한데 사람들은 늘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만 있다. 명예, 권력, 돈이 자신의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는 돌팔이 의사가 처방한 약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과 같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제(苦諦)'의 세상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작 그 원인은 알지도 못한 채 엉뚱한 방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양과 같다. 부처님은 갈애(渴愛)가 모여 고(苦)를 낳는 다고 설법했다. 따라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그 원인인 갈애를 없애야만 한다.

사성제의 세 번째 가르침인 멸제(滅諦)는 이 갈애가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갈애는 일체의 괴로움을 대표하는 말로 집착·애착·번뇌 등과 같은 의미이고, 이 갈애가 남김없이 사라진 상태를 열반(涅槃; nirvana)이라고 한다. 열반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가 덧붙여져 다양하게 확대해석 돼 가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욕망의 불길이 꺼진 상태' 를 표현하는 말로 쓰인다. 그 이유는 열반을 가리키는 '니르바나' 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가 '불어서 끄다', '식히다' 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언어이기 때문이다.

경전에서는 번뇌를 '타는 듯한 갈증', '모든 것을 집어 삼켜버리는 불길' 등으로 비유해 표현한다. 이 갈증이 해소되고, 불이 다 꺼진 상태가 바로 니르바나인 것이다. 즉 욕망에서 벗어난 해탈의 상태를 가리킨다. 초기경전 쌍윳따 니까야(Saṁyutta-Nikāya)에서는 '열반이란 탐욕, 증오, 미망(迷妄)이 모두 멸해 소진한 것[滅盡]을 말한다' 고 돼 있다. 또 모두 멸해 사라져 버려야 할 '멸진(滅盡)' 의 대상으로 탐·진·치 삼독(三毒)을 들기도 한다. 이 삼독은 다른 말로 세 개의 불, 즉 삼화(三火)라고도 표현한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주로 '뜨거운 것' 등으로 비유한다.

자주 드는 예 중에 촛불 비유가 있다. 촛불은 자기 몸뚱이인 초를 다 녹일 때까지 꺼지지 않는다. 이 촛불의 작은 불씨가 다른 곳으로 옮겨 붙으면 제아무리 큰 대궐이라도 남김없이 태워버리고 만다. 마치 인간의 욕심이 커지면서 끝내는 자신의 심신을 파괴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부처님은 활활 타오르는 거센 욕망의 불길도 통제가 가능하고, 그것을 끌 수 있다고 사성제의 가르침을 통해 선언했다. 몸소 열반의 경지에 도달해 욕망이 소멸한 상태를 증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선언이었다. 갈애, 즉 번뇌와 애착, 삼독 등으로부터 벗어나 욕망의 불길이 꺼진 마음의 상태를 '멸제' 의 가르침으로 증명한 것이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이 열반의 경지만이 진정한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⑫



도를 행하는 것은 마음에 있지, 반드시 나를 보아야 하는 것 아니네 〈붓다차리타〉

부처님

부처님, 그래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중생이 아니겠습니까?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가 좋으면 노래만 좋아야 할 터인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소원을 말해봐"를 춤추면서, 보여주고 들려준 수영이도 예쁘고, 윤아도 예쁘고, 서현이도 예쁘고…. 좋아지는 것을 어쩌란 말입니까? 그녀들에게 환호하는 것, 그게 팬(Fan)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방에는 이 이쁜 소녀들의 사진이 덕지덕지 붙어 있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향변을 하는 데, 중생이 중생인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나는 머지않아 열반에 들겠다"라는, 부처님이 내리치시는 벼락을 맞은 중생들은 산지사방으로 혼비백산했다. 저마다 울고 불고 아우성이었다. 부모를 잃고, 이 너른 세상에 혼자 덩그마니 남겨진 고아들의 심정이었으리라. 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다는 말인가? 부처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부처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는 부처님을 뵈올 수 없게 되리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붓다차리타〉 열반품) 부처님께 하소연하고 있다.

자비로운 부처님께서는 슬픔에 빠진 중생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셨을까? 따스하게 위로해 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부처님은 따스한 분이 아니시다. 자비로운 분이 아니시다. "그래, 그렇지?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얼마나 외롭겠는가? 우선은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봐라. 머지않아 내가 다시 오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따스한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부처님을 잘 모르고서 하는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가끔 "부처님은 결코 자비롭지 않다"고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물론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자비롭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무자비할 때도 있다. 그렇게 자비와 무자비를 함께 갖고 있는 것이 불교이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이다. 부처님께서는 따스하게 중생을 위로해 주시지 않으신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중생들의 잘못된 관념을 일깨워주실 뿐이다.

"비록 나와 떨어져 있더라도 내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그는 나와 가까이 있을 것이다. 설사 함께 머문다 하더라도 내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하리라."

나를 보지 말고, 내 가르침을 보게나.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러한 분이 부처님이시다. 부처님 자신에 대한 인격적인 숭배를 원하지 않으셨다. 당신께서 발견하신 그 진리를 우리가 실천하고, 그에 따라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염원하셨다.

어쩌면 이는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외치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시대에, 과연 어떤 분이 진실한 스승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 자신이 설하는 가르침 보다는 그 가르침을 미끼로 해서 자신을 더 숭배해 주기를, 자신을 스승으로 모시고 추종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그는 진정한 스승일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스승은 고독할 뿐이다!

정말 그렇다. 부처님은 그분의 모습이나 음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삿된 일임을 〈금강경〉에서도 설하게 된다. 바로 〈붓다차리타〉의 이 말씀과 같은 취지이다.

사람에게 열광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그가 아직 검증이 다 끝나지 않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소녀시대의 예쁜 소녀들을 보지 못할 때가 오더라도, "소원을 말해봐"는 더 오래 오래 남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노래를 듣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지, 소녀들에게 열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명심하라! 소녀들은 늙어가도, 노래는 늙지 않는다는 것을.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생긴 형태만큼 쓰임도 다양했던 석수조

수조

수조는 물을 담아 놓는 물그릇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조를 만들 때 주로 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수조라고 하기보다는 석수조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순 우리말로는 물확 또는 돌확이라고 부른다. 전통공간에 놓인 석수조를 보면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엌 가까운 데 놓고 음식을 장만하는데 필요한 물을 얻기도 하였고, 정원에 놓고 물을 담아 연을 키우거나 물고기를 기르는데 쓰기도 하였다. 석수조의 형태도 다양하여 사각형으로 만든 것도 있고 둥근형으로 만든 것도 있다. 크기도 용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지나치게 크거나 작지 않고 적당하여 보기에 좋다. 한편, 석수조를 하나만 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를 조합해서 쓰기도 하였는데, 형태나 크기 그리고 조합에 따라서 그것이 표현하는 아름다움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석수조가 아주 친근하게 취급되었다. 후원에 놓고 음식 장만하는데 쓸 물을 담아놓기도 하였고, 연못을 파지 못하는 곳에는 연못 대신 사용하여 연을 기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사찰에 남아있는 석수조 가운데에서는 순천 선암사 달마전 뒤뜰에 놓인 삼탕(三湯)이 유명하다. 이 석수조는 형태와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수조를 조합한 것으로, 각각의 형태와 크기가 다르고 조합한 솜씨 또한 일품이어서 멋스럽다. 지금은 4개의 석수조가 연결되어 있으나 예로부터 이것을 삼탕이라고 불러온 것을 보면 원래는 제일 위편에 있는 사각형 석수조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삼탕은 경관요소로 쓰인 것이라기보다는 물을 담기 위한 기능적 용도로 쓰인 것인데, 물은 가까운 곳에 있는 샘에서 나무홈통을 이용해서 끌어왔다. 제일 상부의 석수조에 담긴 물은 다시 대나무 홈통을 이용하여 차례로 다음 석수조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안압지의 입수구에서 볼 수 있는 2단 석조를 연상하게 만든다.

물 담아놓는 물그릇 석수조
순 우리말로는 물확 또는 돌확
사찰서는 예로부터 친근하게 취급돼

선암사 스님들의 말에 따르면 각각의 석수조에 담긴 물은 그 용도가 다르게 쓰였다고 한다. 즉, 제일 상부의 석수조에 담긴 물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수로 썼고 다음 석수조에 담긴 물은 찻물로 썼으며, 그 다음 것은 밥을 짓는다거나 채소를 씻는 등 부엌일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선암사에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차문화가 전승되어 내려오는데, 조왕신을 모신 차 부뚜막과 더불어 이 삼탕이 그러한 선암사의 차문화를 증거하는 것이어서 더욱 귀중하게 여겨진다.

경주 불국사에는 오래된 석수조가 하나 남아있다. 보물 제1523호로 지정된 이 석수조는 사각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조성시기를 통일신라시대까지 올려 잡는 것을 보면 불국사 창건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석수조의 내부 밑바닥에는 아름다운 연꽃문양이 새겨져 있어 물을 담으면 마치 연꽃이 활짝 핀 것처럼 보인다. 또한 석수조의 바깥면에는 돌아가면서 중앙부와 상부에 가로로 도드라진 띠를 새겼으며, 그 아랫부분에는 긴 변 양쪽에 각각 6개, 짧은 변 양쪽에 각각 3개씩 모두 18개의 안상을 조각하여 지극히 화려한 형식을 보인다. 이 석수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지만 연꽃이 새겨진 석수조라면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이 석수조에 연꽃을 심어 감상하였을 것으로 보지만 당시 불국사에 구품연지가 있었다는 것과 바닥의 연꽃문양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용도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청운·백운교에서 대웅전 쪽으로 올라가는 동쪽 계단 시작하는 곳에 놓고 옥로수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는데, 이 석수조가 보물이라는 것을 아는 이가 많지 않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우리나라 사찰에는 석수조가 많다.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공주 중동석조(보물 제148호)와 반죽동 석조(보물 제149호), 대전 보문사지 석조(대전 문화재자료 제10호)를 비롯하여 합천 해인사의 대형 석수조, 순천 선암사의 석수조, 순천 송광사의 석수조, 고성 옥천사의 석수조 등이 대표적이다.



순천 선암사 삼탕. 맨 위의 사각 수조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부의 물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수로, 두번째 수조의 물은 찻물로, 그 다음은 공양간 용도로 쓰였다.



해인사의 대형 석수조는 담과 인접해 있다.



순천 송광사 석수조는 사각형이다.



선암사에는 석수조가 여럿 있다.



옥천사 후원의 석수조도 유명하다.



연꽃 형태로 만들어진 승미사의 청동 수조



보물로 지정돼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석수조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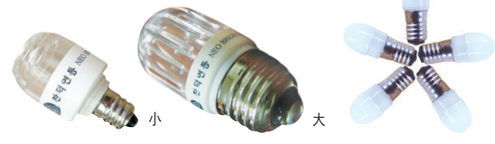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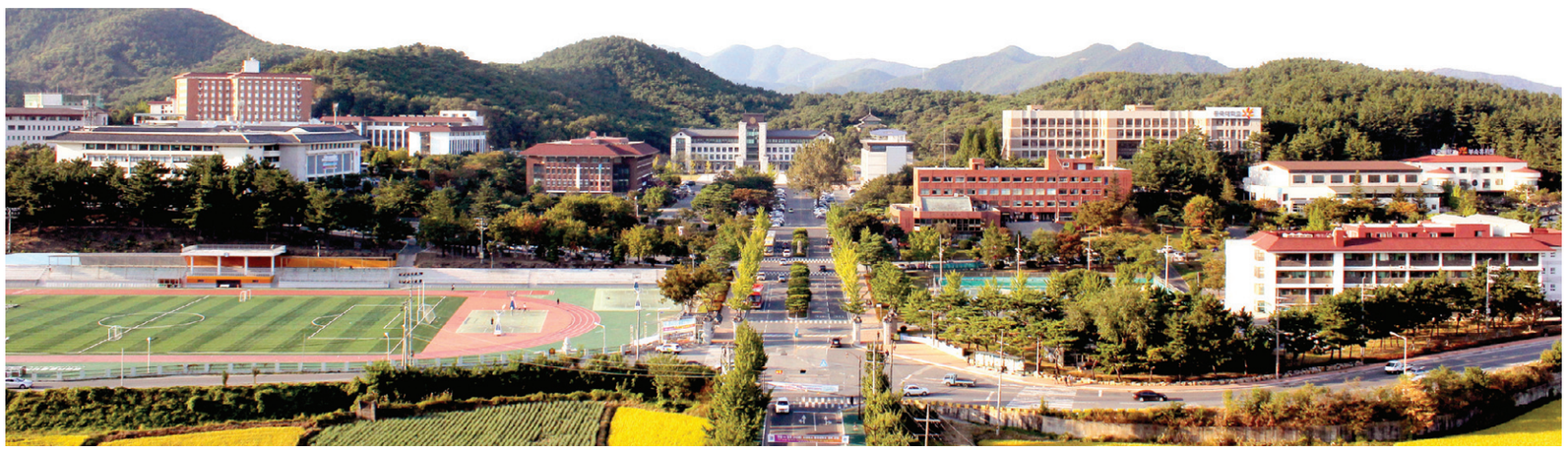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천년고도에서 미래 천년 가꾸는 '교육 도량'

③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아침 저녁 범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전경. 개교 34주년을 맞은 경주캠퍼스는 '불교와 경주'의 문화와 역사를 기반으로한 글로벌 시대의 융복합학문의 산실로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특성화, 국제화, 융합화' 등 3대 발전 전략을 축으로 '비전 2020'을 선포했다.

'2012년 고용노동부 창조캠퍼스 구축 사업 선정' '2012년 고용노동부 대학청년 고용센터 사업선정' '환경부 선정 저탄소 그린캠퍼스 사업 추진대학' '정보통신공학부 2011년 공학교육인증 획득' '12년 연속 간호학과 간호사국가시험 100% 합격' '한국실용글쓰기 검정시험 66명 합격' 등등.

오래전 한 시인은 진흙이 묻어나는 3월의 캠퍼스에서 '정구공 소리'를 듣고 감격했었다. 아침저녁으로 뎅~뎅~ 범종소리가 들리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이하 경주캠퍼스)에서는 봄바람에 펄럭이는 많은 현수막을 볼 수 있다. 선정, 인증 획득, 합격 등의 낭보를 알리는 문구들 아래로 퍼지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더없이 싱싱하여 산수유나무도 노란 웃음을 피워 내고 있다. 집안분위기는 마당에서부터 느껴지는 법.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의 정열과 학교당국의 열정이 경주캠퍼스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올해로 개교 34년을 맞은 경주캠퍼스는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도약하고 있다. 도약의 핵심에너지는 1년 전 김영종 총장이 취임하면서 선포한 '비전 2020'. 특성화, 국제화, 융합화라는 3대 발전전략을 축으로 하는 '비전 2020'은 ▷교육역량 강화 ▷연구경쟁력 향상 ▷국제화 수준 제고 ▷재정 인프라 확충 ▷경영 시스템 혁신 등을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이 10개년 계획은 첫 해부터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순항 중이다.

경주캠퍼스는 작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잘 가르치는 대학(ACE)'과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동시 선정되어 향후 4년간 127억 원의 국고 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앙일보가 실시하는 대학평가에서는 학생충원율 전국공동 1위, 국제화 부문 전국 13위, 취업률 전국 16위, 외국인 교수 비율 전국 6위, 영어강좌 비율 전국 17위 등의 성적을 받았다.

경주캠퍼스는 환경부의 저탄소 그린캠퍼스 사업 추진 대학으로 선정되어 생태와 녹색환경 캠퍼스 조성에 나서고 있다. 학교를 둘러싼 산이 백로 서식지인 경주캠퍼스는 자연과 조화되는 캠퍼스환경을 조성할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에코타운, 습지공원, 테라피 공원, 조류관찰 데크, 탐방로 조성 등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무엇보다 경주캠퍼스는 '천년 고도 경주'라는 지리적 역사 문화적 배경을 십분 활용하여 어느 대학도 갖지 못할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그 실례가 'IPTV 기반 문화관광 글로벌 방송 구축 사업'이다. 이는 지식경제부, 경상북도와 공동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이

'잘 가르치는 대학'(ACE)
'그린캠퍼스 추진 대학' 등 선정
비전 2020 선포, 첫해 목표 초과
'불교와 경주' 성장 동력 조건

사업의 궁극은 방송, 통신, IT, 콘텐츠, 문화관광 산업을 융합해 동반 성장 하는 것. 쌍방향 미디어 시스템으로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통로를 경주캠퍼스가 열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총 사업비 1847억 원 규모의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 사업에도 선정되어 지난해 30억 원을 수주했고 5년 후 결실을 맺게 된다. 실감 미디어란 3D 혹은 4D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개념 미디어 산업이다.

경주캠퍼스의 국제화는 '창의적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주목할 것은 작년 5월 대만 국립고웅사범대학에 이어 8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세크라멘토와 '2+2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협약한 것이다. 경주캠퍼스 학생이 본교에서 2년 공부하고 협약한 대학에서 2년 공부하면 두 학교에서 동시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외에도 토익사관학교를 통한 집중 영어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일본 중국으로 산업체를 탐방하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주캠퍼스의 정체성은 조계종 종립대학이라는 태생적 환경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학내 구성원들은 "다른 대학들이 수도권 지역에 캠퍼스를 세울 때 동국대가 경주에 지방캠퍼스를 세운 것은 특별한 안목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실감한다"고 입을 모은다. 민족의 전통종교로서의 불교와 경주라는 고도의 역사 문화적 바탕이 현대사회의 새로운 대안 창출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년 고도를 배경으로 미래의 천년을 가꾸는 교육도량이 경주캠퍼스인 셈이다.

교책연구기관인 불교사회문화연구원, 바이오융합연구원, 아시아연구원, 미래에너지기술연구소 등은 각각의 부설연구기관을 통해 독자적인 업적을 쌓으며 상호 융복합화 시너지를 형성해 가고 있다. 특히 불교사회문화연구소는 현대사회의 당면 현안들을 불교적 관점에서 진단하며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불교학의 확산과 포교의 동력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불교정신으로 역사와 문화적 토양을 현대사회의 지침으로 제시하는 경주캠퍼스만의 연구소도 적지 않다. 신라문화연구소, 인문학연구소, 불교조형디자인연구소, 문화예술디자인연구소, 동학연구소, 사찰조경연구소, 갈등치유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문화관광산업연구소 등이 해당된다. 의과대학과 양 한방 동시 진료기관인 동국대병원의 성장속도도 가속을 내고 있다.

경주캠퍼스가 작년에 지급한 장학금의 총액은 188억 원에 이른다. 학부생을 기준으로 1인당 165만 8000원. 350여 종의 교내외 장학금이 미래인재 양성에 투자되고 있다. 졸업 동문들의 후원과 불교계 사찰과 불자들의 기부가 큰 힘을 얻고 있다. 올해의 지급 예정 장학금은 23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3%가 증액된 금액이다. 거기에 '원효인재장학금'을 신설, 우수인재 육성에 특별한 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경주에 위치하면서도 전교생의 절반이 수도권 출신이다. 이에 따라 기숙사 시설에도 적지 않은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기숙사와 비구니 학인들의 기숙사인 '사라림'이 문을 열어 2000명(재학생 전체의 23%)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원효관 1층 유아교육학과 실습실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던 3학년 학생들에게 물었다.

"이 학교 좋은 것과 나쁜 것 좀 말해 줄래요?"

"좋은 건 취직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유아교육학과나 불교아동학과의 경우 거의 100% 취업을 하는데, 커리큘럼은 물론이고 실습 공간 등 여러 조건들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쁜 점은… 없어요! 호호호"

경주=임연태 논설위원



IPTV 사업을 경북도와 공동추진하고 있으며, 실감미디어 산업 기반 구축 사업에도 선정됐다.



2012년 입학식 모습. 올해 232억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원효 인재장학금'도 신설했다.

"학문의 융복합화로 글로벌 시대 주도"

비전 2020 선포한 김영종 총장



"올해 우리 학교에서는 중요한 행사가 두 건 치러집니다. 7월에 해외 교포2세 사업가들의 네트워크인 세계한국무역협회 세미나가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여기에 우리 학생 20여명이 참가하여 교류하게 됩니다. 10월에는 경주에서 국제펜클럽 대회가 열리는데, 여기 오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4명이 우리 학교에서 강연도 하고 토론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도 강연을 듣게 됩니다."

취임 1년을 맞은 김영종 경주캠퍼스 총장은 행정고시 출신이다. 누구 못지않게 두터운 실무 경험과 학문적 성과를 가지고 있다.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에 탁월한 기억력이 가세하여 경주캠퍼스의 비상(飛上)을 주도하고 있다. 7월과 10월에 열리는 두 행사는 무심히 지나치면 '남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을 김총장이 발 빠르게 움직여 '나의 일'로 만들어 낸 사례다.

"불교대학으로서의 장점은 물론 기초학문의 토대를 충분히 다지고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폭넓은 국제교류를 통해 글로벌시대에 발맞춰 가는 것이 학교 발전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것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기초학문과 시설 및 장학금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경영 인프라도 갖춰져야 합니다. 경주캠퍼스는 명상과 참선교육을 통해 윤리적 기초를 튼튼히 하고 전공에 들어가 깊고 넓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문을 융복합화 체계로 확산해 나가는 것도 주안점이어서 교양과목들도 전면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김총장은 취임과 더불어 '비전 2020'을 선포하며 서울캠퍼스와 분리된 경영구조에서 폭발적인 발전의 키워드들을 추출하여 첫 해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국제선센터 건립 올 연말 준공

힐링센터 등 3대 전략사업

경주캠퍼스는 올 상반기 국제선센터를 착공 연말에 준공할 계획이다. 불교국제교육센터, 국제의료관광 양한방 협진 힐링센터 설립과 궤를 함께 하는 경주캠퍼스의 전략사업이다. 이 세 가지의 센터는 불교와 문화, 국제화, 관광, 의료 분야를 융복합화 하여 불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글로벌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승화시키게 된다.

약 500평의 건평에 3층 규모로 지어질 국제선센터는 참선과 명상, 교육, 요가, 선체조 등을 중심으로 하는 템플스테이 공간과 게스트 룸 등으로 꾸며지게 된다.

작년 8월 달라이라마가 김영종 총장에게 전해준 부처님 진신사리 5과를 중앙법당에 모시게 된다. 재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의 현장으로도 사용된다.

경주캠퍼스는 국제선센터 건립을 위해 그동안 24억 원을 모금 했고 금년에도 모금 활동을 전개한다.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컷 마하연투어
성 지 순 례

미얀마 성지순례
5/30, 6/1, 6/8, 6/14, 6/21, 6/23 출발확정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 요금문의
* 특급(세도나 또는 동급)호텔, 업그레이드 식사, 비자 포함
*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 포함 / 유류할증료 불포함

여행사 남녀 가이드 견습생 모집
◆ 해외 파견 견습생 2 명
◆ 국내 연수 견습생 2 명
◇ 서류제출 :
– 여권사진 부착 이력서 1통.
– 자기소개서 1통
– 종단불문 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1통.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 호
불교성지전문여행사 주) 마하연 투어
문의 : 02)365-7747

■ 인도 성지순례 9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정찬주의 아쇼까대왕 유적답사 (2)

살생금지 등 자비 넘치는 담마칙령

답사일행은 부겐빌리아와 빠또리아 꽃들이 만발한 다울리 언덕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코끼리 바위 주위로 모인다. 코끼리 바위에 아쇼까왕의 담마칙령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바위에 왕명이 새겨져 있다고해서 '바위 담마칙령' 혹은 일본식 한자어로 '마애법칙(磨崖法勅)'이라고 부른다.

인도인 로이 청년이 영자 안내문을 보고 설명하지만 그 자신도 담마칙령(담바삐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나중에라도 가방에 챙겨 온 〈아쇼까왕 비문〉(호진스님 역)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쇼까왕의 생생한 유적지에서 책을 참고하고 의지하는 것은 고지식한 백면서생에게서나 가능한 일이리라. 추리와 상상력이 발휘되지 않는 답사는 무미건조할 뿐이다.

답사일행은 코끼리 바위 앞에서 탄성을 지른다. 거대한 바위 상단에 머리만 내민 코끼리 조각은 정글에서 통나무나 나르는 순한 짐승이 아니라 깔링가 전장 터를 눈부릅뜨고 지켜보는 사자와 같이 용맹한 모습이다. 기원전 3세기 때 조각인데도 동그란 두 눈은 또렷하고, 콧속까지 깊이 판 코에서는 곧바로 다야강의 강물이 뿜어져 나올 듯하다.

아쇼까왕은 왜 이곳 다울리 언덕에 코끼리를, 그것도 머리만 조각하도록 지시했을까? 답사일행은 코끼리 전신이 조각되어 있었다면 한두 번 눈길을 주고 나서는 바로 칙령이 새겨진 바위덩어리 하단으로 내려갔을 터이다. 일행은 코끼리 머리만 조각된 바위 상단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동안 서성거린다. 아쇼까왕이 던진 화두에 걸린 것처럼 각자 상념에 잠겨 본다. 잠시 후 대요 스님이 한 말씀하신다.

"아쇼까대왕이 이곳에 코끼리를 조각하고 바위에 칙령을 새기도록 명령한 것은 어떤 뜻이 있을 겁니다. 왜 머리만 조각하고 몸을 숨겼을까요? 부처를 보는 안목을 가진 자만이 코끼리 몸을 꺼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끼리 몸까지 꺼내 볼 수 있는 자는 아쇼까대왕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살생이야말로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첫 번째 수행

이윽고 일행은 바위덩어리 하단으로 내려가 본다. 각문(刻文)을 보호하기 위해 철책으로 막아놓았지만 뒷사람들을 위한 합당한 조치 같다. 아쇼까왕의 사상이 담긴 담마칙령, 즉 각문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다. 다만, 아쇼까왕의 자비정신이 넘쳐나는 제 1장은 호진스님께서 번역한 그대로 옮겨본다.

'이 법칙은 천애희견왕(아쇼카대왕)이 새기게 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생물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도살되어서는 안 된다. 역시 어떠한 집회도 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천애희견왕은 집회에서 많은 폐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애희견왕은 어떤 종류의 집회는 좋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천애희견왕의 수라간에서 매일 수백 천 마리의 동물들이 요리를 위해 도살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법칙이 새겨진 때에는 단지 3마리의 동물만이 도살되고 있다. 2마리의 공작과 1마리의 사슴이다. 그렇지만 이 사슴조차도 정기적으로 도살되지는 않는다. 이 3마리의 동물도 앞으로는 도살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21세기 인도사회에서 양이 사람들의 속죄양이 되어 힌두제단에 올려지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기원 전 3세기 때에 제물의 도살을 금지시키는 아쇼까왕의 자비심이 놀랍기만 하다. 인도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다. 고사를 지낼 때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절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으니 말이다.

아쇼까왕이 집회를 금지시킨 것은 향연에서 살생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왕의 수라상에 3마리의 동물만 오르게 한 까닭은 일시에 불살생의 계율을 실천하기가 그만큼 어려웠음을 방증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아쇼까왕은 3마리의 동물도 앞으로는 도살되지 않을 것이라고 담마칙령을 통해 약속하고 있다.


아쇼까왕이 깔링가 전투를 지휘했던 자리에 지금은 평화의 탑이 조성돼 있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그 존재들을 돕고 사는 것이 불교의 이상적인 삶이라면 불살생이야말로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첫 번째의 수행이 아닐까 싶다. 제 2장은 사람과 동물이 존귀한 생명체로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자비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천애희견왕은 영토 도처에 두 종류의 병원 즉 사람을 위한 병원과 동물을 위한 병원을 세웠다. 또 사람에게 효용이 있고 동물에게 효용이 있는 약초를 재배하게 했다. 약초가 없는 곳에는 수입해서 재배하게 했다. 나무뿌리와 열매도 약초와 마찬가지로 재배하게 했다. 도로에는 사람과 동물이 사용할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게 했다.'

서구의 르네쌍스가 신본주의에서 인간중심의 휴머니즘사상을 일으켰다면 부처님 법은 신본주의나 인본주의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운 생명중심사상이라고 해야 할 터이다. 아쇼까왕이 동물을 위해 도처에 병원을 짓고 약초를 재배했다는 말에 내 영혼이 정화되는 듯하다. 경전에 따르면, 살생을 저지르면 우리 심성에 갖추어진 자비의 씨앗이 함께 죽어버린다고 했는데, 아쇼까왕의 제 2장 담마칙령이 부처님 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듯하여 새삼 감동스럽다.

그런가 하면 제 3장 담마칙령은 제 1장과 제 2장의 담마칙령이 실천되고 있는지 관리들은 순찰을 떠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4장은 담마칙령을 실천한 결과 '전쟁의 북소리는 법을 알리는 소리가 되었다'고 평하고 있다. 제 5장은 법대관은 죄수나 노인 등 약자를 위해 종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바로 이 점이 복지를 부르짖는 요즘이라서 그런지 더욱 눈에 띈다. 한편, 제 6장은 왕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나의 노력이나 백성들 일에 대한 나의 처리를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오직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중략) 내가 노력하는 것은 모든 유정(有情)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서이고, 이 세상에서 그들을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다음 세상에서 그들이 천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물론 나는 담마칙령이 아쇼까왕의 독창적인 통치철학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아쇼까왕 곁에서 왕사 역할을 한 목갈리뿟따 띳사 같은 장로 등이 설한 법문이 근간을 이루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비록 장로들의 법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지혜로 체화하여 다스렸던 통치행위는 위대함, 그 이상인 것이다.


아쇼까왕의 담마칙령이 새겨진 다울리 언덕의 코끼리 바위. 머리만 조각된 코끼리는 깔링가 전쟁터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사자처럼 용맹스런 모습이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노력 하는 것은 나의 임무"
사람 · 동물 위해 약초재배하라
칙령 통해 평화 · 생명존중 천명

다울리 언덕을 떠나려는데 자꾸 코끼리의 부릅뜬 두 눈이 머릿속을 맴돈다. 아쇼까왕의 눈이 저와 같이 왕방울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이다. 버스가 다울리 언덕을 지나쳐 '평화의 탑' 앞에 정차하자 그제야 머릿속의 상념이 바뀐다. 답사일행은 버스에서 하차한 뒤, 오이를 하나씩 사서 목을 축인다.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오이와 똑같은 모습이다. 장기를 인도에서는 상희(象戱)라고 하는데,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왔듯 오이도 인도에서 온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일본인이 후원한 평화의 탑과 4대 힌두사원 중 하나인 자가나스 사원

다야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평화의 탑은 1973년에 일본의 불교종파인 남묘호랑교에서 성금을 보내 조성했다고 하는데, 불상이나 사자상을 시멘트로 조상(造像)하여 하나같이 조악하다. 그러나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하여 인도인들의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 자리가 바로 깔링가 전투 때 아쇼까왕이 전투를 지휘했던 곳이었을 것이다. 문득 아쇼까왕이 다야강을 공격하기 전에 마하다니강을 건너던 모습이 떠오른다. 아쇼카왕이 강을 건너면서 칼을 빠뜨렸는데, 장수들은 불길하니 퇴각하자고 했고 아쇼까왕은 북을 쳐 '공격 앞으로'를 명령했다고 한다. 하필이면 왜 강에서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빠뜨렸을까. 무력을 버리고 부처님 법을 받들게 하라는 상징처럼 받아들여진다. 아쇼까왕의 운명은 이미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짐작이 되는 것이다. 비록 전생담이지만 소년 아쇼까는 소꿉놀이를 하고 있다가 부처님이 다가오자 자기 신발에 모래밥을 담아 공양한 공덕으로 부처님으로부터 '훗날 국왕이 되고 삼보에 귀의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았던 것이다.

답사일행은 부바네스와르 시내로 돌아와 힌두스탄호텔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힌두사원을 방문하자고 의견을 모은다. 이미 예약을 한 듯 릭샤꾼들이 호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릭샤란 사람이 바퀴를 굴려서 움직이는 전근대적인 탈것인데, 자전거를 변형시킨 삼륜차라고 보면 된다.

자가나스(Jaganath) 힌두사원 광장에는 힌두신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때마침 두 마리 황소가 흥분한 채 영역싸움을 하고 있다. 검은 뿔과 흰 뿔이 부딪치는 소리가 우지직 기둥 부러지는 소리와 흡사하다. 날벼락이 치는 것처럼 두려움이 느껴지는데도 인도인들은 천연덕스럽게 광장을 오가고 있다.

답사일행은 힌두사원 입구에서 돌아서고 만다. 소고기를 먹는 타종교인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이래저래 소가 문제다. 할 수 없이 일행은 힌두사원을 볼 수 있는 광장 출입도로 옆에 선 건물로 올라간다. 힌두 사두나 예비수행자들이 기거하는 승방 건물이라고 한다. 옥상에 오르니 비로소 12세기 때부터 조성해 온 장엄한 자가나스 사원 안이 보인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힌두신자들의 기도가 빛에너지로 바뀐 것인지 나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방광(放光)이 보인다. 우윳빛 아치가 첫 번째 탑과 두 번째 탑 사이의 허공에 한동안 나타난 것이다. 빛의 굴절현상이나 무슨 반사광이 아닌가 싶어 도리질을 하며 다시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다. 우윳빛 아치가 무지개처럼 떠 있다.

강행군하여 헛것을 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답사를 축하하는 서기(瑞氣) 같다는 생각이 들자 신비로움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일체유심조의 도리를 다시 헤아려 보는 방광이 아닐 수 없다. 아쇼까왕의 담마칙령이 새겨진 바위, 머리만 조각된 코끼리의 인상이 강렬했던 탓이 아닐까도 싶다.


글=정찬주 · 사진=아일선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435㎜×300㎜

종이영가옷 / 예수재함 / 종이신발


A형-남 정가 1,500원 할인가 1,200 (100벌 이상) A형-여


B형-남 정가 1,300원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B형-여


동남 정가 1,000원 할인가 800 (100벌 이상) 동녀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할인가 700 (100벌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50원 할인가 180 (600개 이상)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각100개 30,000원 • 남자/여자/위패


영가 /방수등표大 판매가 35,000원
• 비닐+등표+집게
• 9.6㎝×22㎝
• 100매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 공단등(6㎝) @2,500원 (50개이상)
• 공단등(8㎝) @3,000원 (50개이상)
• 공단등(10.5㎝) @5,000원 (24개이상)
• 공단등(13㎝) @10,000원 (12개이상)
• 공단등(20㎝) @35,000원 (4개이상)
• 바림등(6㎝) @2,700원 (50개이상)
• 바림등(8㎝) @3,300원 (50개이상)
• 바림등(10.5㎝) @6,000원 (24개이상)
• 바림등(13㎝) @12,000원 (12개이상)
• 바림등(20㎝) @35,000원 (4개이상)
• 공단·바림 칼라등(30㎝) @90,000원

• 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1Box)
• 비닐만월등(국산) 170,000원 (1Box)
• 연화만월등(100개) 240,000원 (1Box)
• 영가만월등(100개) 170,000원 (1Box)
• 장 만 월 등(100개) 200,000원 (1Box)
• 청사초롱등(100개) 270,000원 (1Box)
• 비 단 접 등(10.5㎝) 340,000원(100개)
• 비 단 접 등(12㎝) 350,000원(100개)
• 종이주름등(200개) 160,000원 (1Box)

방수전선(한줄50구)
23㎝ / 25㎝ / 30㎝ 5줄이상@ 65,000원
50㎝ 1m / 2m 기타주문생산


LED전구 A형 110,000원[국산]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안전 인증 제품
전구(5W/8W) @450원 [국산] 1BOX: 100개 제조원: 동진전구


봉축카드[21종] @300원(1,000장 이상) 구성 : 봉투, 내지 인쇄포함 내지 : 18.5×25.6cm 봉투 : 19×13cm


연잎(일반)/바림/신칼라(천) 5,500원/ 7,000원/ 25,000원 연분/진분/노랑/주황 빨강/녹색/흰색


집게부착PVC등표 20,000원 (100개) 크기: 8.5×2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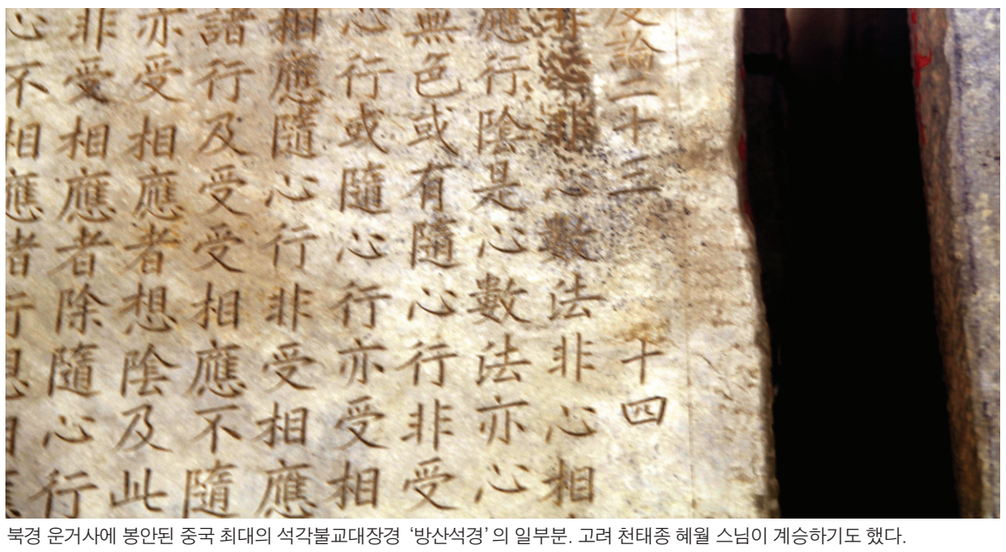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121068-56-042256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인쇄 문화의 꽃 - 판화의 원류를 찾아 ①

한국고판화학회 제1차 해외 학술답사

1천여 년간 3천 5백만자 '방산석경' 새긴 불심에 감탄



북경 운거사에 봉안된 중국 최대의 석각불교대장경 '방산석경'의 일부분. 고려 천태종 혜월 스님이 계승하기도 했다.



석경, 지경, 목판경을 집대성해 봉안하고 있는 운거사 산문

수, 정완 스님 원력 석경 조각 시작
몽골·티베트·고려인 등 불사 동참
크고 작은 경판 1만 4천여 개

장경동과 석경지궁에 나눠 봉안
훼손 우려 1999년 일부 다시 매장
석굴 보수중, 석경 친견 못해 섭섭



운거사 북탑전경



한국고판화학회 제1차 해외학술답사에는 고판화 관련 학자와 판화 · 인화 · 사진작가 등 2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고판화학회(회장 한선학)는 2월 14~19일 중국 사찰과 유적지 박물관 등을 답사했다.

행사에서는 ▷운거사 ▷중국국가도서관 ▷중국인쇄박물관 ▷수도도서관 ▷문진조판박물관 ▷영보재 ▷자금성 무영전 ▷국가박물관(이상 베이징)과 ▷석가장 비로사 ▷륭흥사(이상 허베이성) ▷무강현의 무강연화박물관 등을 방문했다.

이번 답사는 중국 고판화 관련 유적지와 저명한 관련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연구자료 수집과 한 · 중 고판화 연구학자들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관암 스님(해인사박물관장), 성안 스님(해인사대장경보존국장), 박도화 교수(동국대), 강순애 교수(한성대), 김경혜 교수(영남이공대) 등 고판화 관련 학자와 판화 · 민화 · 사진작가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중국에서는 주심혜 교수(수도도서관 부관장), 마문대 연구관(수도도서관), 소동발 교수(북경대), 강심 관장(문진조판박물관), 보송년 교수(중앙미술학원), 왕옥빙 관장(무강연화박물관) 등이 참여했다.

고판화학회는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해인사박물관, 해인사 대장경 보존국, 고려대장경연구소,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목판연구소, 청주고인쇄박물관, 삼성출판박물관 등 고판화 관련 연구기관과 미술사, 서지학, 불교학, 민속학, 박물관학 등 관련 학자 60여 명이 참여하여 지난해 발족한 학회이다.

고판화 인쇄문화 보고–북경 운거사

북경은 고판화 관련 인쇄문화 자료가 많이 모인 지역이다. 운거사, 중국 국가도서관, 자금성 무영전, 수도도서관, 유리창 영보재 등 고판화 · 고인쇄 관련 자료가 풍부하다. 2005년 안동 국학진흥원에서 이루어진 국제학술대회와 2006년 고판화박물관에서 주최한 한 · 중 고판화 국제학술대회를 인연으로 한 · 중학자들과의 교류가 주로 북경에서 긴밀히 이뤄져 왔다.

제1차 해외답사인 이번 행사가 북경지역과 석가장 무강현 지역으로 선정된 것도 이런 연유 이다.

일행은 북경 수도공항에 도착해 점식식사를 마친 뒤에 첫 번째 방문지인 운거사로 향했다.

운거사(云居寺)는 베이징 서남쪽 팡산구(房山区) 경내에 위치하고 있다. 북경시 중심에서 70km 떨어진 바이다이산(또는 石經山 스징산) 서남쪽 비탈에 자리 잡고 있다. 사찰의 전체 면적은 7만여 평방미터이다.

운거사로부터, 석경산 장경동까지는 당나라 요나라 탑군(塔群)들이 어우러진 중국 불교문화의 보고로 알려진 곳이다. 운거사는 불교 경전을 봉안한 곳으로 사찰에는 삼절(三絶)이라고 부르는 석경(石經) · 지경(紙經) · 목판경(木板經)이 소장돼 있다. 문화재가 많은 까닭에 운거사는 1961년 국무원으로부터 전국중요 문화재로 지정됐다. 1992년에는 '세계 최고의 베이징 관광지(北京旅游世界之最)'로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중국 세계기록협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고 보존이 잘된 석각 경전을 보유한 사찰로 등재됐다.

일행이 탄 버스는 운거사를 향해 산골자기를 굽이굽이 누볐다. 가는 길에 다른 사찰의 이정표는 보이는데 운거사 이정표는 보이지 않았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물어도 대답은 제각각이었다. 공항에서 운거사까지 1시간여 면 도착할 것이라던 생각이 2시간을 지나 3시간을 넘어갔다. 일행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원래 답사 마지막날에 운거사 일정이 잡혀있었지만, 첫째날로 바꾼 일정이었다. 만약 답사 마지막 날에 운거사를 찾았다면 공항 가는 시간으로 인해 일정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을 것을 생각하니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갑자기 차내에서 기쁜 함성이 들렸다. 운거사 이정표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천년고찰 속에 불은(佛恩)이 가득한 경전의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든 수행의 과정이 기다리듯 일행은 마음 졸이는 시험과정을 통과하고 운거사에 도착했다.

운거사는 평일이라 그런지 관람객이나 참배객 없이 우리 답사 일행이 전부였다. 운거사 산문 현판도 다른 중국 사찰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불교협회 초대회장을 지낸 故 조박초 박사의 글씨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 현대불교의 중흥조로서의 조박초 박사의 원력이 새삼 느껴지면서, 근대 중국에 꺼져가던 불교의 불씨를 다시 지폈던 거사불교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일행은 운거사 삼절 가운데 먼저 석경이 보관된 석경지궁으로 향했다. 운거사 홈페이지를 통해 삼절에 대한 사전 정보를 취합했던 기억을 더듬으면서, 석경지궁에 가는 길이 낯설지 않음을 실감했다.

홈페이지에는 경내 지도 위에 구름을 타고 있는 수행자를 따라 가면 경내의 삼절과 주요 유물들을 순례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들이 사전에 운거사 유물에 대한 이해와 위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트를 보면서 한국보다 문화유적을 통한 관광개발이 훨씬 늦은 중국이 우리 보다 한발 앞서, 관람객인 이용자 중심으로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새삼스럽다.

석각불교대장경 방산석경

방산석경(房山石經)이 보관돼 있는 석경지궁에서 일행을 반갑게 맞이한 이는 방산석경을 발원했던 정완 스님이시다. 석경지궁 입구에는 정완 스님의 형상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불법이 세상에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랐던 높은 뜻을 기리고 있다. 방산석경은 중국에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석각불교대장경'이다.

이 석경은 605년에 조각하기 시작했다. 시작한 사람은 수대 말기의 고승 정완이다. 북주 무제의 법난(法難, 국왕이나 정치권력의 불교박해나 탄압)으로 절망한 정완은 정법(正法)을 후손들에게 꼭 전해야만 한다는 일념으로 석경을 새기기로 마음먹고, 수나라 대업 원년(605)에 석경을 만들기 적당한 청석이 풍부하고, 석굴을 파기 좋은 방산 석경산 밑에 운거사를 건립하고, 석경 새기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각경 사업은 수 당 요 금 원 명의 6대를 거쳐 1039년 동안 지속됐다.

현재 발견된 완벽한 크고 작은 경판은 1만4278개로 불경 1122부 3572권, 새겨진 글자의 숫자는 3500만여 자에 이른다. 방산석경은 두 곳에 나누어 보존돼 있다. 4196개는 석경산의 9개 장경동에, 1만82개는 석경지궁(石經地宮)에 보관돼 있다. 석경을 새겨 불법을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정완 스님의 원력은 한족 거란족 여진족 만주족 몽골족 티베트인 고려인 등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석경 작업에 직접 동참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면서 아시아불자들의 원력으로 승화됐다. 원대에 이르러 작업이 단절될 위기에 놓이자 고려 천태종 혜월(慧月) 스님에 의해 계승됐다. 방산석경 결집은 민족 · 국경을 초월해 이룩된 아시아의 문화유산이다. 방산석경에는 전화로 불타버린 거란대장경 내용을 요 · 금대에 새겨진 석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등 불교 정치 역사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각 방면에서도 풍부한 역사재료를 간직하고 있다. 또, 서예 연구에도 중요한 예술가치를 지니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의 보고로 일컬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운거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1950년대 말에는 3년간의 시간을 이용해 석경을 발굴 · 정리를 했다. 또, 전문가를 조직해 방산석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방산석경영인본〉과 〈방산석경제기회편〉 등 저작물을 출간했다. 일부의 석경은 훼손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19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에 다시 매장했다. 현재 석경산의 석굴들은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석굴안의 석경을 볼 수 없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운거사 삼절 중에 또 다른 하나인 지경이 전시되고 있는 설혈진경관(舌血眞經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글=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
사진=황진 · 박도화(고판화박물관)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20%할인)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동국대 불교대학 세계불교학 연구 중심 되길 발원

동국대 불교대학장 · 불교대학원장 계환 스님

서울 한복판인 중구 남산 자락에는 종립대학인 동국대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동국대에서 불교대학은 수많은 불교학자들을 배출한 요람으로 한국불교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원장 계환 스님은 교수로 수십 년간 활동하면서 후배 학인스님들과 재가 학생들을 교육시켰다. 3월 19일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소장이 후학양성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계환 스님을 만나 대담을 진행했다.

Q: 여러 가지 소임을 맡아보시느라 너무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님께서는 대학부터 박사학위까지 오랫동안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비구니 스님들 가운데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것이 흔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본으로 가시게 된 배경은 무엇이신지요?

A: 처음부터 일본에 갈 생각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 재학 중, 일본에 가기로 한 사형이 가지 못하게 될 사정이 생겨 대신 제가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는 외국에 나가는 절차가 아주 까다로운 시대였고, 일본 경도에서 유학하는 일반학생들은 있었지만 비구니스님은 그때 저 혼자였기 때문에 더욱 긴장하게 됐습니다. 일본학생들에게만은 절대 지고 싶지 않아 더 열심히 했었습니다.

Q: 현재 스님께서는 종립대학인 동국대 불교대학 학장과 불교대학원 원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비구니스님께서 이런 소임을 맡으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스님의 뛰어난 역량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구니 스님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지요? 현재 동국대에 비구니 스님으로서 교수직을 맡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A: 앞서 혜원 스님이 동국대 불교대학 학장과 불교대학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개인 역량이 아닌 비구니스님들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 본교에만 3명의 비구니 교수스님, 그리고 몇 명의 겸임교수와 강사스님 등 20여 명이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잠재된 비구니스님들의 역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스님께서는 불교대학장이자 불교대학원 원장 소임을 3년째 맡고 계신데요. 운영에 어떤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올해 불교대학 발전계획은 어떠신지요?

A: 학장은 대학의 CEO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에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대학에 보탬이 될 수 있고, 학생만족을 위해 무엇을 더 보완하고 수정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상대에게 부담스러운 부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장학금이나 발전기금 모금을 하는데 찾아다니며 사정얘기를 하고 CEO과정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다소 힘든 일입니다.

발전계획으로는 올해 동아시아 불교대학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국왕립대학, 대만남화대학, 스리랑카 국립대학, 몽골 국립대학, 인도 델리대학, 일본 대정대학을 비롯해 여러 불교대학과 중국의 북경대학 등 여러 대학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해 동아시아 불교대학연합 총장회의를 비롯해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교대학 발전을 위해 첫째는 건학이념 구현 및 국제화수준 제고를 통한 불교관련 복수학위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동아시아 불교관련 학술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활성화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동아시아 불교대학연합이 그 일환입니다.

셋째는 동국대 불교대학을 세계불교학 교육연구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Q: 동국대는 종립대학으로 스님들께서 가장 많이 공부하시는 대학이고, 스님께서는 출가자 가운데서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그 책임도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비구니 승단의 입장에서 보면 앞날의 비구니지도자를 양성하는 큰 역할이십니다. 처음부터 교육에 뜻을 두셨나요?

A: 사실 제가 동국대에 다닐 때만 해도 비구니스님 교수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재학 당시 불교대학에 스님교수는 운학 · 지관 스님이 계셨고, 선원장(現 정각원장)으로 탄허 스님이 계셨을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재가자 교수들이었습니다. 초발심 때는 신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불법을 공부하고 수행정진 해 오신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배우는 대상이 스님들이라면 당연히 가르치는 사람도 스님교수일 것으로만 생각했던 입장에서는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 교육은 스님교수가 담당해야 한다. 그래 나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자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Q: 스님께서 학장 소임을 맡기 이전부터 불교학과 교수로 강의를 해오셨는데요, 불교학은 종교와 철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가 녹아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았습니까?

A: 불교는 먼 곳에 고원한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상에서 시작되고 일상에서 끝이 납니다.

사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은 자연히 어렵게 얘기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보석도 어둠속에서는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없듯이 불교가 내용상 갖추고 있는 훌륭한 교학체계를 자만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대목이자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출가자로서 또 학자로서, 지도자로서 한 길을 걸어오고 계신데요. 가장 보람이 크셨던 순간은 언제였는지요?

A: 어떤 한 가지 일에 보람을 느끼기보다, 매 순간순간에 충실하자는 소신으로 살아왔다고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도 됩니다.

명나라 황순요의 〈자감록(自鑑錄)〉 가운데 "내가 부끄러움을 지니고 있는데 남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기뻐해서는 안 되고, 내게 부끄러움이 없는데 남들이 나를 헐뜯는다고 해서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말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Q: 요즘은 '알파걸'이라고 해서 대학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성적과 활동상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비구니스님들의 활동도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A: 요즘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한 사회적 추세가 승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불교대학 수석은 비구니스님들이 매년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성적도 비구니스님보다 비구니스님들이 더 좋습니다.

대학원으로 오면 이 비중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이유를 보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학부만 나와도 문호가 다양하게 열려있는 비구스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호가 열려있지 않은 비구니스님들은 학문에 매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Q: 스님은 어떤 발원을 가지고 계신지, 또 불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일러주십시오.

A: 산에 오를 때는 한걸음 진땀 흘리며 힘겹게 오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싶지만 좀처럼 정상에 다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는 다릅니다. 올라갈 때 힘들던 높이가 순식간에 휙휙 내려오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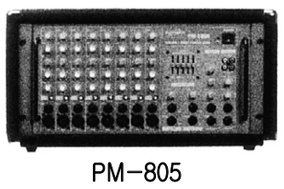
다시 말해 하나하나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선행을 쌓아 공덕을 갖추기는 어렵지만, 한순간의 실수는 평생 이룬 것을 단번에 무너뜨린다는 뜻입니다. 한걸음 뗄 때마다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듯이 우리 불자님들이 하루하루의 정신 수행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건학이념 구현 및 국제화수준 제고, 불교관련 복수학위제 시행할 터
동아시아 불교대학 연합회 추진…학술 네트워크 구축 교류 활성화
"비구니스님들 잠재된 역량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해요"



계환 스님은 … 운문사 비구니불교전문강원 대교과를 졸업했으며, 일본 하나죠노(花園) 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교토 불교대학 대학원 석 •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이자 불교대학장과 불교대학원 원장을 겸하고 있으며, 서울 원교사(圓敎寺)에서 청년법회(화소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옮기거나 집필한 책으로는 〈중국불교사〉 〈화엄사상사〉 〈홍명집〉 〈일본불교사〉 〈고려대장경 연구〉(공저) 〈경전산책〉 〈똑똑똑 불교를 두드려보자〉(공저) 〈중국화엄사상사연구〉 〈백팔고개 넘어 부처되기〉 〈상식으로 만나는 불교〉 〈왕초보 경전박사되다〉 〈대승불교의 세계〉 〈현수법장연구〉 등 다수가 있다.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 o@hyunbul.com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 高音質 무선마이크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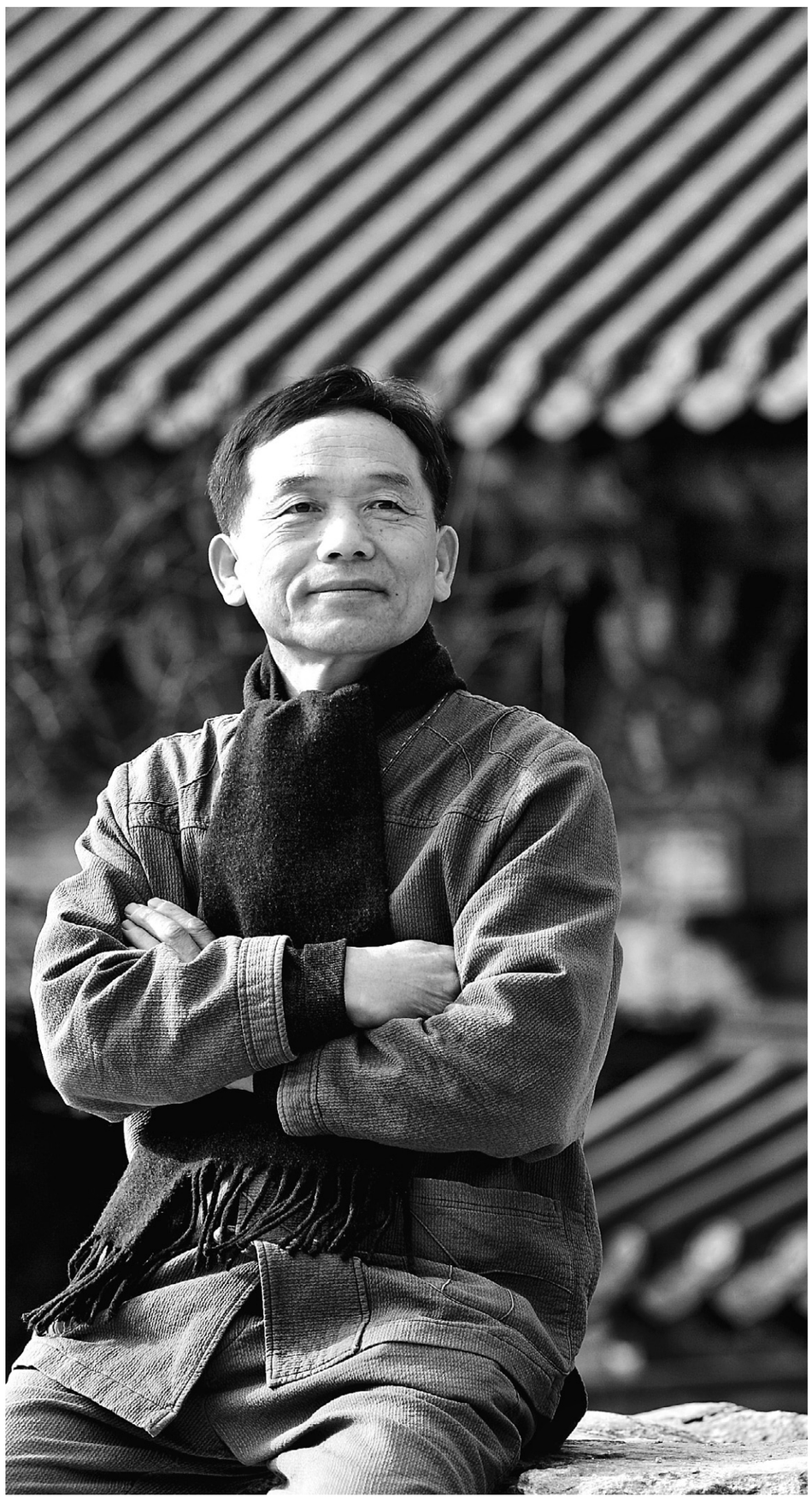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반형)
◇가격 :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지금 이 자리에서 착하게 살라’ 가르침 생생

길상사 살림꾼 덕운 거사



“1976년, 대원각을 절로 만들어달라는 김영한 할머니 말씀에 법정어른스님은 평생 주지를 맡아본 적이 없을뿐더러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살아왔다고 하시며 십 년 동안 사양하셨잖아요. 그러다가 대원각을 ‘맑고 향기롭게 정신운동’ 도량으로 가꾸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둘레 분들 말씀을 받아들이셨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때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란 말씀이 와 닿아서, 바로 경복궁 앞 법련사에 가서 〈무소유〉를 사고 맑고 향기롭게 연꽃 스티커도 받았어요.” 없는 것을 만들어드려야 큰일인데 있는 것을 드렸으니 내세울 일이 아니라고 했던 길상화 김영한 보살 말씀에서 보시布施와 회향廻向, 참 뜻을 헤아렸다는 덕운德雲 정태호(58) 거사는 길상사 개원 이래 이제까지 길상사 일을 내 집 일처럼 살펴온 든든한 살림꾼이다.

덕운 거사 할아버지는 스님이었다. 범허凡虛 스님. 신라 진평왕 10년(588)에 건립된 문경 김룡사에서 대처승으로 살다가 그곳에서 입적을 했다. “집안도 그렇고 절 아래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불자가 되었어요. 오촌 당숙도 대한불교관음종 종회의장 정법

없는 것을 만들어드려야 큰일인데
있는 것 드렸으니 내세울 일이 아니라는
길상화 보살 말씀에 덕운거사는
보시 · 회향의 참 뜻을 헤아리다

륜 스님이신데 인천송도 흥륜사에 계세요. 길상사에 다니기 전에는 그곳이 원찰이었습니다. 그 스님은 저희들에게 ‘행복을 찾지 말고 네가 행복하게 살아라. 무엇을 보더라도 좋게 보라. 누구라도 칭찬하라.’ 고 늘 말씀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이며 청량사 주지인 지현 스님이 덕운 거사 육촌 형님이고, 동생이 지현 스님에게 머리를 깎은 운단 스님이다. “또 사촌 동생이 화곡동 용문사 주지 스님으로 있어요, 관조 스님이라고. 고향 동네에 김룡사는 지금은 직지사 말사가 되었지만 전에는 대 본찰이었어요. 성철 스님이 사신 적이 있고, 서암 스님도 금룡사에 계시다가 봉암사로 가셨어요. 동네 사람들도 물이 들어서 그랬는지 스님이 많이 나왔어요.”

덕운 거사는 길상사에 다니기 전에는 당숙이 주지로 있는 인천 흥륜사를 열심히 다녔다. “맑고 향기롭게, 뜻이 좋았어요. 스님 책을 읽을 때는 늘 설레었죠. 제가 다니던 회사가 건축회사다보니 지방 출장이 잦아 인천까지 가기 쉽지 않았는데, 마침 길상사가 문을 열어서 길상사에 다녔습니다. 개원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맑고 향기롭게 본부장 윤청광 선생님이 월간지에 길상사를 소개하면서 저하고 선일 거사, 범우 거사 그리고 당시 거사림 부회장이었던 향적 거사를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절이 좋고 어른스님이 좋아서 길상사에 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길상사에 뼈를 묻겠다고 다부진 각오를 밝히더군요. 제 믿음이 약한가? 싶어서 불교를 제대로 배워야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길상사불교대학은 생긴 지 이제 이태밖에 안됐잖아요. 그때는 길상사에 불교대학이 없을 때라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마침 창원으로 발령이 나서 창원 봉림사불교대학을 다니다가 서울로 돌아와서는 정토불교대학을 다녔어요. 정토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가장 힘을 많이 쏟더군요. 그때 수행, 닦음과 실천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더욱더 다지게 되었어요.”

덕운 거사는 어른스님 가르침 가운데 가장 가슴 깊이 박힌 가르침이 ‘지금 이 자리!, 여기서 최선을 다 하라’는 말씀과 계를 받을 때 세 살배기 어린애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여든 먹은 늙은이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착하게 사는 일이라며 ‘착하게 살라’던 말씀이 늘 귓전을 때린단다. “맑고 향기롭게

마음, 세상,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나들이 길, 늘 깔끔한 뒷정리
소중한 물건 더 생기면 다른 이에게
법정 스님 책 읽은 친구 그대로 실천

는 ‘마음 · 세상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운동이잖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입구에다가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며 삽시다. 양보하며 삽시다.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아끼고 사랑합시다. 꽃 한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덜 쓰고, 덜 버립시다.’ 하는 실천덕목을 써서 붙여놨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재경 총무였는데, 모임소식을 엽서로 보낼 때 제목을 ‘맑고 향기롭게’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른스님 책에 나오는 향기로운 말씀 한 마디를 먼저 적고 나서 모임소식을 알렸어요. 그 글을 아이들이 보고 좋아한다면서 좋은 글귀를 써줘서 참 좋다고,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른 스님 말씀에 젖어 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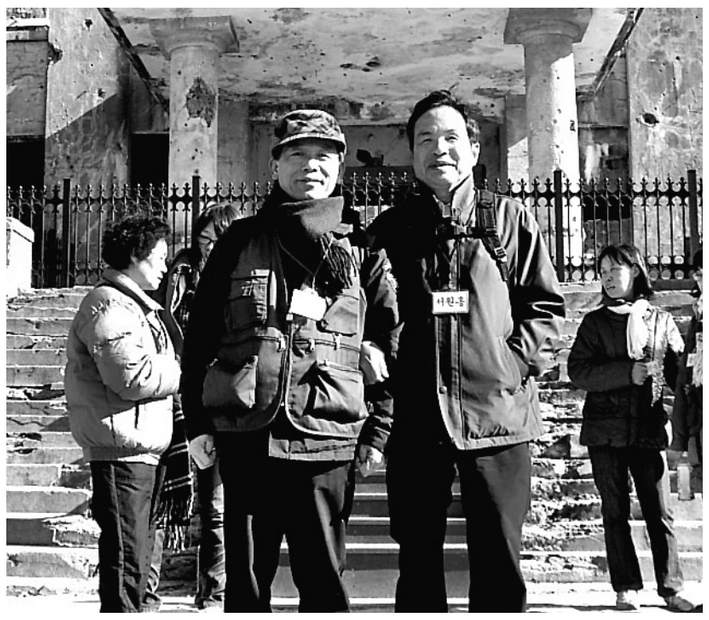
덕운 거사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키우며 미장원을 하면서 홀로 사는 초등학교 여자 동창에게 법정 스님 책 〈산에는 꽃이 피네〉를 선물했다. 한참 만에 다시 만난 동창은 책을 외우다시피한다면서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큰 덕을 보았다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책을 읽고 스님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있다면서 자랑을 했어요. 늘 깔끔하게 뒷정리를 하고 나들이를 나간다든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하나 더 생기면 얼른 다른 이에게 주어, 살뜰함을 잃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지장전을 짓고 나서 지장전에서 천일기도를 했다. 그때 법정 스님은 덕운 거사를 비롯해 기도에 동참한 사람들을 불러 차담을 나눴다. 법정 스님은 ‘오른쪽 가지에 달린 나뭇잎이 왼쪽 가지에 달린 잎을 움직이려면, 간곡한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간절함이 뿌리에 전해져 어머니 뿌리가 왼쪽 잎을 움직인다. 그러니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고 말씀했다.

개원 초기 길상사는 대원각 시절 방갈로였던 스님들 처소에 오래된 초가, 짚을 걷어내고 지붕을 새로 얹고, 도랑도 치고, 구석구석 파묻은 쓰레기를 캐내는 일로 온통 몸살을 앓았다. “제가 시골출신이어서 일머리를 알아 열심히 했죠. 절에 오면 모두들 아예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도랑을 치고, 하수도 청소도 하고 일주문 앞이나 마당도 쓰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했어요. 거사림을 비롯한 모든 신행단체 회원들이 누구 하나 힘들다고 하지 않고 자동으로 척척척 돌아갔죠.” 덕운 거사가 절 살림을 드러내지 않고 잘 하는 줄은 길상사 불자라면 모두가 다 아는 일이다. 바깥에서는 어떨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있듯이, 맑고 향기로운 덕운 거사 살림은 바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1995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소쩍새 마을 사건이 있었다. 몸이 불편한 늙은이,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자라고 알려졌던 승려 일력이 성추행을 일삼고 후원금을 착복한 일이 드러났다. 그 뒤로 후원이 끊겨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후원이 끊겨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냈어요. 가보니까 어른이고 어린이고 모두 장애자더라고요. 어린이들은 저를 ‘오빠, 오빠!’ 하면서 반겨요. 저는 둘레 밭에 농사짓는 일을 거들고 안식구는 애보기나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중증장애인들 수발을 들었어요. 딸들도 같이 가기도 하고요.”

덕운 거사는 길상사 길동무 범우 거사 권유로 ‘부름의 전화 자원활동대’와 인연을 맺고 15년 세월 한결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다. “부름의 전화는 시각장애인과 중증장애인들이 시장을 가거나 병원에 갈 때 차로 모시며 보호하고 수발드는 일을 해요. 1998년에 처음 갔으니까 어이구,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부름의 전화 자원활동대’는 시각장애인을 모시고 다니는 파송활동뿐 아니라, 시작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에는 집에 장애인이 있다는 말을 하기도 꺼려했기 때문에 창피하다며 집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대장님이 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그 분들을 모시고 다







부름의 전화 시각장애인 탐방에서 찍은 사진들. 덕운거사는 나눴다기보다 얻은 것이 너무 많아 부자라고 말한다. 덕운거사는 한달에 두 번 있는 답사활동을 거의 거르지 않는다.

녔지요." 처음으로 사회적응훈련을 할 때 시각장애인들에게 밭에 나가 풀을 뽑게 하며 농사일을 돕게 했다. 그러나 농사짓는 일은 눈을 뜬 멀쩡한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이다. 그런저런 문제로 한 번에 5킬로미터나 10킬로미터를 걷는 문화탐방으로 바꿔 장애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었다. 애기봉통일전망대,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 고성통일전망대도 탐방하고, '문학 향기를 찾아서'란 주제로 소설가를 찾아다니는 프로그램과 고조선부터 근대까지, 선사시대 유적지나 독립운동 현장을 두루 살피는 '역사탐방'을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손끝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만져서 보고. 귀로 듣고. 산에 가보고 바다에 가보고 싶은데 마음뿐이었던 분들이 세상과 만나 세상을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한 달에 두 번 가는 답사활동은 거의 빠지지 않는 덕운 거사, 파송활동은 봉사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처지라 여의치 않아 한 해에 다섯 번 남짓 동참한단다. 나눴다기보다 장애인들과 체험을 통해 얻은 것이 너무 많아 부자라는 덕운 거사 "부름의 전화 자원활동대는 정부 돈을 받지 않고 일반후원금으로만 운영을 해요. 김정희 대장님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무슨 소리냐? 마땅히 당신 일, 당신 몫을 했을 뿐인데 누구에게 고마워하느냐? 당신은 당신 몫을 했을 뿐이고, 나는 내 몫을 할 따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느 해 가을, 장애인들과 설악산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돌아오는 길 한계령 오르막, 유난히 곱다란 단풍이 눈길을 끌었다. "장애인을 모실 때는 여기가 계단입니다.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옆으로 강물이 흐릅니다. 소나무가 있습니다. 세세히 알려드립니다. 그 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어디를 다녀왔다고 설명할 수 있도록. 구불구불 한계령을 오르는데, 대장님이 둘레 풍경을 설명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이 절경을 보지 못해서 감동할 수 없는 저 분들 처지가 하도 딱하고 안쓰러워서 당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면서 일흔도 넘은 노인네가 엉엉 우세요. 그때 세상 은혜를 너무 많이 입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장애인들 몫까지 누리는 우리가 더욱 잘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오른쪽 가지에 달린 나뭇잎이
왼쪽 가지에 달린 잎 움직이려면
마음이 뿌리에 전해지게 기도하라
간절하면 무슨일이든 이룰 수 있어"

어느 해 여름 태안해수욕장을 갔다. 장애인과 봉사자를 반반씩 섞어 조를 짜서 줄다리기, 소리 나는 공을 가지고 달리기를 비롯한 어울림 한 마당 잔치를 벌였다. "뱀꼬리잡기 게임을 하는데 시각장애인이 제 허리띠를 잡고 뒤를 따라오는데 그만, 허리띠가 풀어졌어요. 옷이 막내려가는 데도 시각장애인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잡고 따라오는 거예요. 팬티가 드러나고 난처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열심히 뛰는 분에게 멈추라고 할 수도 없고, 난감했지만 하는 수 없이 허리띠와 바지춤을 손으로 움켜쥐고 계속 뛰었죠."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둔 덕운 거사는 2006년 5월, 광운대학교 앞에 '쟁반철판볶음밥'이란 밥집을 차렸다. 밥집을 하면서 알아보니 광운대에 학생불자회가 없는 것 같아 학생불자회를 만들게 해야겠다고 원을 세우고 학교 총무과에 알아봤더니 광불회란 모임이 있다고 했다. 불자회가 있다면 작으나마 보탬이 되어야 하겠다고 마음먹은 덕운 거사가 불자회사무실을 여러 번 찾아갔지만, 갈 때마다 문이 잠겨있었다. "전화도 여러 번 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때마침 저희밥집에 광불회 회원이었던 학생이 왔어요.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활동을 좀 했는데 이제는 이름뿐이라고 했어요. 회장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에 볶음밥을 하니까 들러서 볶음밥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그러마고 하더니 안 오더라고요. 몇 차례 전화를 했는데 오지 않아서 대불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전화를 했어요. 이곳 불자회가 활동을 하지 않는데 되살리고 싶으니 나와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보자고 했어요. 세 번이나 오겠다고 약속만 하고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러 그러하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식당을 그만두고 귀향하게 되어 안타까워요.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불자회를 돕겠다고 한 까닭은 학생들 덕분에 돈을 벌었으니 회향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불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늘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왜 불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까? "마산에서 회사에 다닐 때 여름에 큰 웅덩이를 메우려다 보니까 그 안에 조그만 개구리가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냥 흙을 덮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나서더니 장대를 내려가지고 개구리를 끌어올리더라고요. 산목숨인데 그냥 묻으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그 사람이 불자였어요. 그때 세상이 바르고 따뜻해지려면 불자가 많아져야한다고 마음을 다졌어요."

아는 사람과 의정부역 앞을 지나던 덕운 거사 떨어진 담배꽁초를 보고 주웠다. 같이 가던 사람이 "그걸 왜 주워요? 청소부가 따로 있는데" 그랬단다. "먼저 본 사람이 주어야죠. 주우면 바로 깨끗해지잖아요. 운전을 할 때도 차가 왼쪽에서 끼어들려고 하면 왼쪽 깜빡이를, 오른쪽에서 끼어들려고 하면 오른쪽 깜빡이를 켜줘요. 속도를 늦추면서. 밤에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라이트를 잠깐 끄고 속도를 늦춥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제가 가는 층을 먼저 누르지 않아요. 저희 집이 6층인데, 같이 타신 분이 8층을 누르면 8층에서 내려서 걸어내려 와요. 문이 열리고 닫히고 섰다 가는데 전기가 많이 먹히잖아요. 3층쯤 차이나면 그냥 내려서 걷고, 4층이 넘게 차이나면 저희 집 층을 누르지요." 맑고 향기롭게 운동은 모두 잘 살자는 마음씀이다. 작은 일 하나라도 바로 실천하는 삶이 맑고 향기로운 삶이고, 그렇게 이루는 세상이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이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하늘 마음



동국대 명예교수

봄이 오니 마음이 달뜨다. 그러나 금년 봄에는 유심히 나뭇가지를 살피고자 한다. 실은 해마다 다짐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뭐가 그리 쉽지 않다는 말인가. 움트는 가지에서 속도를 재보는 일이다. 나뭇가지가 무슨 트릭을 쓰는 일도 아니련만 인간의 우매한 생각과 눈으로는 콕 집어 낼 수는 없고 자연의 오묘함으로 이해해야 할 듯하다.

저 벌거벗은 나무도 제철을 만난 것이로구나. 어느 양지에 자리한 라일락의 움트는 모습을 살피고 있노라면 나무에게도 산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배주룩하게 나온 새순에 물이 고여 있기에 만져 보았으나 단순한 물이 아니다. 새싹을 틔우는데 진통이 심해 눈물을 흘린 것이다. 눈물이다. 나무는 온 힘을 다하여 봄맞이를 한 것이다. 우리가 나무의 산고를 얼마나 헤아려 본적이 있었는가 반문해 본다. 그저 그렇게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해지고 숲을 이룬다고 무심히 지나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마음이라고 하면 불교에서 만큼 마음을 열거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듯하다. 그 다양한 마음을 열거하자면 장황할 것 같아 함축하고자 한다. 하늘마음이다. 하늘마음은 하늘처럼 맑고 밝고 드넓고 고요한 마음이다. 하늘마음에는 티끌이 앉을 수 없다. 너무 맑기 때문이다. 그 마음에는 성냥불이나 랜턴도 필요하지 않다. 너무 밝아서이다. 그 마음에는 칸막이가 없다. 넓고 넓기 때문이다. 그 마음에는 파도가 일지 않는다. 고요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일이다. 그는 30년 안거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말과 행동은 고요를 잃고 있었다. 주변의 만류에도 몰라라 하고 더욱 너울이 일고 있었다. 본디 그는 심성이 대추방망이는 아닌 듯하다. 안거와 고요한 마음과는 비례하지 않음을 확연히 알 수 있는 자리였다. 그의 셈법에 따르면 붓다는 12안거를 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안거를 마치고 하화중생의 길에 나섰다. 붓다 보다 세 배쯤 닦았으니 그 경지는 가히 수승하여 헤아리기 어려울 것만 같다. 형상 없는 공부를 하면서 왜 안거증에 집착하는지 모를 일이다. 마음의 고요와 시간과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 문제는 비단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모든 수행자가 면밀히 반조해 보아야 하는 큰 짐이기도 하다.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대는 인간이 겪는 불행의 원천이다. 자식에 대한 기대가 제일를 듯하다. 세상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귀염둥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에서는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세상의 자녀들 사이에 놓이면 부족함이 드러나고 우열이 가려지기 마련이다. 열등하다고 느끼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거기서 마음이 상하기 마련이다. 결국에는 불행의 원천이 된다. 기대치를 낮추었더라면 훨씬 편안한 마음을 누렸을 것이련만 말이다. 제자의 경우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일이다. 이웃간에도 앞의 사례와 진배없는 일이다. 그러고 보면 기대 보다 중요한 일이 오늘이 아닐까한다. 오늘을 열심히 살다 보면 기대치는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손 놓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대라는 말 자체가 어색한 낱말이 되고 말 것이다.

손을 펴고 있노라면 생각 생각이 꼬리를 문다. 다섯 손가락은 모양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발견이라고 하니 쑥스럽기까지 하다. 어쨌든 서로 다른 손가락에

밝고 맑고 드넓고 고요한 하늘
온 힘을 다해 봄을 맞는 나무의 산고
길고 짧은 다섯 손가락의 조화
'그 자리'에서 전하는 자연의 소식

서 조화를 배우게 된다.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 보고 빈약하다고 조소를 보내지 않는다. 역으로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에게 비대하다고 손가락질도 하지 않는다. 가운데 손가락 또한 나머지 손가락에 왜 그리 자라다 말았느냐고 으스대지도 않는다. 그러한 다섯 손가락이 조화를 이루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므로 완벽한 손이 되는 것이다. 아마 손은 하늘마음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자연의 순환은 더욱 그렇다. 누구도 무엇도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게 그 자리에 있다. 외형이야 변하지만 속성이야 변할 리 만무하다. 만약 외형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자연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이 세상은 퍽이나 단조롭고 사막과 같을 것이다.

책상에서 빨리 일어나야지. 움트는 속도를 재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재기 위하여 마름자를 살며시 내밀 일도 아니고 미레자를 들고 갈 일도 아니다. 그렇다고 꺽짓손은 더욱 아니다. 다만 얼음이나 옥같이 맑고 깨끗한 마음인 빙심옥호(氷心玉壺)로 만이 길이를 잴 수 있는 일이다. 어김없이 어제 그 자리에는 그 나무의 영혼이 반가이 맞아 줄 터이니.

특허출원 : 30-2011-0042460
유상아트 경판보급



한글반야심경
•크 기 : 직경 27cm
•재 질 : 원목무늬좌대
•보급특가 : 150,000원



목판반야심경
•크 기 : 28.8cm × 14.6cm
•재 질 : 원목무늬, 원목좌대
•보급특가 : 150,000원



신묘장구대다라니(연화바탕)
•크 기 : 직경 27cm
•재 질 : 원목무늬좌대
•보급특가 : 150,000원



한글반야심경
•크 기 : 28.8cm × 14.6cm
•재 질 : 원목무늬, 원목좌대
•보급특가 : 150,000원



般若波羅密多心經
금동반야심경
고려대장경의 반야심경판본입니다.
•크 기 : 28.8cm × 14.6cm
•재 질 : 표면처리 순금 24K
•보급특가 : 300,000원



신묘장구대다라니
•크 기 : 28.8cm × 14.6cm
•재 질 : 원목무늬, 원목좌대
•보급특가 : 250,000원

* 법보시용, 감사패, 공로패 대용으로 가치 충분합니다.(단체주 문환영) * 좌대(받침대)에 24K금박으로 원하시는 글씨를 세겨드립니다.
유상아트 전화 031)314-3542 / 318-3545 HP : 010-4711-3542 홈페이지 www.yoosang.co.kr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세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사원 · 농장 등 불교공동체 세계속에 우뚝

샌프란시스코 젠 센타 개원 50년…8월 9일 기념식
숲 속 '타사자라' 사원, 걸치 농장 프로그램 인기

아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큰 불교 공동체 중에 하나인 샌 프란시스코 젠 센터(San Francisco Zen Center, 이하, 젠 센터)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다고 샌 프란시스코 클로니클(sfgate.com)과 허프포스트(huffingtonpost.com)가 각각 3월 13 ·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0년 전 일본을 떠나 미국에 처음 발을 내딛은 스즈키 로쉬(Suzuki Roshi) 스님이 샌 프란시스코에서 소규모 불교 공동체인 샌 프란시스코 젠 센터를 만든 지 불과 50년 만에, 샌 프란시스코 젠 센터는 십여 개 프로그램에 수백여 명의 서양 불자들이 참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불교 공동체로 우뚝 섰다. 샌 프란시스코 젠 센터의 50주년 기념식은 8월 9일 봉행된다.

오종욱 편집위원

1959년 8월 샌 프란시스코에 가냘픈 체구이지만 결코 미소를 잃지 않았던 한 일본인 스님이 도착했다. 그리고 스님은 자신과 불교에 관심을 보이는 현지인에게 "단지 앉아 있으라(just sitting)"를 가르치며, 벽안의 마음에서 불심을 키우기 시작했다. 3년 후(1962년) 스즈키 로쉬(Suzuki Roshi)로 잘 알려진 순류 스즈키(Shunryu Suzuki; 1971년 열반) 스님과 그의 제자들은 8월 9일 일본인 거주지에 있는 작은 사찰에 모여, 젠 센터를 조직했다.

샌 프란시스코 젠 센터 (San Francisco Zen Center)

50년이 지난 지금 젠 센터는 미국의 유명 건축가 줄리아 모건(Julia Morgan)이 1922년 헤이스 벨리(Hayes Valley)에 설계 · 건축한 역사적인 건물에 자리를 잡고, 샌 프란시스코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젠 센터는 도심 속 센터 외에도 타사자라 사원(Tassajara monastery)과 그린 걸치 농장(Green Gulch Farm)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숲 속 사원과 농장은 명상 수행과 방편 수행을 모두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곳에는 도심을 떠나 집중 수행을 희망하는 불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명상 외에도 농사일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생산된 농산물은 노숙자, 재소자, 마약중독자, 저소득층 병자들에게 직접 건네지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한다.

또한 휴가철이면 '젠 글쓰기(Zen writing)', 요리, '덜 성숙한 도회지의 젠(young urban Zen)', '동성애자 달마(queer Dharma)' 등 도심 불자들에게 친숙한 주제로 집중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불교' 하면 대개 삭발을 하고 법의를 입은 채 산으로 가는 것을 상상한다. 그러나 젠 센터는 그것 보다는 소속 스님과 불자들이 가장 잘 하는 방편으로 대중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로버트 토마스(Robert Thomas · 샌 프란시스코 젠 센터 대표) 스님은 "(마음의) 평화는 균형과 조화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명상)에서 찾을 수 있다"며 "우리가 대중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비와 친절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사자라 사원과 걸치 농장은 카멜 계곡(Carmel Valley)의 마틴 카운티(Martin County)에 있다. 카멜 계곡은 사원과 농장이 들어설 당시만 해도 인적 드문 곳이었다. 그러나 몇 년 후 이 곳에 예술인 마을이 생기고 박물관이 들어서는 가하면 스티브 잡스(Steve Jobs, 애플 창업자)와 제리 브라운(Jerry Brown · 캘리포니아 주지사)과 같은 유명인들의 저택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런 일련의 변화는 젠 센터의 포교 활동에 적잖게 도움을 주었다.

"젠 센터와 그린 걸치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970년대 초"라는 로리 앤더슨(Laurie Anderson · 사운드 아티스트)는 "8년 전부터 걸치 농장의 '희망의 오두막(Hope cotage)'에서 수행과 노동을 해오고 있는데, 몸과 마음에서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 도심 생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것"이라며 "젠 센터는 일상에서도 마음의 근원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하는 닻과 같다"고 말한다.

젠 센터에서 40년 넘게 '마음공부'를 해온 로리 앤더슨은 1978년 인간의 신체 일부가 소리의 전달매체가 되는 작품인 '핸드폰 테이블(Handphone Table)'을 발표해 세계 예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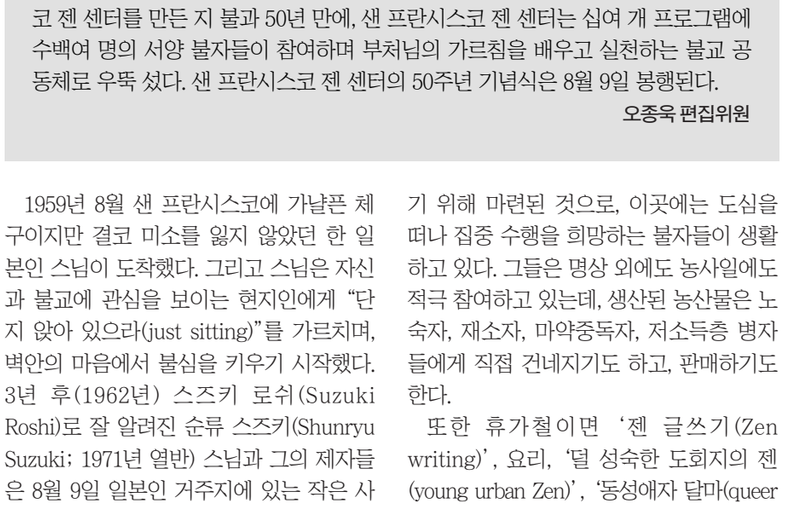
"앉아서 하는 수행은 지혜의 등을 밝히는 데 아주 유용하다"는 피터 코요테(Peter Coyote) 스님은 "그 힘은 센터, 사원, 농장에서만 아니라, 이곳에서 지원하거나 운영하는 '교화를 위한 재소자 명상' '노숙자를 생각하는 주방' '채식을 사랑하는 레스토랑' 등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며 "이 모든 것은 1959년 이곳에 이민 온 수행자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터 코요테 스님은 1972년부터 젠 센터에서 수행을 하다가 1984년 출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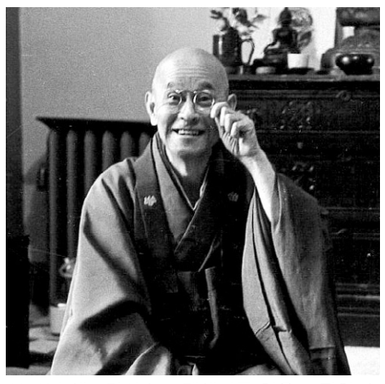
또한 "불교는 의식이나 기법만이 있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피터 코요테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모래알처럼 우주의 다른 것과 나뉘어 있다는 이분법적 생각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우리가 온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다"고 덧붙였다.

일본 스즈키 순류 스님이 조직
센터 외 카멜계곡 숲 속 사원
농장 '희망의 오두막'서 집중수행
생산농산물 저소득층 돕거나 판매

재소자 명상, 노숙자 주방
젠 글쓰기 등 프로그램 다양

사회공헌 확대·웹 사이트 오픈
"자비와 친절을 잊지 맙시다"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줄리아 모건이 1922년 설계한 역사적인 건물에 자리잡은 샌프란시스코 젠 센타


1962년 샌프란시스코 젠센타를 처음 조직한 스즈키 순류 일본 스님


샌프란시스코 젠 센타 법회모습

타사자라 사원(Tassajara monastery)

타사자라 사원은 129만4994m² 규모로 1967년 처음 문을 열었다. 이곳의 생활은 여느 사원과 마찬가지로 수행 · 요리 · 식사 · 청소 등을 함께하는 게 원칙인데, 특징적인 것은 이곳의 첫 수행이 '제빵(빵을 만드는 일)'이라는 점이다. 또한 사원에서는 매년 9월부터 (다음해)4월까지, 5월부터 8월까지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진행되고 있다. 이 기간에는 누구나 사원을 방문해 머물며 수행에 동참할 수 있다.

"타사자라 사원에서 출가해 지난 5년간 수행해 왔다"는 노만 피셔(Norman Fischer) 스님은 "스즈키 로쉬 선사에게 불교를 배우고자 젊은 시절 젠 센터를 찾았고, 2000년부터 그린 걸치 농장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구글에 근무하며 스즈키 로시 선사의 가르침인 '젠(Zen)에서 논-젠(non-Zen)'을 실천하고 있는 노만 피셔 스님은 "젠 센터의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방편으로 사회에 공헌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며 "다른 종교의 경우, 교단에 헌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과는 사뭇 다르지 않냐"고 반문했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였던 수잔 오코넬(Susan O'Connell · 젠 센터 부대표) 스님이 이곳을 찾은 것은 1995년 12월 31일이다. 번잡한 할리우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궁색한' 바람에서다.

"타사자라 사원에 두 달 정도 머물 계획이었는데 …"라며 밝은 미소를 보인 수잔 오코넬 스님은 "1999년 이곳에서 출가해 현재 젠 센터 부대표로 봉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수잔 오코넬 스님에 따라면, 사원에는 매일 오전 5시와 오후 5시 마다 2시간씩 명상을 하고 있는 150명 남짓한 수련생들이 있다. 이들은 19세부터 90세까지 연령층이 다양한데, 명상 이외의 시간에는 타사자라 사원을 청소하고, 그린 걸치 농장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다.

"수련생들은 서로의 일을 돌아가면서 맡고 있어요. 이는 자신이 하는 일(수행과 노동)에 어떤 상도 갖게 하지 않는 방편이지요"라고 말하는 수잔 오코넬 스님은 "이는 초심자의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자는 젠 센터의 철학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 걸치 농장(Green Gulch Farm)

1971년 문을 연 그린 걸치 농장은 담녹색의 땅 44만5천154m²에 경작지를 조성한 수행 및 생활 공동체이다. 농장에는 수행공간을 비롯해 서점과 찻집 등이 들어선 뮤이어 숲 센터(Muir Woods center)가 있고, 바람 잔잔한 오솔길로 연결된 아담하고 평화로운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정원마다 '점으로 형상화된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농장에서 생활하는 수행자들과 불자들은 농사를 필수적으로 배우게 되는 데,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거래소나 채식 레스토랑 등에 보내져, 젠 센터 기금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이곳은 기적의 장소"라고 말하는 에밀라 헬레(Emila Heller)는 이곳에서 40년간 거주하고 있다. "이곳에서 농장 일을 하며, 견습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또 그녀는 농장의 수석 제빵사인 믹 숍코(Mick Sopko)를 소개했다. 8년 전부터 그린 걸치 농장에 거주하며, 매주 400여 개 '덩어리 빵'을 굽고 있다는 그는 "이곳에는 스님도 있고, 스님이 되고자 수련하는 불자도 있고, 짧은 기간이지만 일상을 떠나 불심을 키우는 불자도 있다"며 "모두가 서로에게 배우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선원들이며, 농장은 마치 모선과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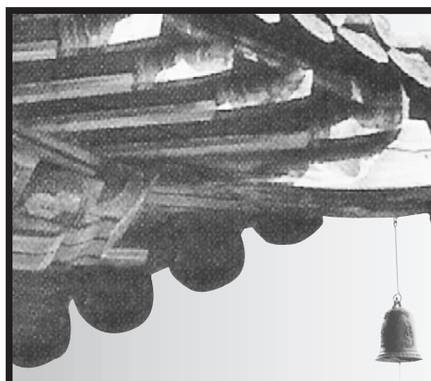
젠 센터의 미래 '예산과 기금'

젠 센터는 매년 500만 달러(56억3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예산의 85%는 센터, 사원, 농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5%는 보시로 구성된다. 로버트 토마스 스님과 수잔 오코넬 스님은 "젠 센터는 예산 외에도 현재 1700만 달러(약 191억5900만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400만 달러(약 157억7800만원)을 조성했다"고 귀띔했다.

"'50주년'의 의미는 젠 센터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자체"라는 수잔 오코넬 스님은 "5년 내 해변 지역에 '노인 수행 및 생활 공동체(Zen senior living community)'를 만들 것"이라며 "젠 센터는 향후 '수행 호스피스(Zen hospice)' 역할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젠 센터는 이미 1980년대 초 '명상을 하는 돌봄(contemplative care) 프로그램'을 시작해, AIDS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해 젠 센터의 사회공헌 역할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젠 센터는 오는 8월 중 '네 번째 수행처(fourth practice site)'로서 새로운 웹 사이트를 오픈하고, 부처님 가르침과 젠 센터의 수행 프로그램을 담은 비디오 오디오 파일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오디오 파일에는 젠 센터를 세운 로시 스님의 저술 〈Zen Mind, Beginner's Mind〉 등도 게재된다.



빙의(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재 전문도량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재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A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

이명을 다스리고 뇌를 다스리는 선조들의 지혜

100% 수작업으로 만든 안전한 제품, 10년 동안의 연구와 논문으로 특허

저는 예로부터 봄철에 물이 오른 버드나무 가지를 조심스럽게 벗겨 내어 말려 귀에 꽂고 불을 붙여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이봉입니다. 어디에 좋은지 왜 그렇게 했는지 오래도록 알 수 없었지만 꼭 필요한 분들끼리 그 방법을 알고 전해내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100% 수작업 안전필터로 귀를 보호

닥나무 전통 최고급 한지를 십 여 가지가 되는 자생초를 우려낸 물에 담갔다가 다시 말리기를 반복해서 그 효과와 기운이 한지에 스며들도록 했어요. 그런 다음 꾸지뽕 잎사귀를 빻아 쑥뜸처럼 촘촘하게 만든 필터로 중간부분을 막아 이명에 좋다는 꾸지뽕의 효과는 귀로 스며들고 귀속의 안전도 지켜 일석이조의 효과이지요. 귀로 스며든 저의 기운은 아주 오랫동안 한 번도 창문을 열어주지 않은 축축하고 습한 머리와 귀 전체에 자생초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줍니다.

스트레스, 무거운 머리,쉽게 화가날 때

컴퓨터나 핸드폰을 장시간 이용하는 현대인들은 귀가 먹먹하고 불안, 긴장감도 큽니다. 이봉을 사용해 보신 많은 분들은 머리가 가벼워지는 이 경험을 놀라워하십니다.
저를 한 번 경험해보신 분들은 오랫동안 저를 잊지못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귀와 눈이 환해지고,마음이 편안해져서 몇 시간 동안 잠을 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중력 부족한 학생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들은 아래 논문을 간단히 소개한 내용을 꼭 참고하셔요. 꼴지 뇌파가 일등 뇌파로 바뀐답니다. 아이들에게도 너무 좋구요, 물론 직장인들 너무너무 힘드시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다고 저를 많이많이 좋아라 해주십니다. 잠자리가 뒤척여지고 밤이 무서운 분들도 저를 꼭 만나보셔요

해외의 제품 함부로 사용 말아야

전세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귀와 머리를 맑게 하는 제품에 대한 흔적은 대한민국과 인디언 뿐이라고 합니다. 인디언의 벽화에서 발견된 그림을 독일사람들 이 힌트를 얻어 의약품으로 승인 내어 쓰고 있다는 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아주 조악하고 위험하게 만들어진 한 개에 100원하는 비슷한 제품을 관광 다녀온 분들이라면 보셨을 거에요. 절대 조심하셔야 해요. 해외에서 쓰는 건 위험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이봉이 있어요. 우리 것을 아끼고 알리고 쓰셔야지요.

귀가 멍하고 귀울림 있을 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오래 전부터 청주에 있는 어느 사찰에서 주지스님이 신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이봉을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신자가 아닌 낯선 할아버지, 할머니 몇분이 찾아오셔서 혹시 이곳이 아무아무게 할아버지가 다니는 절이 맞냐고 하시더랍니다. 스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본인들도 귀에다가 무엇을 꽂고 태워준 그걸 좀 해봐야겠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쭸더니, 며칠 전 이 절에 다니는 아무게아무게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할멈이 궁시렁 궁시렁 잔소리를 해대는데 노망이 들었는지 하루종일 중얼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평소 다니시던 절에서 주지스님이 귀에 뭔가를 태워 주셨다는데 바로 그것이였구나, 원래 이 할머니는 잔소리 많기로 동네에 유명한 분이신데 귀가 어두운 할아버지는 그걸 모르셨다가 바로 이봉을 몇 번 받으시고 할머니의 잔소리를 듣게 되신거지요, 눈도 환해지고 코도 뚫리는 시원하고 재밌는 이야기지요?

일본,뉴욕의 유명 뷰티숍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

뉴욕에서 매우 잘나가는 뷰티숍에서도 저를 만나실수 있답니다. 해외에서 한류를 타고 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어요. 곧 이봉을 많은 곳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참 ~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중 입니다.
궁금하신 분 들은 모두모두 오십시요. 특별한 시연행사도 합니다. 물론 저를 만나실 수 있는 전국의 한의원도 많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전문 상담원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압현상(SUCTION 효과)

이봉을 태우면서, 미세한 온도의 변화는 귓속 피부온도에 전달, 귀주변의 조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은 일부 높아진 온도로 인해 기화되어 밖으로 배출된다. 이봉을 태울 때 봉 안쪽은 높아진 공기온도로 인해 감압상태가 되어 귓속의 정체된 공기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이때 귓속에 쌓여있던 노폐물은 기화되어 이봉으로 배출된다(suction 효과). 기화된 노폐물은 낮은 온도의 봉내벽과 부딪치면서 다시 고체로 변한다. 기화된 노폐물이 이봉 벽에 부착되거나 이봉 안에 쌓이게 되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노폐물은 귀뜸봉을 하지 않는 한 배출되지 않는다.

눈이 침침하다
귀가 어둡고, 어지럽다.
아이가 폭력적이다.
집중력이 없고 산만하다.
기(氣)가 뻥 뚫립니다.

진정한 이완감, 휴식
화락하고 안온한 기분
좌우뇌의 온전한 밸런스

이봉의 원료의 성분 등이 기화되면서 대류현상에 의해 피부조직으로 스며들어, 효과를 나타내 주는 것이 확인된다. 원료는, 전통적인 제법의 한지와 꾸지뽕, 인동초,쑥, 박하, 구기자, 창포등을 여러차례 적시고 음건하여 예로부터 자생초의 약리작용을 활용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결과적으로 이봉을 통하여 귀 주변과 나아가 귀를 통해 뇌와 근접한 기관의 기혈의 흐름을 왕성하게 하므로 그 결과, 이봉을 뜨기 전과 뜬 후의 뇌파비교를 통해 뇌압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뇌 과학의 신기술과 실용적인 뉴로피드백 원리인 뉴로하모니로 거울 보듯이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바란스가 깨진 뇌압이 균형을 찾으면서 스트레스(직장인, 수험생, 가중한 학습을 하는 초등, 유아)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불안심리, 기분장애 등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뇌 질환 및 귀관련 은 물론 뇌 신경들과의 상호 합목적 적인 소통으로 오관(눈,코,귀,입)의 기능을 바르게 하고, 정신활동의 방해를 초래하는 ADHD 등 학습 장애, 정서장애를 개선할 뿐 아니라 기능을 회복할 수도 있다. 뇌는 신체의 사령탑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봉의 체험은 뛰어난 가정생활요법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음을 씻어주는 귀뜸봉은 곧 뇌를 씻어내는 것임을 뇌파의 변화에 의해 기분 변화, 상태변화, 눈, 코, 귀, 목, 뇌 등의 변화를 가져옴을 알게 한다. 이봉으로 현대인들의 심각한 뇌와 귀건강을 안전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 정지혜원장,김재수박사의 논문 중

"만명이 넘는 임상과 체험자들의 관심속에 여러분들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귀의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 체험 후 다양한 변화들 중 머리가 맑아지는 원인을 찾았고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이봉 체험 후 평온하고 안정한 뇌파로 바뀌는 놀라운 사례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봉을 통하여 귀 주변 나아가 귀를 통해 뇌와 근접한 기관의 기혈 흐름 등을 왕성하게 하여 귀의 건강 뿐만 아니라 뇌압의 균형을 찾고 숙면을 취한 듯 머리를 맑게 하고 차분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뇌신경과 상호 합목적적인 소통을 갖는 오관(눈,코,귀,입)의 기능을 바르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개발특허 : 김 지 문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수험생 및 직장인의 스트레스 해소 불안과 불면증, 시험증후군, 수면부족, 강박관념,우울할 때, 눈이 침침하거나 정신집중이 필요하신 분. ADHD중후군 면역 기능강화,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 출장이 잦은 분, 휴대폰과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는 분 등등..편안한 휴식과 함께 누워서 이봉을 귀에 대고 불을 붙이게 되면 귀를 통해 우리땅 가까운 곳에서 자란 건강한 자생초의 활기와 따뜻한 약제로 가득 채워져 가벼운 압력과 굴뚝효과로 머리속의 압박감이나 통증을 없애주며 시원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귀가 밝아지고 막혔던 코가 뚫리며 숨쉬기가 시원해지고 후각이 살아나 냄새를 잘 맡게 되는 것입니다.

〈YTN방영 캡쳐〉



10여가지 원료를 다려낸 농축액에 적신 한지



2중 안전 장치로 귀를 보호



음건하여 봉으로 만듬

[이(耳)봉이 뇌파에 미치는 영향과 치료효과 사례]

성별/나이/성명	증상	횟수
남 / 69 / 운 0 0	고혈압, 당뇨, 편두통, 눈이 침침, 귀가 먹먹하다	11회
변화 / 느낌	머리속이 개운하고, 두통해소, 시력회복, 날아갈 듯한 기분 피부가 윤택해 보이고, 화색으로 젊어 보임	



이봉 사용전의 뇌파 / 이봉 1회 사용후의 뇌파

이봉을 하기 전 뇌파 (왼쪽그림) 이봉을 한번하고 나서 뇌파(오른쪽그림)의 진폭이 높아져 다시 이봉을 하고 나니 (2회) 진폭이 현저히 낮아진 뇌파였지만 연길을 오신 관계로 한번 더 해드렸다. 체험 후 느낌과 변화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데
"동보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글씨를 쓸 수가 없는데, 글씨가 잘 보인다면서 어, 신기하다. 나 이런 글씨는 안보였는데..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였다. 날아갈 듯 기분이 좋고 몸도 가볍고 상쾌하다. 귀속도 개운하고, 머리 아픈 것도 없어졌다.



특허제 10-0839663호
〈특허명 - 이비인후과 질환 치료보조용 원통형 뜸봉 이외의 제조방법〉
비염 / 우울 / 귀먹이 편두통 집중력 미약에 관한 임상을 통해 호전된 결과
[2008년 6월 특허등록]

귀울림! 스트레스! 어질어질! 잘 안들리세요?

이(耳)봉

이젠 그동안 등한시 했던 가장 중요한 머리 · 耳 에 관심을 가지세요

1. 귀가 시원하고 잘 들린다.
2. 눈이 시원하다. 시야가 안개 걷힌 것 같다. 글씨가 잘 보인다.
3. 코가 뻥 뚫린다. 냄새를 맡게 되었다.
4.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다.
5. 기분이 좋다. 상쾌하다.
6. 몸이 가벼워 붕 떠 있는 느낌이다.
7. 피곤이 풀리고 개운하다.
8. 잠을 자고 일어난 느낌이다.
9. 묵직하게 무거웠던 머리가 가볍다.
10 시원하고 맑은 느낌이다.

〈아이들〉
꼴찌 뇌파를 일등 뇌파로!!
- 산만한 아이
- 집중력 부족

〈성인〉
-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진다
- 사소한 일에도 격분한다
-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진다

유사품이 많습니다. 주의 하십시요.
국내특허와 연구 임상 제품은 이(耳)봉 뿐입니다.
www.ebong.co.kr

사용방법 (준비 : 이봉, 가위, 초, 물이 담긴 컵, 귀와 얼굴을 가릴수 있는 수건, 편안한 장소)



• 1 단계: 이 봉 점 화
– 이봉의 위쪽(지름이 더 넓은 쪽)에 불을 붙인다.

• 2단계: 이 봉 삽 입
– 귀가 천정을 향하도록 옆으로 눕고 이봉을 귀에 살짝 꽂듯이 밀착 켜 손으로 잡아 고정. 수건 등으로 얼굴과 귀주변을 덮어 준다.

• 3 단계: 이봉이 타는 동안 이봉의 재를 가위나 나무젓가락으로 떼어내어 물컵에 담는다.

• 4단계: 이 봉 소 화
– 20~25CM 정도(정지선보다 2~3cm 전 지점)를 태운 후 물 컵에 담가 소화시킨다.

Before → After

1회 무료체험분 증정~

20% 할인

주문전화 1544-0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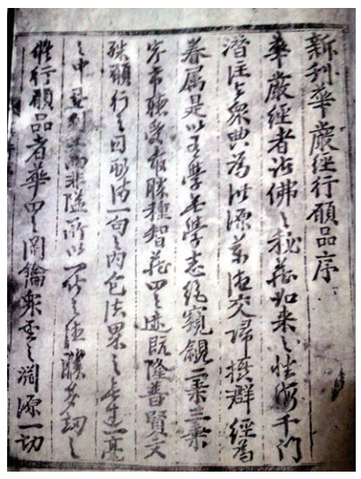
〈대리점 모집 30인 이상 시연행사 가능〉 동부화재–배상책임보험 1억원가입 수산동천영농조합 입금계좌:[농협] 1544-2395-29(예금주:이은아)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극락정토 이르길 바라는 마음

신간화엄경행원품서(新刊華嚴經行願品序)

어느 날 우연히 경매자료를 보다가 1736년 건륭(乾隆) 원년(元年) 병진(丙辰) 2월 경상도 대구 팔공산 동화사 개간(開刊)이라는 간기(刊記)가 적힌 고서 불경 한권이 경매에 나온 것을 보았다. 조선 후기에 동화사를 대표하는 고승 중 한 분인 기성당 쾌선(箕城堂 快善; 1693~1764)이 쓰신 서문(序文)이 붙은 〈화엄경〉 권 40본의 입불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入不可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었다.


기성당 쾌선 스님의 화엄경 보현행원품서

1631년 숭정(崇禎) 4년 신미(辛未)년 여름에, 폐사됐다가 최근 다시 중창한 청도(淸道) 수암사(水岩寺)에서 개간한 〈불설아미타경〉의 도판(圖板)과 원문(原文) 사이에 '화엄경행원품'을 끼워 넣은 것이라 무척 특이한 경전이라고 생각했다.

〈화엄경〉 〈아미타경〉 합본 쾌선 스님의 정토사상이 담겨

책을 구입한 후에 살펴보니, 도판의 많은 부분이 삭은 데다, 박락(剝落)이 워낙 심해서 도판은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 수리를 맡겨, 한 장 한 장 전부 배접을 하고, 표지를 매고, 표갑을 만들었다. 수리를 마치니 비록 상한 부분이 많을 지언정 훌륭한 모습으로 경전의 위엄을 되찾았다.

특이한 것은 〈화엄경〉 간기를 보니, 조선 후기 영남에서 가장 유명한 불화승(佛畵僧)인 금어(金魚) 의균(義均) 스님과 다른 불화승인 도일(道日)스님 같은 분들이 시주질(施主秩) 첫 부분에 이름을 올리고, 쾌선 스님이 교정(敎正)을 봤다고 쓰여 있는 점이다.

의균 스님은 보물 제1610호로 지정된 '대구 동화사 아미타회상탱화(阿彌陀會上幀畵)'를 그리고, 역시 보물로 지정된 '사명당대장' 탱화를 그린 분으로 추정된다. 스님과 스님의 제자들이 당시 영남의 중요사찰들의 중요한 탱화들을 그렸는데, 이 간기가 의균 스님이 경전발간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남은 유일한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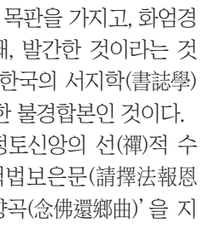
그러다가 동화사 성보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불서(佛書) 전적류(典籍類)를 살펴보다가 똑같은 아미타경 화엄경 합본(合本) 판본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이 합본경은 누군가 후에 서로 다른 두 권을 합본한 것이 아니라, 기성당 쾌선 스님이 아미타경의 목판을 가지고, 화엄경 판본과 함께 인쇄, 발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서지학(書誌學) 사상(史上) 유일한 불경합본인 것이다.

쾌선 스님은 정토신앙의 선(禪)적 수용을 설한 '청택법보은문(請擇法報恩文)'과 '염불환향곡(念佛還鄕曲)'을 지으시고, 화엄학(華嚴學)을 공부하신 분이다.

스님은 왜 서로 다른 두 권을 합본해서 간행하셨을까?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보현행원을 닦는 이들은 마침내 해탈경계에 들어 깨달음을 얻고, 임종(臨終)시에는 아미타부처님의 마중을 받아 극락정토(極樂淨土)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무은(無隱) 대사는 "〈화엄경〉은 넓게 설한 〈아미타경〉이며, 〈아미타경〉은 요약한 〈화엄경〉이다"라고 말했다. 정토학과 화엄학은 같은 학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화엄경〉의 정수(精髓)인 보현행원품과 〈아미타경〉을 함께 합본한 것이다.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수행해서 진향(眞鄕, 극락의 다른 이름)에서 만나 고향친구가 되기를 빈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제운 스님 시집발간 & 달마도 선묵전

4월 6일부터, 수행 40주년 기념…50여 점 전시



독특한 형식의 달마도를 그리는 양평 용문사 제운 스님(사진)이 시집 〈당신은 나에게 무엇입니까〉를 출간했다. 스님은 4월 6~15일 용문사 인근 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 시집에 소개된 달마도 그림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마련한다. 특별전에는 달마도를 비롯한 수려한 풍광과 다완을 표현한 수묵채색화 등 50여 점이 전시된다.

시집은 67편의 시를 4부로 나누어 구성됐다. 1부 '시절'이 지난 과거를 회상한다면 2부 '그리움'은 현재의 심정을 들어내는 것이다. 3부 '향하여'는 글자대로 미래를 향한다. 4부 '공문'은 선(禪)을 나타내는 것으로 독자들에게 선의 오묘함에 빠져들게 한다.

스님은 가까이 하면서도 멀리만 느껴지는 연민의 대상을 시로 노래한다.

"오늘도 늘 대하는 당신이지만/ 나에게 있어 당신은 늘 기다림입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나를 감싸고 돌때면 멀어져만 갈 것을 나는 애태운답니다.// 함께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함의 아쉬움은/ 영원에 하나가 되어 머물지 못함에서// 나는 오늘도 가파른 외길 허리를/ 감사고듯 돌고 돌았습니다.//…"

제운 스님은 "인간은 과거를 갖고 현재를 산다. 현재를 사는 것은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미래란 아직 오지 않았기에 기다림이 되고 꿈꾸는 행복인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제운 스님은 〈그대 마음을 가져오라(2009)〉 〈산사의 주련(2009)〉 〈내 마음의 이야기(2007)〉등 그동안 10권이 넘는 저서를 출간하고 개인 선화전시를 개최한 시인이자 문인화가다.

"나는 어느 때는 글을 쓰고 어느 때는 그림을 그린다"고 말하는 제운 스님은 유유자적하게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상이자 수행이다.

19세에 출가한 제운 스님은 40년 동안 수행하고 30여 년간 선묵화를 그렸다. 고승 경산(京山) 스님을 스승으로 품을 받아 정진하던 중 우연히 석도륜이라는 미술평론가이자 동양서화학의 거목인 문인화가를 만나 문체를 익혔다. 1990년 예술대제전 초서 부문에 당선돼 문인화가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 스님은 서울 경인 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제운 스님은 "화가는 인생을 화폭에 담고 시인은 인생을 노래한다"고 늘 말한다. 이번 시집에서 스님은 평소 깨달음을 찾아 나서는 수행자의 고뇌와 인간 행복추구를 표현한 달마도를 수록했다.


무아 보라 자기 47×56㎝(수묵채색화)

"달마의 저술인 〈혈맥론〉을 보게 됐어요. 혈맥론의 견성사상에 정신을 집중하다 어느 순간 달마의 형상이 마치 물위에 뜬 달처럼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달마를 그리게 된 동기가 됐죠."

제운 스님의 달마 그림은 때론 스님의 자화상이 되기도 한다. 스님은 "달마를 그리다보니 달마는 항상 나의 그림자가 돼 내가 가는 곳 내가 머무는 곳 어디에서도 함께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제운 스님은 "이번 선묵전에서는 '나를 찾아 떠나는 선시여행'에 그렸던 삽화들을 엄선하고 무아(無我)라는 시리즈를 중심으로 틈나는 대로 그린 그림 들을 전시할 계획"이라며 "불자들이 이 한 권의 시집을 대하며 마음의 감성과 행복을 향한 한걸음이 됐으면 하고 전시에도 참여했으면 바란다"고 말했다. (031)773-3797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경포의 이야기를 보다

국립춘천박물관 '관공 제일 절경-경포대' 5월 13일까지 전시


김홍도 그림으로 전하는 〈해동명산도〉 중 '경포대'

국립춘천박물관(관장 김재홍)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5월 13일까지 특별전 '관동 제일 절경-경포대'를 개최한다.

전시 1부에서는 모래톱이 바닷물을 가두어 생성된 아름다운 경포호와 누정의 역사, 그곳을 찾아간 수많은 탐승객들의 여정과 감상을 만날 수 있다. 2부에서는 관동팔경의 승경을 표현한 그림과 경포호를 노래한 아름다운 시문 등 예술작품이 소개된다. 3부에서는 경포호에 깃들어 살던 사임당 모자, 허균과 난설헌, 김시습과 심언광, 선교장 등 호수의 물결과 바람 속에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현재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경포대를 소개하는 4부는 근대의 질곡을 겪은 경포호와 그 누정이 갖는 의미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경포대를 담았다.

특히 이번 전시의 주요 유물은 김홍도 그림으로 전하는 〈해동명산도〉와 김시습 초상(보물제1497호)이다. 〈해동명산도〉는 정조의 어명을 받고 100폭의 그림을 그린 김홍도의 사경여행과 관련 있다. 또한 외가인 경포호숫가에서 쉴 곳을 찾았던 김시습의 초상은 생을 마감했던 부여 무량사 유물로, 꼿꼿한 생육신의 기질이 그림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관동의 활발한 교류와 탐승의 결과물인 말안장, 강원도지도, 옛 선인의 풍류를 말해주는 바둑판 등 선교장 소장 유물도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다.

한편, 국립춘천박물관은 강원도의 주요한 문화 키워드인 관동팔경을 매년 한 곳씩 소개할 예정이다. (033)260-1500

이나은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봉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고급 밤나무 재질
옻칠 마감
음각으로 각인 후 금칠
수작업 개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향토작가 박주남이 그린 불교

3월 29일까지
보령 탑 갤러리서 불화전

구상과 비구상의 작업과 함께 산수·불화 등 다양한 작업을 동시적으로 선보인 박주남 작가가 3월 29일까지 충남 보령 갤러리탑에서 불화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박주남 작가는 '관세음의 노래' '영산회상도' '지장보살도' '월인천강지곡' '법계' '아미타 정토삼부경' 등 20여 점의 불화를 선보인다.

전시에서 박주남 작가는 현실에 대한 집착이나 도피가 아닌 중도적인 초월의 세계를 그의 작품에서 구현하고자했다. 그는 불교와 노장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삶과 예술적 합일을 추구한다.

박주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불화에서 채색과 필선에 의한 수묵 표현방식을 주된 표현기법으로 불화를 그렸다. 화면을 분할해 다양한 이미지들을 조형화 시켰다"고 설명했다.

충남 보령에 거주하는 박주남 작가는 3~4평 남짓한 화실에서 보령의 산과 강을 무대로 화폭을 그리는 향토작가이기도 하다.

박 작가는 덥수룩한 수염에 전통 개량한복을 입고 도인처럼 생활한다. 온화하고 친화감 있는 작가의 성품처럼 그가 추구하는 화폭의 세계도 화려하지 않으면서 깊은 샘처럼 늘 새롭다는 것이 주위의 평이다.

충남 보령에 거주하는 박주남 작가는 3~4평 남짓한 화실에서 보령의 산과 강을 무대로 화폭을 그리는 향토작가이기도 하다.


관세음의노래, 한지 수묵 채색


관세음의노래, 88×55㎝, 한지 수묵 채색


월인천강지곡, 70×55㎝, 한지 수묵 채색

불교·노장사상 추구한 중진작가
'관세음의 노래' '영산회상도' 등
중도적인 초월의 세계 수묵으로

붓 끝에 피어나는 그의 섬세한 그림체는 실제적이면서도 영원히 퇴색되지 않을 것처럼 선명하다.

비록 작은 산 동내에서 칩거하고 있지만 박주남 작가는 8회의 개인전을 비롯해 그룹전을 통해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환경미술대전, 대한민국 현대 여성미술대전 등 전국 미술협회와 공모전 등에서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직을 맡고 그룹전을 통해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선(禪)이나 정토사상에 관심을 둔 박 작가는 불교적 이해와 실천을 바탕으로 불화를 그리며 단청과 이를 변용한 작품도 꾸준히 발표해오고 있다. 박 작가는 전통적으로 궁궐이나 사찰에 채설(彩設)되던 단청도 직접 목조건축물의 부재에 출초, 채색해 제시함으로써 전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박주남 작가는 2008년에 전국의 명승지로 알려진 '달이 솟는 도갑사', '칠갑산 장곡사', '조계산 대각암', '상왕산 개심사', '신원사의 봄' 등 주로 사찰을 작품소재로 그렸다.

특히 '달마산 도솔암' 같은 그림은 필묵의 파격성과 절제미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그가 진실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화상처럼 사실주의에 충실함을 엿볼 수 있어 신선함을 더했다.

박 화백은 "예술세계는 자연의 진실을 캐고자 하는 작업과 같다. 예리한 붓끝으로 가슴을 후비 듯 섬세하고 치밀한 혼신의 정렬이 필요하다"고 "이번 전시도 혼신의 힘을 다해 불화의 다양한 이미지를 조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천경해원 선사의 '도관 스님에게 차운함 [次道寬上人]'

공하지 않은데 공하다

我今非有有 (아금비유유) 나는 지금 있지 않은데 있고
君亦不空空 (군역불공공) 그대 또한 공하지 않은데 공하다.
空有雙非道 (공유쌍비도) 공과 유 모두 도가 아니니
休將二見封 (휴장이견봉) 두 소견으로 봉하지 말라

천경해원(天鏡海源; 1691~1770) 스님은 대둔사에 주로 주석했다. 스님은 글 잘하는 사람으로 서울에까지 소문났고 시에도 조예가 깊어 천재였다는 소리를 들었다. 또한 '선은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고 시는 신해가 귀한 것'이라 하여 선시일여의 시관을 피력했다. 이 시는 공(空)과 유(有)의 이집(二執)을 파해 두 변에 떨어지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다.

용수는 〈중론송(中論頌)〉에서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공한 것이지만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 가명을 세워 공이라 한다고 공의 도리를 설명했다. 1·2구에서 보여주는 공의 실체이기도 하다.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 성립돼 존재한다. 이 유(有)는 인연화합에 의해 생겨났으므로 본래 자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 것이다. 스님은 공과 유는 상즉의 관계로서 공은 유이기 때문에 참된 공으로 성립되며 유는 공에 의해 그 실체를 확보하는 '공유쌍존(空有雙存)'을 우선 읊었다. 그러나 이 이집(二執)을 벗어난 공과 유일지라도 모두 도가 아닌 것이기에 '공과 유를 쌍으로 봉하지 말라'는 '공유쌍견(空有雙遣)'을 제시해 진공묘유(眞空妙有)조차도 집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공하다든가 있다든가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분별이요, 도와 어그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비유유'와 '불공공'이라는 언어의 중첩을 사용해 부정을 통한 절대긍정의 효과를 낳았다. 반면 비(非)·불(不)과 쌍(雙)·이(二)의 동의이어(同意異語)를 같은 자리에 배치함으로써 중첩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해소시키기도 했다. 또한 유유와 공공의 같은 자리 배치는 문자의 뜻을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시켰다. 내용이 비록 선리적이기는 하나 직관이 어우러져 있는 오처(悟處)와 신해(神解)가 일여(一如)한 맛을 보여주었다.



원법 스님(운문사 중강·조계종 교수아사리)


불탑의 형태를 본떠 만든 불교 공양구인 흑칠 주칠 합(黑漆朱漆盒). 캄보디아 크놈펜 크메르족 19세기, 높이 35.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아시아지역 독특한 나무문화 전시

7월 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중국 네팔 대만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불교국가를 비롯한 동남·북아지역의 목조유물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2012년 7월 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증관 가네코 가즈시게실에서 테마전 '아시아 나무에 담긴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테마전시는 일본의 가네코 가즈시게 아시아민족조형문화연구소장이 기증한 아시아 민족조형품 1000여 점 중에서 선별한 목조형품 40여 점을 전시한다.

가네코 가즈시게 선생(1925년 생)은 아시아 여러 민족의 역사와 삶이 담긴 아시아 민족조형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와 수집에 평생을 바쳐온 인물이다.

이번에 열리는 전시에서는 아시아 각 지역의 독특한 나무문화를 통해 아시아인의 삶을 조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시는 두 개의 주제로 구성돼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타이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유물들과 네팔 티베트 중국 타이완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유물들을 소개한다.

제1부 '나무와 함께 한 아시아인'에서는 아시아 여러 민족의 생활용품인 나무그릇과 함께 예술품과 독특한 칠기문화를 보여주는 유물이 전시된다.

제2부 '나무에 담긴 신앙과 종교'에서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아시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연에 기반을 둔 토속 신앙과 함께 힌두교·불교·이슬람교 등이 공존하는 다문화 지역인 아시아지역은 다양한 신들이 여러 모습으로 그들 곁을 지켜왔다. 아시아인들은 나무 자체를 영혼을 가진 정령으로 여겼을 뿐 아니라 나무에 신의 이미지를 담기도 했다. 불상과 경전을 담는 상자, 부처님에게 바치는 공양구 등도 나무로 제작했는데, 나무 바탕 위에 화려한 옻칠과 금칠을 하고 다양한 무늬와 표현기법으로 장식했다. 또한 종교 관련 이야기들을 담은 병풍 및 벽화 등도 제작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아시아의 각 지역에 뿌리내린 독특한 목조형문화와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여러 민족의 조형의식을 체계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2)2077-9000 **이나은 기자**

선스페이스 박경범 추천작가전

'Encounter with God' 3월 29일까지

"나는 산산이 부서진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고 지난 수천년 동안 복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인류애의 복구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신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신이 나를 보는 것인가?"

삼청동 스페이스선+은 3월 추천작가전으로 박경범 작가의 조각전 'Encounter with God'을 3월 29일까지 연다.


'Encounter with God', 브론즈, 2011년

박경범 작가는 개인전에서 신과 인간의 기원 및 우주의 근원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담은 조각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경범 작가는 동국대 예술대학 조소과와 동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1985년 부터 수많은 전시를 통해 자신의 작품세계를 끊임없이 대중 앞에 선보여 왔다.

각 전시 작품은 신들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각가 박경범은 이러한 구성을 통해 인간의 심연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형상화하고자 했다.

박경범 작가는 "문명 발전에 많은 문제들과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폭력 섹스 마약' 등이 이제는 현대인들의 우상과 종교처럼 인식돼 가는 현실을 고발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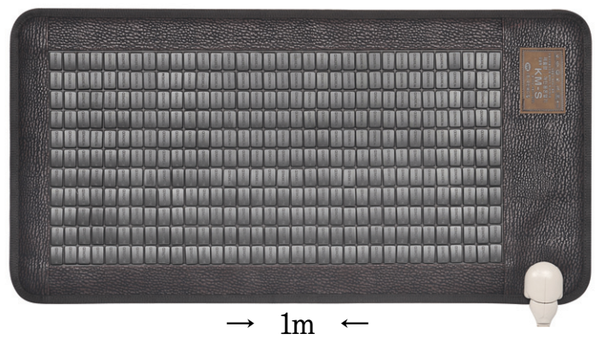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호입니다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저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 두한족열(頭寒足熱) :
머리는 차갑게(귀사문석 베게
발은 뜻하게(귀사문석 온열매트)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나 요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찜질을!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 제 조 원 : (주)국민메티컬 / 경기 양주시 율정동 115번지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문의전화 :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귀사문석(貴蛇紋石) 이란???

귀사문석은 흑녹옥이라고도 하고, 비취라고도 하는 아주 희귀한 보석이다.
귀사문석은 의학적인 면에서 볼때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다.
1. 원적외선 방사율이 아주 높다 : 귀사문석을 약 40℃의 열을 가하였을 때 원적외선이93%이상 방사 된것이 증명되었다.(한국 건자재 시험연구원, 원적외선 응용평가센터에서 테스트한 결과)
2. 귀사문석은 氣를 잘 돌게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존의 옥보다 3배이상의 많은 氣가 방출되는 천연의 강력한 방사체이다.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귀사문석은 그 대체효과가 매우 높다.
3. 귀사문석은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항균효과는 86%에 달한다. 또한 귀사문석은 냄새 제거능력이 있는 신비한 광석이다.

온열매트의 의학적 효과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36.5℃이다. 그런데 1℃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자율신경중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가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선 매일 3천개-1만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력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냉증(冷症) 즉 저체온이 되면,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로 고생도 한다. 또한 당분,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지구를 세바퀴나 돌 수 있는 9만km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적혈구가 엉기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히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적혈구의 엉김현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엉켜 있던 적혈구들이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귀사문석 온열매트와
귀사문석 베게를 함께 드립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VIP형 ~~49,000원~~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유식에 '왜' 라고 묻다

정말 쉽게 풀어 본 유식 이야기



유식불교의 이해
목경찬 지음
불광출판사
1만5000원



20여 년 전 한 청년은 궁금했다. '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일까?

청년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말은 약자에게 왜곡될 수 있는 가르침이며, 사회에서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불교학을 시작했고, 유식학을 전공했다.

〈유식불교의 이해〉는 저자 목경찬 교수가 20여 년 유식학 연구 끝에 얻은 해답을 쉽게, 정말 쉽게 풀이해 놓은 책이다. 책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고(一切唯心造), 오직 식뿐(萬法唯識)임을 밝히는 유식사상을 보통 사람의 상식선에서 설명하고 있다.

유식사상은 유식무경(唯識無境), 즉 오직 식만 있고 대상은 없다는 말로 대표된다.

저자는 "유식무경의 식(識)은 일체유심조의 심(心)과 같은 뜻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즉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는 말이나 '오직 식만 있고 대상은 없다'는 말은 같은 뜻이라는 설명이다.

"유식무경에서 '없다'는 말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은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을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자는 자신이 던진 질문에 답한다.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순간, 세상에 자신의 생각을 덧칠합니다. 내 생각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세상을 본다' 또는 '내가 인식한 대로 세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본 것이 그대로 있다고 여깁니다."

저자는 "평소 일체유심조나, 유식무경 또는 만법유식 등을 때할 때 나름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마음이 세상 자체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음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럿 있다. '모든 것은 식이 만든다'는 말에서 근본이 되는 식이 바로 제8식이다"라고 설명한다.

제8식 가운데 있는 종자가 현행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기세간(器世間)이라 불리는 것이다.

저자는 "기세간은 나 혼자 펼친 세상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세간은 혼자가 아닌 이 땅에 있는 모든 유정이 나타낸 세상이라는 설명이다.

저자는 "비록 모든 유정이 나타낸 세상은 각각 다르지만 모습이 서로 비슷해 기세간이 다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많은 촛불이 모여서 방안을 밝힐 때 밝은 공간이 하나로 드러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더라도 다른 유정들에 의해 기세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비유하면 수많은 촛불이 큰 방안을 밝히고 있다가 촛불 하나가 꺼지더라도 그 방은 여전히 밝은 것과 같이.

보통사람의 상식으로 설명한 유식
영화 '인셉션' '매트릭스'로 설명도

누구나 어려워하는 유식을 너무나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 책은 '인셉션' '매트릭스' 같은 영화를 예로 들기도 한다. 꿈을 다룬 '인센셥'을 통해서도 기세간은 설명된다.

특히 '매트릭스'는 저자가 유식 강의마다 강력 추천하는 영화이다. 저자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꿈을 말한다.

"생각해 보자. 꿈에 안팎의 공간이 실제 있는가? 꿈이 아닌 현실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8식이 펼친 마음의 공간 속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며 산다."

저자는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유식사상을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호기심으로 잠시 다가왔다가 오래지 않아 떠나버립니다. 유식사상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교교리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어려운 이유는 사고의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전환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자는 매사에 의문을 갖고 대하기를 강조한다. 그 의문이 결국 부처님 가르침으로 향해 바르게 나아가는 뗏목이 될 것이라는 조언과 함께.

조동섭 기자

서재탐방 | 이민용 한국불교연구원장

'영원회귀의 신화' 읽고 불교에 매료

1960~1970년 당시 한국불교는 기복 · 의례중심, 부녀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처럼 흔하게 불교기초교리,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 근대적인 학문의 틀이 서구 주도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던 때라 불교의 불모지라 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

이때 실천불교 · 지성불교를 표방하며 재가불교의 구심점 역할을 자임한 한국불교연구원이 설립됐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민용)은 원효 연구의 최고 권위자였던 이기영 박사(1922~1996), 인도불교철학을 대중화시킨 서경수 박사(1925~1986), 한국불교미술사 석학인 장충식 교수(1941~2005), 정병조 現 금강대 총장, 이민용 現 원장이 주축이 돼 1974년 설립했다.

연구원은 '공동연구 · 공동수련 · 공동참여'를 슬로건으로 한국불교 연구자료가 거의 없던 시대에 〈한국의 사찰〉(全20권), 〈삼국유사 색인본〉 등 출판물을 발간해 일반인들의 한국불교 이해를 도왔다. 또 구도회를 결성해 재가불자의 올바른 신행활동을 이끌어 왔다.

한국불교연구원 이민용 원장(71 · 사진)은 고령임에도 정기적으로 불교강의를 하고 언론사에 칼럼을 쓰고 있다. 또 여러 학회에서 '서구불교운동의 전개와 서구적 불교의 탄생'과 '미국의 일본 불교 수용의 굴절' 등을 발표해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불교연구원의 설립 주축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인 이민용 원장의 이력과 활동이 교계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애틀란타와 보스턴에서 30년간 사업을 하던 그가 한국에 온지는 7~8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민용 원장은 "학자로서 정형화된 삶을 살지 못했다. 생각해보니 내 삶은 학자이기 보다 추구자(seeker)였다"며 "때문에 아직 학문현장에서 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에게 서재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불연 이기영 박사의 서재 등이 나의 서재였다"고 천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1941년 서울에서 출생한 이민용 원장은 6 · 25전쟁을 겪고 이산가족이 된 집안에서 자랐다. 성장기 때 집안 분위기 탓인지 일찍부터 현상적 삶보다는 삶의 의의를 생각하며 내적으로 조용히 살고 싶은 갈망이 컸다.

학창 시절 이 원장은 〈좁은 문〉 작가인 앙드레 지드의 젊은 날 자서전인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과 앙드레 말로의 〈왕도로 가는 길〉 〈인간의 조건〉을 탐독하면서 자랐다.

1960년 서울대 문리대에 입학한 이민용 원장은 신입생 시절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에 심취해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보수적 기독교 성향을 지닌 주임교수에 질려 기독교까지 식상해졌다. 이후 이 원장은 벨기에 루뱅대학에서 불교학을 공부한 이기영 교수를 만났다. 그는 "이기영 교수 강의는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회고했다.

이민용 원장은 대학시절 독일어로 자주 읽곤 했던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도 미룬 채 불어를 배워 이기영 교수의 서가 책들을 석권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기영 교수가 불어원서로 강의한 미르치아 엘리아데 〈영원회귀의 신화〉를 읽고 종교학과 불교에 매료됐다.

이민용 원장은 이기영 교수 권유로 동국대에서 인도



미국에서 돌아온 이민용 한국불교연구원장은 칼럼과 강의를 통해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기영 교수 권유 인도사상사 석 · 박사 마쳐
'조선불교통사' 쓴 이능화 평전 쓰고파

사상사 석 · 박사 과정을 마쳤다. 그는 이기영 교수의 스승인 벨기에 불교학자 에띠엔느 라모뜨의 〈인도불교사(1958)〉와 외젠느 뷰르느푸의 〈인도불교학 입문〉을 읽고 '동양학은 프랑스에서 발단을 두고 근대 불교학은 그곳을 기점으로 전개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민용 원장은 "외젠느 뷰르누프의 〈인도불교학 입문〉이 불교학 연구의 선구적 개론서이지만 아직도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학계의 현실이다. 이것이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불교는 동양 현장의 종교인데, 그 학문적 근거는 서양이 됐다"며 "학문상의 화두를 얻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원장은 1970년대 동국대 등에서 불교인도철학을 가르치는 시간강사 생활을 10년간 했다. 이 원장은 아내의 권유로 학문을 모두 접고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편의점 매니저를 시작한 그는 옷장사와 잡화상을 거쳐 애틀란타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매입해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패션 ·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명석한 두뇌와 사업수완이 좋은 탓이었다. 경제적 · 시간적 여유가 생긴 그는 애틀란타의 애모리대학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었다. 서가의 분위기와 책냄새는 그로 하여금 한국에서 공부하던 때를 생각나게 했다. 미국에 정착한지 10여 년이 지났을 때였다.

이 원장은 1986년 하버드대 동아시아언어문명학과에서 불교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때 보스턴에 머물면서 이 원장은 다이아몬드 딜러로 일했다. 그래서 그는 "내 인생은 〈금강경〉으로 전공을 시작해 금강석을 전공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는 농담을 가끔한다.

이민용 원장은 "미주생활 30년 후 나는 사업가로 자리를 잡았고 그 사이 여가시간을 이용해 책을 붙들었다. 불교학이었기에 복학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시 시작된 불교는 내 자신의 참여와 성찰이었다. 불교학은 서구가 규정하는 학문체계가 아니다. 세계불교학회장을 지낸 어떤 양심적인 분은 불교를 결국 '삶의 양식(A Way of Life)'라고 실토한다. 불교학 발생의 계기부터가 잘못된 오리엔탈리즘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어서 "불교는 그런 서구적 틀의 개종이나 기독교적 변신론, 혹은 학문 분류 방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교는 학자의 책상 위에 존재하고 박물관의 진열품으로 전시된 상태에서 벗겨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불교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직을 맡았다.

잡식형 독서가인 이민용 원장은 〈오 자이르〉 〈연금술사〉등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들도 좋아한다. 이 원장은 "코엘료는 개인적 고난을 정신적인 세계로 승화시켜 작품에 담고 있어 좋다"고 말했다.

〈이상문학작품집〉은 매해 사서 본다는 이 원장은 젊은 세대들의 행태를 볼 수 있는 〈달콤한 나의 도시〉 〈아내가 결혼했다〉 등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요새는 아마존 e-북 리더인 킨들로 루 살로메의 〈릴케〉와 찰스 킴볼의 〈종교가 사악해질 때〉 등을 읽고 있다.

이민용 원장은 〈조선불교통사〉를 저술한 불교학자 이능화에 대한 평전을 쓰고 싶다고 밝혔다. 〈조선불교통사〉를 통해 불교를 근대속에서 풀어갔으면 하는 뜻에서다.

글=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4~3/20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2	친절한 간화선	월암	담앤북스
3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5	성철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 1	원택	글씨미디어
6	불교와 과학 진리를 논하다	사이토 나루야 외	운주사
7	마음수업	이광정	휴
8	무문관 참구	장휘옥, 김사업	민족사
9	돈, 섹스, 전쟁 그리고 카르마	데이비드 로이	불광출판사
10	행복을 가져오는 붓다의 말씀	안양규	도피안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월든(Walden) 1CD / 켄 페더슨 / 콘텐츠코리아

대자연의 예찬과 문명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긴 불멸의 고전 〈월든〉을 품은 음악!

법정 스님께서 생전에 애독하시고 〈무소유〉 삶의 원천이 된 소로우의 에세이집 〈월든〉에서 음악적 영감을 받은 자연주의 릴랙싱 피아노 연주음악으로 올해 〈소로우 서거 150주년〉과 〈법정 스님 입적 2주기〉를 맞이하여 발매되는 켄 페더슨의 앨범이다.

〈월든〉으로부터 느낀 음악적 선율들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온갖 스트레스로 찌든 현대인들에게 삶의 정화수가 되어 줄 것이다. 〈월든〉에서 싹튼 소로우의 사상이 법정 스님을 거쳐 여러분들에게로 깊은 인연이 맞닿아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복(至福)의 순간 1CD / 아니 초잉 돌마 / 콘텐츠코리아

찬불가를 노래하는 네팔의 비구니 스님 〈아니 초잉 돌마〉의 베스트 명반!

아니 초잉 돌마(Ani Choying Drolma)는 네팔의 나기 곰파 사원의 스님으로 '자비심이 울려 나오는 천상의 목소리로 관세음보살이 현현한 듯 하다'라는 평가와 함께 네팔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팬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찬불가와 만트라 등을 노래한 총 9곡이 수록되어 있는 이 앨범은 자신의 몸을 사르는 촛불같이 천상의 목소리로 지혜와 자비의 불을 밝히고 우리들을 '더 없는 지복(至福)의 순간(Moments of Bliss)'으로 데려다 준다.

음반 구매문의 불교서적·음반총판 운 주 사 02) 3672-7181 www.unjusa.com

대행 스님 법어집 '러시아어본' 발간

한마음국제문화원, 세계 각국어 불서번역 진력

한마음국제문화원(원장 대행)은 대행 스님의 법어를 정리해 발간한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를 러시아어로 번역해 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불교서적이 러시아어로 번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눈길을 끈다.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 러시아어본은 러시아 출신의 영어교사이자 번역가인 옥사나 빠이줄리나가 번역을 맡았고 국제연등선원의 러시아 출신 일교 · 일조 스님이 감수를 맡아 1년간 작업해 나온 책이다.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 한글본은 한마음선원에서 발간하는 〈한마음요전〉과 법문시리즈 〈허공을 걷는 길〉의 일부를 발췌해 재구성 한 책이다. 〈한마음요전〉은 대행 스님이 1970년 초반부터 1991년까지 20여 년간 법문한 내용의 핵심을 주제별로 간추려 놓은 것으로 순서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주제를 선택해 읽어나가도 가르침의 요체를 맛볼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한마음요전〉과 비슷하나,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전에는 없으나 다른 법문에서 다루어진 주요 주제들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내용으로 수정 · 보완했다.

한마음국제문화원은 "지난해 러시아 전역에 서점을 운영하는 대형출판사인 암리타루쓰(Amrita-Rus)와 계약을 맺고 올해 책을 출간했다"며 "정신계 · 영성관련 서적을 주로 다루는 이 출판사는 러시아 전역과 전 세계 러시아이민자들이 있는 곳에서도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 한국불교와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더 쉽게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원은 2005년 도서전 참가를 계기로 미국의 위즈덤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No River To Cross(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라는 제목으로 2007년 출간했다. 곧이어 2009년에는 스페인의 카일라스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출간했다. 또한 독일의 골드만 아카나-랜덤하우스 출판사는 큰스님 법문 중 들려줬던 예화들을 모아놓은 이야기 책 〈내마음은 금부처〉를 2008년 독일에서 출간했다.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
대행 스님 법어집
옥사나 빠이줄리나 번역
암리 타루스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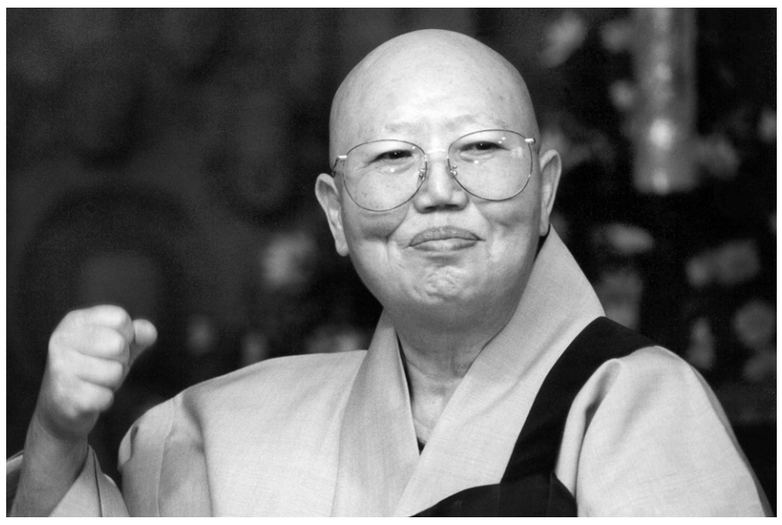
이 밖에 한마음국제문화원은 2011년 중국 최대 출판사 중 하나인 종교문화출판사를 통해 중국어버전으로 출간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의 암리타러스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2012년 2월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를 출간했다.

한마음국제문화원은 세계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도리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문 번역을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됐다.

이곳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행 스님의 법문을 영어책으로 먼저 만들어 출판하고 그 뒤 독일어 스페인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 버전으로 번역하고 있다. 세계를 이끄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알려 인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라고 가르친 대행 스님의 뜻에 따라서이다.

문화원 소속 팀원들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 소수정예다. 이들은 대행 스님의 법문을 각각 1차로 영문번역 한 뒤 팀장인 청고 스님이 2차 번역을 한다. 이후 모두 다 같이 3차 번역을 하고 청고 스님이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화원은 이런 작업을 거쳐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를 비롯해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내 마음은 금부처〉〈생활 속의 참선수행(시리즈)〉 등 10여 개의 영문번역서를 냈다.



한국불교 러시아어역 최초
'암리 타루스'는 세계적 출판사
영 · 독 · 스페인 · 중국어본 큰 반향
이슬람국 등과도 출판 협의중

한마음국제문화원은 영문번역서를 2005년부터 세계 7500여 개 출판사가 참가하는 명망있는 도서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참가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해 불교적 가르침을 담은 대행 스님의 법문으로만 구성된 책을 들고 부스를 개설해 매년 참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을 시화집 형식으로 출간한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는 2008년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도서박람회에 출품돼 현지 출판사들과 언론 및 방문객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불교의 해외포교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천수경을 통해 한국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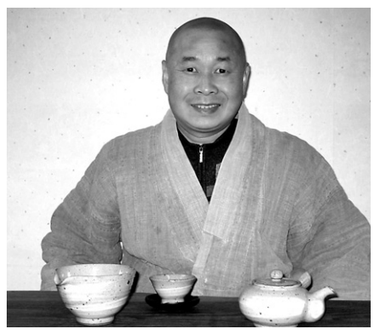
대행 스님의 책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는 2009년 130년이 넘는 전통을 지닌 독일의 디더리히스(Diederichs)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 눈길을 끌었다. 삽화가 들어가는 그림책은 출판 하지도 않는 출판사의 총편집장 눈에 띄어 책을 내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책은 2010년 9월 독일의 레드닷,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IF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해 쾌거를 이루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규모 면에서도 세계 최대일 뿐 아니라 전 세계 디자이너들로부터 존경받는 꿈의 무대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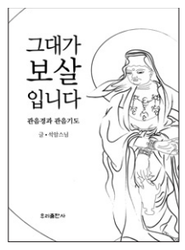
청고 스님은 "리비아 등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슬람문화내의 출판사와 가톨릭 정교국가 출판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문의해오고 있다"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신의 종교를 바꾸지 않아도 마음 수행을 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데에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에도 전달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염불은 자력·타력 회통 수행법

석암 스님이 말하는 관음기도 요령





그대가 보살입니다
석암 스님 글
우리출판사
9500원

기도는 불자들에게 자못 상반된 의미로 비춰지기 쉽다. 참선수행을 수행의 최상에 두거나 깨달음을 강조하는 분들의 경우 "기도는 곧 기복불교"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반면에 대부분 불자들은 기도의 생활화를 신행의 지료로 삼고, 기도의 힘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한다.

책 〈그대가 보살입니다〉는 관음선원을 창건해 관음염불선을 보급해 온 석암 스님이 펴낸 〈관음경〉과 관음기도 안내서이다. 〈관음경〉은 법화경, 즉 묘법연화경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독송되는 제25품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따로 독립시켜 부르는 명칭이다.

책은 스스로 부처가 되고자 하는 자력신앙이냐, 부처님께 의지해 공덕지음을 이루려는 타력신앙으로 나아갈 것인가하는 논란은 일축한다.

저자는 "관세음보살을 칭명하는 것은 자력을 바탕으로 하는 타력이며, 관세음보살의 힘을 생각하는 것은 타력을 바탕으로 한 자력이다. 염불수행은 자력과 타력을 회통하는 수행법이다"라고 강조한다. 〈관음경〉이 '관세음보살' 일심칭명을 말하지만 심층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참선 · 염불 · 간경 같은 모든 수행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묻는다.

"10년, 20년을 수행했다고 한들 스스로를 자비와 지혜로 채우지 않는다면, 방아깨비가 헛방아질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저자는 〈관음경〉의 핵심을 "관세음보살의 일심칭명을 통해 고난과 고통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바르고 평등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라는 가르침이다"라고 정리한다.

책 곳곳에는 출가 이후 한결 같이 관음기도 수행으로 정진해 온 저자의 진솔한 수행담이 담겨 있다.

"(기도를 하던 중에) 심한 몸살이 찾아왔습니다. 법당에서 기도하다 쓰러지고, 앉아서 정진하다 쓰러지고…. 그렇게 정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내게 밝은 빛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살은 나았고, 며칠 후 '관세음보살'을 칭명하는데 문득 뚝 끊어진 소식이 왔습니다."

저자는 강조한다. 실천수행이 뒤따르지 않는 깨달음은 무의미하며, 그것이 곧 관세음보살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을.

"관음염불선은 관세음보살을 칭명해서, 마음 안에서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각인시켜서 저절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일념이 지속되면 내가 관음이요, 관음이 내가 되어서 관세음보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보살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동섭 기자

읽기 쉽게 편집한 '금강경'

〈금강경〉은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와의 대화로 구성된 경전이다. 조계종 소의경전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불자들에게 널리 읽히는 대표 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신편금강경〉은 치곡 스님이 새로 엮은 책이다.

〈금강경〉을 접하게 된 것이 커다란 행운이라는 저자는 〈금강경〉 내용이 전반부, 후반부에 걸쳐 중복된 것을 정리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새로 펴냈다.

책은 구마라집의 한역본 〈금강경〉을 기본으로 기존의 대화들을 주제 · 내용별로 같거나 비슷한 것끼리 묶어 분류한 다음, 중복된 것들을 삭제하고 나머지를 갖고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다시 배열했다.



신편금강경
이생노구 치곡 지음
이일홍암 펴냄
9000원

조동섭 기자

"감사합니다"가 행복 부른다

'빛' 선생님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

"참깨 속에 참기름이 있듯이 우리 마음 속에 우주 근원의 마음이 있습니다."

빛명상센터 정광호 회장은 빛명상을 통한 행복전도사이다. 그는 큰 빛과 만난지 23년, 빛명상센터 설립 15주년을 맞아 행복 비결을 정리한 책 〈행복순환의 법칙〉 개정증보판을 펴냈다.

책은 ▷우연 같은 필연 ▷받아라, 소원이 이뤄질 것이다 ▷열려라, 행복이 가득 찰 것이다 ▷맞이하라, 풍요로운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행복 순환의 법칙의 5장으로 구성돼 있다. 페이지마다 행복 메시지가 가득 넘친다.

저자가 대중에게 설파해 온 빛은 근원의 마음을 뜻한다. 저자는 말한다.

"모든 사람 안에는 근원의 마음이 있다. 그게 '빛'이다. 종교적 호칭은 중요하지 않다.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믿는 자체가 아니라 믿는 방법이 중요하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실제 우리의 손이 행한 바가 중요하다."

저자는 이 세상은 원래 하나의 행복공동체였다고 말한다. 다 함께 더불어 잘되고 공존하는 행복공동체였지만, 인간의 이기심이 그 행복을 깨버렸다고 말한다.

저자는 귀띔한다.



행복순환의 법칙
정광호 지음
로대 펴냄
1만2800원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에서 소원하는 것들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소원을 청할 때도 마음자세가 중요합니다."

조동섭 기자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원광의 '세속오계'와 '호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꽃 해치지 않고 꽃가루 따는 벌처럼…

1. 불교의 오계

불자의 정체성은 '세 보배의 귀의' [三歸依]와 '다섯 계' [五戒]의 수지로부터 확립된다. 삼보는 붓다라는 보배, 그의 가르침이라는 보배,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상가라는 보배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삼보의 귀의와 오계의 수지는 불자의 기반을 이룬다. 붓다의 열반 이후 불보는 불상 등으로 조형화되었다. 법보는 붓다의 말씀과 그 제자들의 주해서로 편찬되었다. 승보는 붓다의 말씀을 따르는 평등과 화합의 공동체인 상가의 수행자들이다. 이들 수행자들의 개인적 규범이 '계'(戒)이고, 공동적 규범이 '율'(律)이다. 불교의 10계와 48경계 및 비구의 250계와 비구니의 348계(500계) 등의 계는 모두 오계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런데 이 계는 '지계'(持戒)와 '범계'(犯戒)로 갈라진다. 계는 '무엇을 하지 말라' [禁戒]는 것에 겨냥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무엇을 하라' [勸戒]는 것에 겨냥되어 있다.

불교의 계율은 수행자들의 수행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인 상가에서 살아가는 수행자들은 공동체의 규범 설정을 대단히 중요시했다. 상가는 이러한 규범에 의해 유지될 수 있었다. 백제의 겸익이 가져온 〈사분율〉〈십송율〉〈오분율〉〈해탈율〉〈마하승기율〉 등 오부율은 불교공동체 화합을 강조하는 상가공동체의 주요한 규범들이다. 여기에는 불교공동체 일상과 문화가 고스란히 집성돼 있다. 공동체 생활에서는 주어진 일과와 물품 그리고 주어진 조건과 상황들이 모두 평등했다. 수행자들에게 주어지는 동일성과 평등성은 승가 유지의 기본 원리였고 화합 상가를 떠받치는 버팀목이었다. 비둘기의 목숨 무게와 수행자의 목숨 무게가 다르지 않다는 〈본생경〉 예화는 이러한 생명의 평등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불교의 계율은 수행 척도지만
호국 앞에 다른 해석 가능

불살생계의 진정한 의미는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지 말라'는 것보다는 '죽음과 공포의 굴레에 갇혀 있는 것들을 살려 주라'는 것에 있다. 불투도계의 참다운 의미는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라'는 것에 있다. 불사음계의 진정한 의미는 배우자 외의 이성과 음행을 하지 말고 '맑고 깨끗한 몸가짐을 지니라'는 것에 있다. 불망어계의 참다운 의미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진실한 말을 하라'는 것에 있다. 불음주계의 진정한 의미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보다는 '맑고 깨끗한 정신을 유지하라'는 것에 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불자들로 하여금 '금계'보다는 '권계'에 초점을 둠으로써 적극적·능동적인 선행으로 유도하려고 했다.

원광(562?~660?)은 신라로 돌아와 청도의 가서갑사에 머물며 점찰법회를 주도했다. 또 그는 경주 황룡사에 주석하면서 외교문서 등을 전담했다. 원광은 외교문서(牋表啓書) 작성의 소임을 다하면서 이후 신라 최초의 문한관직(文翰官職)인 상문사(詳文師) 설치의 산파역을 해내었다. 원광이 황룡사에 머물 때 진평왕은 그로 하여금 고구려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 '수나라에게 군사를 청하는 글' [乞師表]을 짓게 했다. 표문에서 원광은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 남을 멸하는 것은 사문의 행이 아니오나, 빈도가 대왕의 토지에서 대왕의 수초를 먹고 살면서 어찌 명하심을 따르지 않으리까"라고 하였다. 원광의 이 '걸사표'는 호국과 호법의 관한 깊은 시사를 담고 있다.

2. 호국과 호법

불교사상사에서 이뤄진 '호국'(護國) 개념은 늘 '호법'(護法)과 등치의 관계를 이뤄왔다. '호국'은 '불교가 위기로부터 국가(국왕)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도적 토양과 사유를 반영하고 있다. 정치보다 종교의 우위를 인정해온 인도에서 '국가'란 국왕이 아니라 '국토'였고 그것이 '불교의 국가관'이 됐다. 때문에 불경에서 말하는 '호국'은 '국왕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지키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국토를 수호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국왕의 불교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붓다가 열반하면서 국왕에게 특별히 당부한 내용이기도 하다. 〈인왕경〉과 〈범망경〉은 중국에서 성립된 위경들로 알려져 있지만 불교의 국가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전들이다.

〈인왕경〉에서는 16나라의 왕들이 국토를 수호할 인연에 대해 붓다에게 묻는다. 붓다는 호국의 절대적 요건은 '호법'(護法)에 있으며, 반대로 불법을 파괴시키는 것은 '파국'(破國)의 인연이 되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수·당 이래의 중국과 신라·고려 이래의 한국은 〈인왕경〉에 근거하여 여러 차례 백고좌(百高座) 법회를 열어 난국을 타개하려고 했다. 백고좌법회는 100명의 고승을 초빙하여 공양을 대접하고 100개의 등불을 밝히며, 온갖 향을 피우고 불상과 보살상과 나한상을 각기 백 구씩 시설하며, 이 자리에 참석한 국왕이 매일 〈인왕경〉을 직접 읽는 성대한 불교 의식이었다. 그런데 〈인왕경〉의 주요 메시지는 '호국'이 아니라 '호법'에 겨냥되어 있었다.

이것은 불교가 '국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護國]가 아니라 국왕이 '불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護法]에 맞추어진 것이었다. 이같은 호국론에 입각해 황제(왕)는 곧 '당금(當今)의 여래'(如來)이니 승려들이 마땅히 황제(왕)에게 절을 해야한다고 강변했다. 이는 황제(왕)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처님께 절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즉불(皇即佛) 혹은 왕즉불(王即佛) 및 황즉보살(皇即菩薩) 또는 왕즉보살(王即菩薩)의 관념은 중국 남북조의 황제들과 당대의 측천무후, 신라 진평왕 전후기와 후고구려(태봉)의 궁예 등이 절대 왕정을 꿈꾸며 널리 활용하였다. 이 세계를 세간과 출세간으로 나눠보는 불교에서 세간의 통치자인 황제(왕)와 출세간의 통치자인 붓다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황제(왕)는 세간과 출세간을 동일시했고 자신과 붓다를 동일시했다.



임진왜란 민족화. 더 큰 평화를 위한 전쟁은 가능한 것인가? 승병에 대한 해석문제는 현재도 화두다.

호국은 국민포함한 사회에 대한 충정
호법은 불교 초월한 보편가치 보호

내면의 각성을 추구하는 출가자와 현실의 행복을 추구하는 대다수 재가자의 가치가 동일할 수는 없다. 또 불교와 사회, 교단과 국가와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시켜 설명할 수만은 없다. 그렇다면 어떠한 관계 설정이 바람직할까? 여기서 국왕을 민(民)을 포함하는 사회 전체로 확대시킬 수 있다면 호국이 황제(왕) 한 사람을 위한 충성으로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호법이 불법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만 강조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국왕을 동일시하든 차별시하든 간에 국가와 불법의 관계는 분리될 수도 없고 동일시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생산적인 결론을 내올 수 있다.

3. 세속오계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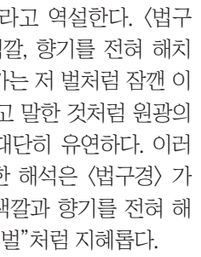
가서갑에 머물고 있던 원광의 처소로 귀산(貴山)과 추항(箒項)이란 젊은이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그에게 "죽을 때까지[終身] 계로 삼을만한 한 말씀[一言]"을 요청했다. 원광은 "불교에는 보살계가 있어 '열 가지 무거운 계' [十重戒]가 있다. 하지만 너희는 남의 신하와 아들이 되어 지키기 어려울까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광은 사군자와 교유하는 길과 훌륭한 국민이 되는 길을 위해 세속인들이 지켜야 할 사군이충(事君以忠), 사친이효(事親以孝), 교우이신(交友以信), 임전무퇴(臨戰無退), 살생유택(殺生有擇)의 오계[世俗五戒]를 제시해 주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마지막의 살생유택 조목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는 다시 '택시'(擇時)와 '택물'(擇物)의 활로를 통해 생명 존중의 길을 열어주었다.

원광은 "여섯 날과 봄철·여름철에는 생물을 죽이지 않는 것이니 이는 '시기를 가림' [擇時]이다. 가축을 죽이지 않음은 곧 말·소·닭·개를 이름이며, 작은 생물을 죽이지 않음은 곧 고기가 한 점도 되지 못하는 것을 이름이니 이는 '생물을 가림' [擇物]이다. 이는 또한 쓸모 있는 것만 하고, 많이 죽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세속의 좋은 계목이다"고 역설했다. 원광은 또 "(매월 8·14·15·23·29·30일의) 6일(齋日)은 사천왕이 사람의 선악을 살피는 날이자 악귀가 사람을 엿보는 날이므로 사람마다 몸을 깨끗이 하고 계를 지켜야 하는 날이다. 때문에 이러한 날에 생명을 죽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산 것들이 생식을 통해 번성하는 봄철이나 여름철에 살생을 피하라는 것은 오히려 생물들이 지니고 있는 번식의지를 잘라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명 존중의 사상이다. 1년 365일 가운데에서 봄철과 여름철을 피하고(6*30=180여 일) 다시 육재일을 피하면(6*6=36) 실제로 생명체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기간은 150여 일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1년 가운데에서 생명체의 생명을 끊는 기간보다 살려주는 기간이 더 길게 된다. 해서 이 조목은 '생명체를 살려주어야 된다'는 부분이 더욱 더 강조되는 것이다. 이른바 '시일을 가린다' [擇時]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원광은 인간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이동수단인 말, 노동수단인 소, 시간을 알려주는 닭, 집을 지켜주는 개 등의 가축들은 나름대로 제 몫이 있으므로 '생물을 가려' [擇物] 목숨을 끊어서는 아니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한 점 고기가 되기에도 부족한[不足一臠] 미세한 생물[細物]을 가려서[擇物] 죽이지 말라고 하였다. 이 또한 쓸모 있는 것만 하되 많이 죽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법구경〉에서 "꽃의 아름다움과 색깔, 향기를 전혀 해치지 않은 채 그 꽃가루만을 따가는 저 벌처럼 잠깬 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원광의 생명과 생태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유연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원광의 이러한 해석은 〈법구경〉 가르침대로 "꽃의 아름다움과 색깔과 향기를 전혀 해지지 않고 꽃가루만을 따가는 벌"처럼 지혜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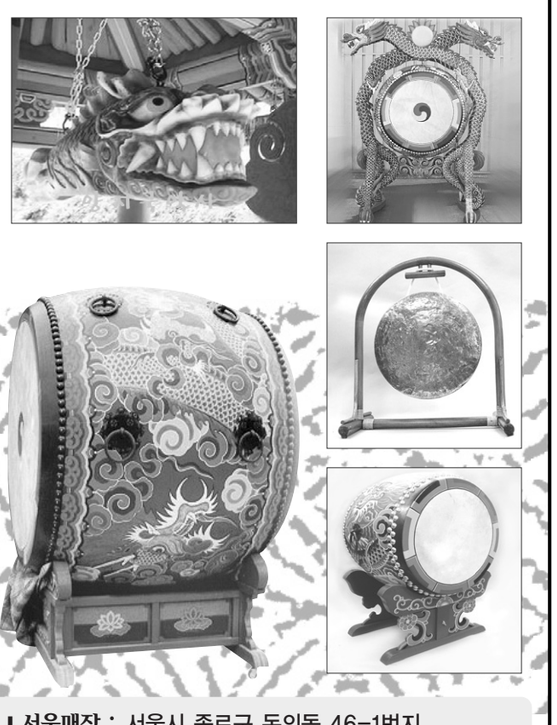
물론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목숨 가진 것들을 죽이지 않을 수 없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원광과 같이 발상을 바꾸면 생명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육재일이나 봄철과 여름철을 피하면 '언제' 생명을 죽일 겨를이 있겠는가, 또 집안에 도움을 주는 가축이나 작은 생물을 죽이지 않는다면 '무엇'을 죽일 수 있겠는가? 원광은 '시기'와 '생물'을 "가려서 살려주기[擇殺] 위해"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생물을 살려주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모색해온 원광의 혜안은 연기와 자비의 관점 위에서 상생의 생태학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그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체계화한 성실학과 여래장사상을 조직화한 섭론학을 기반으로 하여 신라 대승불학을 정초하였다. 아울러 원광은 호국과 호법 사이의 활로를 열어 불교 국가관을 정립하고 현실적 삶의 구체적인 덕목으로서 세속오계를 창안했다.

불살생계의 새 해석 원광에서 찾아
현실적인 덕목이 필요할 때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설법·화술
설법, 강의, 인사, 축사, 최면 등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종합반 :
(1)매주 목요일 (2개월과정)
(2)훈련식 교육임으로 하시라도 등록 가능함
◆ 특 혜 :
(1)3인이 함께 등록할 경우 원하는 일시에 맞추어 드림
(2)개인지도, 출장지도 가능함 – 직접 상담 결정함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법화경독송 천일기도
(2012. 3. 25 ~ 2014. 12. 19)
거룩하신 부처님께 지심으로 귀의하오며
고려사와 인연 있는 불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평안이 깃들고, 업장소멸 소원성취를 발원하며, 고려사 불사 원만 성취를 위해 부처님 최고의 대승경전인 묘법연화경(법화경)을 천일동안 일천번 독송하는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두 손 모아 축원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00 ~ 03:00 법화경 전품 독송
▶1차 백일기도 (매회 회향일 마다 합동천도재 봉행)
■ 기 간 : 2012년 3월 25일 ~ 7월 2일
■ 내 용 : ① 관세음보살보문품 독송
② 법화경 사경
③ 염불 ④ 108배
(위 4가지 중 한 가지 선택)
■ 동참금 : 10만원
■ 접 수 : 전화접수 가능
■ 문 의 : 032) 932-3525 / 070-4147-6525
※ 부처님 봉안불사 동참자, 개금불사 동참자(접수중)는 천일동안 축원하여 드림.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과거를 좇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오로지 현재 일어난 것들을 관찰하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추구하고 실천하라

– 중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초혼재혼인연찾기

불자 독신 남녀 , 결혼, 친구
연인 인연 지어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환영
원갑사 인연찾기
02)365-1345
010-9114-4345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010-8676-6132

능엄신주,영가천도

우울증, 지방간, 스트레스,
학교폭력
가정방문 회사방문
상담 기도해 드림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역학 개인지도

1. 사주,궁합,택일,조상,성명학
2. 가장 알기쉽고 정확하게
3. 음양오행의 근거로 강의합니다
4. 단기간 완성
5. 개인 및 그룹지도
6. 출장강의도 환영함 (사찰포함)
010-4237-9088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적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범 송

영남범음범패

학인수시모집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나비무 (2개월 완성)
* 천도재 해드립니다.
010-9370-4043
경북 경산 금박산 불교 교육원

우주기(氣)천도재

재물을 차리지 않고 특별한 우주기(氣)천도재?
1.시공을 초월한 천도재법?
2.목탁,염불을 하지않는 새로운 천도재법
3.빙의치료,퇴마,천도재 전문
4.조상,빙의영가와 직접대화를 통한 천도재
※ 질병, 액운,우환이 많은분 상담
일광사 011-586-6091
031)321-9555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역학 기문둔갑 (명리)

상담 비법전수
– 영업하고자 하시는 분
(수강즉시 바로상담 책임지도)
– 역학 : 명리, 기문둔갑으로
영가지도. 병방론 지도.
사주,신수,궁합,성명학
우울증,공포,빙의퇴마(직접상담)
묘불사 주지 직강
051)557-5075
010-2507-1042

수험생 • 고시생

하숙 : 4명으로 한정
속가와 떨어진 고요한 환경
경남 사천시 용현면 용치리
(와룡산 선덕사)
016-849-3858

전통불교의식 무료수강

의식을 배우고자 하는 비구,
비구니 스님 모집
출가행자 수시모집, 모든 의식
출장 집전해 드립니다
스님 달마 저렴하게 드립니다.
임진년 윤달 묘지 탈봉 회향 문의바람.
055)323-3569
010-2553-882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정방사
50대후반에서 60대중반
010-5219-702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북한산 용암사)
02)387-3216

입학, 취직 사업

각자에게 맞는
직업 선택.
재물소통 전문상담
자성스님
국민 220401-04-069516 임은자
010-7459-0108

전통의약 자연치유 비법, 전수 (포교활동)

• 전수내용 : 악성무좀,악성골수염,악성
피부염축농증,버거씨병등으로병원에서
완치 어려운 분에게 해당 됩니다..
• 전수희망자 : 포교하실 스님(유료)
• 무료치료 : 아픈스님께 무료보시합니다
010-3028-6579

영통호흡기도

• 영과 통할 수 있게 하는 호흡기도법을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과정 학인모집
◆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 사물 ◆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사찰 행사전문 (부전스님, 사찰소개 문의, 사주명리 영가 찾는법)
◀ 전통불교조계종 입종안내 ▶ 010-2563-5550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011-9491-9227

처사님 모십니다

(출퇴근 가능, 마산)
염불 배울 수 있음
010-3428-6665

비구니 기도스님

(서울 도심 포교당)
011-229-6061

지리산 깊숙히 자리한 암자에 스님과 수행할 나이 40~60세 보살님을 찾습니다

055)883-3751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 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010-8519-9279 〈 법보시 상담환영 〉

전통 범음범패 (바라,작법) 과정 학 인 모 집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1. 교육과목 :
기초 –도량석, 아침종송, 사시마지, 저녁예불, 각단예불, 목탁, 요령, 북, 태징, 동광쇠, 타법
기본 –천도재의식 : 1. 시련,대령,관욕,39위,
2. 봉청짖소리,대령소(고혼소)복천게, 향화청 (짖소리),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짧은소리
3. 상단, 관음시식, 상용영반
4.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요잡바라, 화의재바라
5. 나비춤(도량게,다게)
고급 – 생전예수제,수륙재,방생,시다림. 종사영반 , 다비식, 종사이운, 괘불이운
2. 개강일시 : 2012년 3월 31일 개강
3. 교육시간 : 매주토요일 오후2시 – 오후 6시
4.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별도)
5.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2–1서강빌딩5이2호)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1매
7. 접수기간 : 상시
8. 연 락 처 : 051)442-1818 / FAX : (051)442-1817
010- 2554-5582 (총무국장)
한 국 불 교 태 고 종 부 산 서 부 종 무 원

천도재,구병시식 및 각종질병상담

▷병명도 없이 불안초조,공포심,우울증,몸떨림
▷한청,한시,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이 몸이 아프고 괴로우신 분
▷오래된 두통,관절염,심장병,화병,위장병,갑상선, 공황장애,각종 뇌질환,퇴행성 관절염, 디스크,빙의,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신분,각종 부인병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신분 ▷각종 질병 상담해드립니다
▷업장소멸,천도재 및구병의식도 해드립니다.
약사여래 가피와 법력(氣)으로 치유한다
경남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여수동 755번지 법용사 대원스님 합장
연락처 : 055)352-8045 / 010-5453-861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011-770-5313

서울 경기지역

문중 절, 시골집, 가든, 법당,빈터
무상임대나 저렴가격 관리
맡기거나 불사에
도움 주실분 찾습니다
010-3131-0772

3년 동안 숙성한 진짜 100% 효소 145가지의 약초가 들어간 백초 효소

백초효소는 불가에서 승려나 수도자들이 오랜기간 토굴에서 참선하면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머리를 맑게 하기위해 먹던 약초입니다.
< 백초효소를 권장하고 싶은 사람 >
– 목과 어깨가 뻐근함, 일어설 때 느끼는 현기증, 만성피로, 두통, 불면증, 비만, 변비, 요통, 식욕감퇴, 불임, 생리불순 등 자율신경 실조를 인한 제반증상과 경년기 장애 등
– 각종 암, 당뇨병 등 만성병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위한 자연요법을 실시할 경우 최고의 자연식품.
시중시세 절반 스님들에게 보급가액 1병 5만원 (2병이상 주문 시 택배비 무료)
* 보급처 신도불이 영농조합
cafe.daum.net/jijangsw.8899
卍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번지 부처골 지장선원 ☎ 054) 383-8553 , 011-9585-4908
입금계좌 : 농협 703088-51-013554 예금주 : 지장선원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경산,칠곡,구미,포항,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뉴욕, 중국 칭다오, 호주 시드니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토 · 일요일 특별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급 안 내

• 청동, 관세음보살님 입상….(높이 155cm, 년대 약150년 이상, 금액 1000만)
• 목, 남순 동자님 입상.....(높이 78cm, 년대 약200년 이상, 금액 200만)
• 패엽경.....(가로20cm세로55cm, 매수 약150매, 300만)
• 목, 문수, 산신 동자상 5분..(높이 60~70cm 사이, 년대 150년이상, 합계 150만)
• 석조, 조사상 2분.....(높이 40cm 넓이 28cm, 년대 약200년, 2점 300만)
위의 성물을 불사자금 관계로 급히 안내하오니 소장하여
모실분은 연락주시고 꼭 하실분은 위 금액을 절충 가능합니다.
경북 안동 덕인행 불자 합장 010-4154-9095
큰스님 글씨, 경봉, 월하, 일붕스님과 청광화백 달마와 그림을 불사에 설판하여 주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행자(비구니)구합니다

1. 신체조건에 관계없음
2. 학력 관계없음
3. 나이 관계없음
4. 불법을 구하고 수행정진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011-858-0306

관광버스

대우차, 2003년식, BH120,
6기통, 43인승,
노래방, TV양호, 타이어양호,
엔진양호, 무사고, 전체도색(빨강)
가격 : 1천 9백 7십만원
010-8675-3384

www.kyksb.co.kr

승복·전통복식 32년

김윤경승복·우리 옷

- 32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 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겨울신상품 특가세일
— 목화솜면누비 —
적삼 200,000원
동방 250,000원
※손누비 특별주문 받습니다.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윤경)

정확도 효과성 제일

아래 각 활용서 및 CD프로그램에는 작사귀 / 병귀 / 부정빌미 / 산소탈 및 해소방법을 정확하고 효과 크게 적시함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학습용) · 하(임상용)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기존사주초월)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간추린 육임 형이상법) 5만원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정가350만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12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통1권 / 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비결 CD 프로그램 육임일생사/당면판단사완성 (각피별 확정) 정가650만원
· 군자수첩 육임정수모음 · 저렴한 가격대 정가103만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농 협 301-0071-8027-01/ 육임나라㈜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門中 宗山과 가족묘지에 적합한 土地를 전체 매각합니다

1. 서울에서 2시간 거리로 교통이 편리하고 토지까지 자동차 진입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2. 이미 '문중종산'으로 허가 받아 복잡한 절차가 필요치 않으며
3. 토지내에 10여개소 이상의 진혈(眞穴) 생기처(生氣處)가 있는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4. 옛적부터 선인들이 답사하고 확인하여 명당혈처로 각종 결록(訣錄)에 등재되었으면서도 아직 한 번도 묘지로 사용된 바 없는 생지(生地)로서 일제가 조선의 지도적 인물의 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국 혈처에 쇠말뚝으로 이른바 '뜸'을 뜰 때 이곳에다 뜸을 떳다. 하여 "뜸골"이라 불리기고 하고, 여러 개소의 혈처가 모인 곳이라 하여 '벌통명당'으로 불리기도 하는 최적의 대형 묘소 적합지입니다.
5. 明堂은 조상의 영면을 안녕케 함으로써 후대 가문의 번창과 자손의 영화를 보장 받는 대자연의 신비이자 우리 생명의 뿌리입니다. 식물도 척박한 땅을 피하여 비옥한 대지에 뿌리 내리거든 하물며 인간이겠습니까?
6. 이러한 명당의 진리를 외면하고 후손들이 편리만을 도모키 위하여 근래 윤 삼월을 기하여 이미 있는 무덤조차 파헤쳐 화장해 버리려는 나쁜 풍속이 만연함은 실로 개탄스럽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인재(人才)가 국부(國富)의 원천인 우리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려할만할 일입니다.
7. 이에 문중 차원의 종산 조성에 필요한 명당 토지를 적극 권고하여 매입 의향을 지닌 분에게는 눈 밝은 地師의 설명과 안내로 종산 조성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상담해 드립니다.

단, 분할매각은 없으며 도시 임대소득부동산과 교환가능
연 락 처 010-9227-5658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불 자 정 보 26 | 881호 | 전면광고

2012년 3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30평
- 요사 : 120평
- 부지 : 1,500평
- 가액 : 18억

※ 9억 지불후 잔여금 후불 가능. 조절 불가임

- 위치 : 부산
- 법당 : 30(목조)
- 요사 : 70평
- 부지 : 150평
- 가액 : 6억 8천

- 위치 : 경남
- 법당 : 15평
- 요사 : 36평
- 부지 : 1600평
- 가액 : 6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한번 가보고싶은 사찰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목조건물)
- 아주 완벽한 전통사찰
- 대웅전 27평(토굴) 황토,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6개 각방 욕실완벽
- 등산로 끝까지 도로 포장되어 있음
- 현공풍수학으로 (최고좌향)
- 가액 8억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도심속 조용한 산밑
- 남향 , 지하수 사용
- 대지 186평, 법당 건평 목조 25평
- 요사 26평, 주차 10대가능
- 가액: 4억 9천만원

010-6554-6198

사 찰 안 내

- 부산시 금정구 지하철 10분 이내 거리
- 1층 요사채(화장실 2개, 방4개, 거실), 2층 법당
- 신축개조, 법당, 단청일체
- 삼존불 은행목불, 원목불단, 108소불 있음
- 1층 약사불, 포대화상
- 2층 산신, 용왕, 독성 별도
- 위치좋고 옆 공원 산세 좋음
- 스님 건강 관계로 9억

010-2503-077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의성군 소재
- 부지: 약 5000평, 종교용지 300평
- 법당: 약 70평(대적광전, 관음, 지장전)
- 요사채 약 100평 (방9, 주방, 창고)
- 요양원, 고시원, 종단본사 등 다용도
- 대작불사 가능한 동남향 야산사찰임
- 꼭 매입 할 분만 방문 후 상담요망
- 가액: 5억원 (가격절충가능)

010-9217-4911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80평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가액 : 13억

- 위치 : 경기
- 부지 : 1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가액 : 2억

※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및 토 굴 안 내

창 원

- 대지: 200평(국유지 500평)
- 법당 20평, 원통전10평, 지장전 20평
- 용왕당 6평, 삼성각 6평, 요사방 3칸
- 전통한옥으로 전각 다수
- 가액: 6억 (은행 2억 포함)

토굴(부산 지하철 10분)

- 대지: 150평(국유지 70평 포함)
- 법당 (용왕당 물 철철) 17평,요사채, 방3칸
- 뒷산 공원 접, 주택 밀집지역
- 정남향, 사찰역사 38년
- 총가액 : 2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직011)560-8522,051)863-66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
- 3층 53평 전체
- 법당, 아미타불, 관음소불 50
-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 주방, 큰방3, 큰 대기실, 해우소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몸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

010-4323-0087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 주차 40대가능, 황토방있음
- 가액: 6억 5천만원 (현지 답사 후 조절가능)

010-9889-318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방주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 주방, 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2천5백만원, 월100만원 가액절충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분당인접 5분
- 대지 약 900평, 건물 50평 2동
- 등산로 접, 전망터 최고 정남향
- 숲속 요양 집으로 적격
- 지역 거래가에 절반 가격
- 공시가로 양도함
- 융자 70%가능 /주인직

011-726-4711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대구 20분거리
- 대지 240평, 건평 57평(한옥)
- 2억 3천되는 토굴을 1억 500만원에 급 양도
- 대출 5500만원 별도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0-4366-7950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천광리
- 천수천안관세음, 신중탱화,
- 후불탱화, 소불
- 방3, 공양간, 탈의실 별도
- 시설비 1800만원
- 전세 1000만원, 월 50만원

051)721-8350
010-9243-8350

암 자 터 안 내

- 구례 토지 문수리 908-1
- 관리지역 , 논 400평
- 가액: 4천 3백만원
- 대출 3000만원
- 연곡사와 화엄사 중간 문수골
- 정남향

010-9393-4965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북구 시내
- 약 500평
- 산신각1, 용왕당1, 법당1, 요사채1
- 주차시설완비
- 가액: 3억 3천만원
- 스님 건강상 급 양도(조절가능)

011-595-1522
011-874-159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부근)
- 평수 50평, 3층 건물중 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4668-738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인근
-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30평, 요사채 20평, 공양간 10평, 해우소3평반
- 청돌암반지하수 130㎜, 물수량 100톤 일급수 ㏄카메라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잔디 및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IC 5분거리 1호선 국도 8분거리
- 개인사찰,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 가액: 5억 5천만원 (조정가능)

010-6375-0108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경북 문경 산북면 사무소 10분거리
- 임야 : 8만 4천평
- 용도 : 大 사찰및 복지시설
- 차도와 붙어있음
- 평당 : 9천원

011-282-609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사거리 (금모선원)
- 평수 : 50평
- 전세 1000만원 월세 45만원.
- 시설비 : 1,300만원(조정가능)

010-2370-5459

사찰(급)안내

- 위치: 경기 포천시 송우리 근교
- 1층 50평, 위패단
- 2층 법당 35평
- 요사채, 공양실20평, 선방 6개
- 산신각, 휴게실 20평
- 가액: 14억(상담 후 절충)

010-7130-7246

사 찰 안 내

- 물좋고 공기좋은 경북 왜간사찰
- 부지 2천 5백평
- 법당, 삼성각, 용왕당, 공양간
- 영천에 임야 2만 2천평
- 대출 1억 6천포함
- 총포함 4억 9천만원

010-7246-0100

사 찰 안 내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연종리 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 계 1673평
- 대웅전, 목조,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 석굴암, 기타참고, 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동래
- 2층 삼존불 3층 산신각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700만원 답사후결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

010-3070-810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창녕군과 부곡온천중간, 영산IC에서 7분거리
- 평수 : 532평, 법당 30평(목조단청), 산신각, 칠성각
- 요사채(60평, 화장실2개)
- 석탑, 주차장, 창고, 텃밭, 용궁못
- 가액: 3억 7천만원, 시세이하양도,
- 시설완벽, 몸만 오세요

010-8664-8259

사찰 및 부전스님안내

- 사찰 또는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분
- 부전스님이 필요한 사찰
- 부전 생활이 필요한 스님
- 사찰만을 전문으로 안내하며 부전스님 안내드립니다.

♣ 부전생활에 필요한 덕목 및 사시예불. 목탁. 전문의식 단기교육

도심 속의 산중사찰

- 부산 동구 범일동
- 총대지 98평
- 건물 1층 70평 (법당 35평, 공양간등 8방)
- 2층 35평(법당35평, 방2)
- 가액: 3억 5천만원(전세 절충)

010-5511-7000 / 070-4128-8975
(부산푸른부동산) 혜화.보현 합장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 중구 대흥동
- 도심 포교원 최적입지
- 대전역 도보 7분, 중앙시장 4분
- 건평 70평. 3층
- 법당 25평, 방사 4, 차실
- 제반시설완벽
- 전세보증금 1천만원, 월 42만원
- 시설비 3500만원

011-622-967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 평수 7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7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됨

010-8390-6654
010-7154-665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두서면
- 대웅전 20평, 목조, 기와
- 명부전, 산신각, 용왕당
- 요사채, 공양간
- 대지: 1500평, 국유지 4만평 이용가
- 포장도로, 1급수 계곡을 길게 접함
- 가액: 4억(약간절충)

010-5346-4138

포교원(급)안내

- 위치: 울산 3층건물중 3층
- 총평수 60평(베란다포함)
- 법당(삼존불,각단탱화 등)산신각,용왕당
- 시설완비,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주차장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월46만원
- 시설비 3천5백만원

016-614-8730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삼천포 남해안 바닷가
- 전망최고, 위치 최고의 부지
- 토목공사완료, 즉시건축가능
- 4차선국도인접 , 진주에서 15~20분 거리
- 1천평에서 2천평
- 가액: 전화상담

010-6776-330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전 시내 포교요지
- 선원, 철학원, 살림집도 가능
- 대전역 중구청간 도보 10분거리
- 3층, 법당1, 방2, 넓은 홀 • 약 50평
- 실내화장실2, 다락1, 시설깔끔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150만원

016-606-5658
010-6223-82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원주 도심포교원
- 구옥 -안채, 법당, 스님방 1, 거실, 화장실, 보일러실, 마당,
- 주위에 주차공간 넓음,
- 구옥별채 - 산신각, 화장실, 방1, 주방, 창고
- 보증금 200 월55만, 시설비 900만원

010-4028-36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송현동
- 4층건물에 4층, 전체 80평
- 법당: 삼존불 모셔져있음, 방2, 창고방1
-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 관리비 1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436-3447

별 장 안 내

- 위치 : 경주시 산내
- 면적: 500평, 건물 100평
- 특징: 천혜의 자연경관, 계곡접
- 전원속의 포교원 갤러리
- 예술인의 집 최적임
- 가액: 8억

010-8676-2778

사찰(급)안내

- 위치: 청원 오창 IC인근, 대단위 아파트 거주, 추가조성중
- 부지: 약 1750평 (대웅전 46평, 극락전 30평, 요사채 32평
- 산신각 4평, 매점 4평, 공양간 15평, 부속창고 10평 등 등
- 가액: 25억, 남동향에 기운이 좋고 산수화려함. 내부관리상태최상
- 납골당, 수목장, 선방, 불교 학교부지로 활용하기 좋음
- 시내버스 사찰앞 주차장까지 운행

010-5461-5515

사찰 엑스퍼트

http://www.kisbulsa.co.kr E-mail : kisblsa@naver.com

- 전국 사찰, 포교당 암자 양도 양수해드립니다. 사찰 양도,양수를 결정하셨다면 「사찰 엑스퍼트」에 의뢰하세요.
- 철저한 비밀 보장.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계약체결시까지 홍보.
- 매물 홍보의 최적화.(사진촬영)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 엑스퍼트」를 입력하세요.

010-8980-4789

사찰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남향)
- 총평수 613평 중 대지 350평
- 별도부지 263평
- 건평 1동 130평(옥상사용가능)
- 방4, 대형방3, 심야전기보일러 수세식화장실 3, 주차시설완벽 큰도로 30m, 집기포함
- 가액: 6억 5천만원(상담후절충)

011-3188-1241

사 찰 안 내

- 위치: 포항시 북구 양덕동
- 법당 28평, 단청완료
- 산신각 2평 단청완료
- 요사채 약 80평,(방6개) 심야전기
- 창고3개, 주차 50대이상
- 가액: 8억(조정가능)
- 평수 대지, 개인도로 673평, 답 100평

010-6409-8114

사 찰 안 내

- 위치 : 국립공원(유달산)내
- 별장식 암자
- 평수 200여평
- 특징: 전설과 영험이 있는 기도도량
- 가액: 1억 5천만원

011-623-4487
011-229-4132

사 찰 안 내

- 위치: 광주 나주 중간 도심근교
- 토지 400평
- 법당, 요사채
- 가액: 1억 5천만원
- 꼭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011-9602-2293

토굴 암자, 전통식품 공장(터)

- 위치 : 경남 합천군(대구에서40분거리)
- 총평수 3,579평(계획관리지역) 합천호인접 계곡경관이 아주수려한 지역
- 경내자연동굴(총폭2미터,길이 300미터)
- 동력전기있고 진입로 폭4미터 포장되어있음
- 요양시설,펜션,전통식품공장,절 건축허가가능
- 가액은 2억5천만원(답사후 절충조정가능)

011-848-2452

종 교 관 련 터

- 요양원 수련원 선방, 포교원
- 서울 은평구 진관동(북한산 자락)
- 평수 400평(대로에서 20m)
- 건물 약 40평 있음
- 특징: 산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곳
- 가액: 15억

- 사찰 수련원 요양원 (연수원)
- 강화도
- 투자가치있는 명당터
- 평수 1200평
- 가액: 12억

주인직접 011-372-7744

명 당 사 찰 터

경주 남산 풍수와 환경 완벽함
뒤산에는 큰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있고 건축허가 토목공사
돌담장까지 완성
등기면적 623평 실제사용 850평됨
평당 63만원

010-5014-1456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창원 도계동
- 3층 대형 상가건물 내
- 2층 45평, 큰법당에 시설 완벽
- 가액: 시설비 포함 1억 8천만원

010-4668-6550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 부지 500평, 임법당30평, 요사40평,
- 산신각,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도량기운 좋음
- 가액 : 3억5천만원

011-452-8374
010-7164-713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내
- 지하철 2호선 3분거리, 교통좋음
- 평수: 대지 62평, 주택 2층법당 15평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108불, 인등
- 1층요사채 18평
- (20평 전세 6500만고) 1억 7천 5백만원

018-564-3390
019-581-308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남구 청담동
- 평수 : 50평 • 건물 2층 건물의 2층
- 시설: 법당1, 거실1, 방2, 부엌1 화장실2, 샤워실1
- 시설비 3000만원
- 보증금 3000만원, 월 130만원

016-9433-0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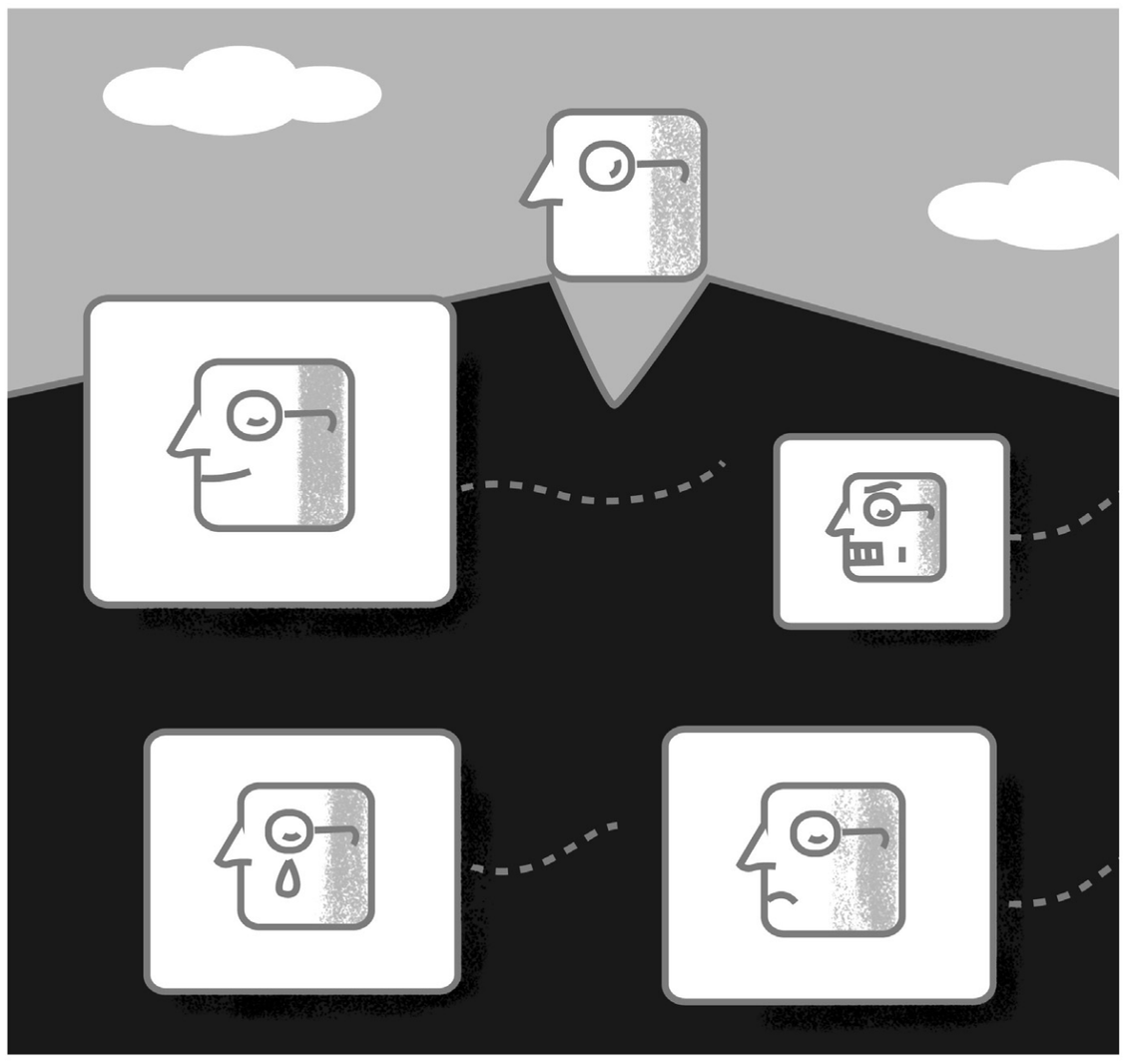
마음 마음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에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일듯이 하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으니. - 달마 -

마음, 과연 무엇인가 - 불교의 심리학적 측면

삐야닷시 스님 (스리랑카)

〈4〉 식(識)의 개념과 기능

감각대상을 알아차리고 존재형성에 중요한 역할



일단 어떤 특정한 지각이, 그것이 전도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자주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점점 강력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워지며 그 결과는 〈숫따니빠따〉 게송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각적 지각에서 벗어난 사람
그에게는 더 이상 굴레가 없다.
지혜로 해탈을 성취한 사람
모든 미망이 그에게서 사라진다.
그러나 감각적 지각에
또 삿되고 그릇된 관점에 집착하는 사람
그는 이 세상을 아웅다웅 다투며 산다."

상(想) 다음이 행온(行蘊)입니다. 이 행즉, 상카라(sankhāra)는 쓰이는 곳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양해 딱히 한 영어 단어로 대체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용어입니다. 오온에서 거론될 때는 '의지적 형성력(volitional formations)'이란 뜻으로 새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문맥에서는 '조건 지어지고 복합된 것'을 뜻합니다.

'모든 상카라는 무상하다(諸行無常)' 고 말할 때 상카라는 모든 복합되고 조건 지어진 것, 즉 원인과 조건들의 영향으로 존재하게 되고 다시 그 스스로가 원인과 조건으로 작용하여 또 다른 결과를 일으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기관(意根)

이 행온에는, 앞에서 설명한 수(受)와 상(想)을 제외한 모든 정신적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아비담마에서는 52개의 정신적 요소(cetasika)를 들고 있습니다.

수와 상도 그 중의 2개이지만 이들은 의지적 형성력이 아닙니다. 나머지 50개가 정신적 또는 의지적 형성력인 상카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지는 정신영역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해서는 업의 심리학을 다룰 때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식온(識蘊)은 사람을 구성하는 오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식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수, 상, 행과 같이 식 역시 여섯 가지 형태를 갖고 있으며 그 기능도 각기 다릅니다. 각 기능은 독자적인 기반과 대상을 가지고 수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느낌(受)은 감각 기관(根)과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경험됩니다. 정신적 대상을 인지하는 마음이라는 기관은 외부 세계를 인지하는 다른 다섯 기관처럼 만져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은 색의 세계 또는 가시적 대상을, 귀는 가청음을, 등등 이런 식으로 각기 인지합니다만 그러나 마음은 관념과 생각의 세계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각이나 관념의 세계에 도달하면 마음이라는 기관은 단순한 기능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정신 영역의 지배자가 됩니다. 이에 반해 눈은 가시적 형상, 즉 색깔의 세계를 보는 수단에 그칠 뿐이고 그 색깔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거나 관념을 구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식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과 대상 간에, 가령 눈과 형상, 귀와 소리, 등등의 사이에 이 기능적 관련성이 있긴 하지만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식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해당 식(識)이 없이는 아무리 민감한 감수성 일지라도 어떤 대상도 경험하지 못하고 만다는 얘깁니다. 이 세 가지, 즉 눈과 형상과 안식(眼識)이 모여야만 촉(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촉에서 수(受)가 오고, 수에서 애가 오고, 이런 식으로 연기법에서 설하는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식이 감각 기관과 그 대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기(生起)한다 할 때 이 말이 결코 식이 순전한 물질들인 감각 기관과 대상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뜻은 아니란 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식은 단순히 물질의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믿는 유물론자들의 이론에 동의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식의 기능은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사람 눈이 가시적 대상과 마주치게 되더라도 알아차림이 없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의식하지 못하고 맙니다. 식 역시 조건 지어진 것이며 그래서 변하게 마련이며, 따라서 그것은 물질과 대립하는 정신 또는 영혼이 아니고 물질의 소산인 투사(projection)도 아닙니다.

식의 개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식의 모든 측면을 연구하거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식을 오온의 하나로, 감각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말 뿐, 식의 보다 깊은 해석, 그것이 안고 있는 보다 넓은 면모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의 개념을 윤회설의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존재형성과정에서 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단번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생(轉生)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은 연기법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에 연하여 식이 있다.' 즉 전생의 선·악 행위 또는 업이 금생의 의식 생활을 조건 지운다는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식은 지금 현재의 존재와 관계있는 최초의 요인 내지는 현재의 존재를 조건지우는 최초의 고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식이 하나의 단일 존재에 귀속하는 의식의 흐름 중 최초의 것이기에 보통 재연결식 또는 재생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상카라는 업이라는 형태로 재생을 일으키는 원동력 구실을 합니다.

식은 現존재 조건 지우는 첫 고리
전생 최후 순간 死識에 의해
금생의 첫 순간 재생식 생겨

다시 태어나도 같은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식의 연속상태

식의 흐름은 존재의 근본 원인인
탐진치 근절되면 멈춘다

우리는 '상카라'와 '윈냐나'라는 두 정신적 요소들이 벌이는 역동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상카라는 업을 의미하는 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일체의 행위,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가 업이며 이 행위들이 불러일으키는 반응들이 재생의 동기가 됩니다. 따라서 행은, 다음 생에서 새 인격을 좌우하는 바로 그 부분의 식을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生이)라 부르고 있는 것은, 이미 언급한 오온이 기능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달리 표현하면 에너지나 힘에 불과한 명과 색(名色)이 기능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에너지 또는 힘은 어느 한 순간도 그대로 일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과 색이 끊임없이 합류하는 그 속에 항구적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성한 남자는 소년 시절의 그 사람이 아니며, 그렇다고 생판 딴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단지 밀접한 연속상태라는 관계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음과 몸의, 또는 정신적 에너지와 물리적 에너지의 합류 현상은 죽음으로써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힘이나 에너지도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합류현상은 새로운 조건 속에서 다시 자리 잡고 다시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생, 재존(再存), 또는 재유(再有)라 부릅니다.

업의 전개란, 끊임없는 연속선상에서 미래의 생을 조건지어나가는 현생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 전개 과정에서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건너가는, 또는 전생(轉生)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중단 없이 지속되는 운동일 뿐입니다. 여기를 떠나 딴 곳에 태어나는 '존재'란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연 다른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앞의 전생에 속하는 최후 순간의 식(死識 또는 死心)이 있습니다. 그 식이 사라지면 곧바로, 그 식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금생의 첫 순간의 식이 생깁니다. 이 식을 재연결식 또는 재생식이라 부르는데, 새로이 시작된 개체의 정신생활의 첫 움직임인 셈이지요. 마찬가지로 금생의 마지막 심찰나(心剎那)가 내생의 최초 심찰나를 조건 지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식은 존재에 들어왔다가 새로운 식에 자리를 내주고 사라집니다. 이처럼 식의 흐름은 끊임없이 지속 되다가 마침내 존재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 근절되어 존재가 끝나게 될 때에야 비로소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 원인이란 두말할 것 없이 탐, 진, 치의 삼독심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존재란 살려는 의지로서의 식, 그 자체입니다.

재생식을 가리키는 빠알리어 '빠띠산디 위냐나'는 아비담마(論藏)에만 나오는 용어로서, 그 자세한 풀이도 아비담마에 대한 주석서와 연구서들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빠띠산디'는 문자 그대로 재연결, 재결합, 재회를 뜻합니다. '그 식(識)은 한 존재를 후속 존재에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재결합식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 글은 "법륜시리즈 7"(고요한 소리퍼)의 내용입니다.

불자정보 881호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포교원(급)안내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48번지
- 4층건물중 2층
- 평수 : 32평 시설완벽
- 법당 : 장엄되어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방2칸 시설비 : 2,000만원)
- 몸만들어오시면 됨

010-2565-72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전답 : 827평
- 법당, 요사채 약 50평
- 산신각 약 5평, 용왕당 약 2평
- 가액: 3억 3천만원

010-8034-830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대지 90평
- 외부 :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 1억 5천만원

010-4085-1119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공업 로터리 부근
- 10층 빌딩의 3층
- 평수 : 60평
- 시설 A급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9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1-9335-55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송진2리 240번지
- 평수: 약 590평
-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13평, 5평

011-571-8961
010-2739-381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
- 대지 135평
- 법당 14평,개금 삼존불
- 후불,칠성,지장, 신중,영가단
- 심야전기
- 주차장 완비, 도로에서 200m
- 가액 : 9천5백만원(조정가)

010-4146-6556

사찰터(급)안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길안면
- 대지-48평 전-102평
- 물.전기.도로접
- 정남향 뒤에는산
- 양도가액: 2천만원

054)335-0667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 대지 145평, 건물 25평, 방4, 인법당
- 입식주방, 수세식화장실, 순간온수기, 비데설치 ,에어컨2대, 불상1, 후불탱화1
- 식수 자연생수(석간수), 텃밭, 차고있음
- 마을에서 500m떨어져 있음
- 20m 전방에 마르지 않은 계곡
- 가액: 6500만원

010-3509-0124

포교원안내
- 위치 : 하남시 창우동
- 건물 2층 건물에 2층
- 건평 74평
- 검단산 등산로 입구
- 방3, 법당1, 주방1
- 보증금 4천만원, 월 130만원
- 전세가능, 시설비 협의

031)791-9022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역 5분거리
- 상가 접한 1층, 주택 전체 (반지하방 2칸포함)
- 불단, 불상 및 제반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1천 7백만원

010-2262-800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수정동
- 대지 50평, 1층 요사채 40평
- 방4, 2층 법당 35평
- 바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수정산 공원 접 주차완비
- 가액 : 2억 8천만원

011-238-5810

암자터안내
- 위치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 농림관리지역 503평
- 주변 국유지가제,개구리가 사는 계곡 끝지점
- 주변 암석바위 맑은계곡
- 마을에서 약 500m, 비포장 약 250m
- 가액 3500만원
- 오후 5: 30 통화가능(오전 7시경)

010-3288-1317

토 굴 안 내
- 위치 : 창원시 대산면 대방리
- 땅 100평, 법당 20평
- 공양간 7평, 스님방 6평
- 화장실2, 창고1
- 가액: 1억 1천만원 절충가능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9183-065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임야 2500평, 야산 5000평, 대지 1500평
- 건평 110평, 법당 50평, 요사채 60평, 산신각
- 주차장 2,000평
- 소나무 많고 산세 좋음
- 가액: 7억 5천만원

010-9433-3543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용호2동, 큰시장 근처
- 불사하기 좋음, 위치 좋음, 주택 뒤
- 법당, 삼존불, 아미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관세음인등, 산신인등, 영가단, 맞춤탱화,
- 평수 21평, 법회가능
- 방1, 다락2, 주방큼, 수세식화장실, 샤워가능
- 전세 2500만원, 월 15만원
- 시설비 20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주차가능

010-4747-879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2층)
- 30평가량
- 법당, 방2, 거실, 주방, 화장실등
- 삼존불, 맞춤탱화 등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55)277-0146

암자터안내
- 위치 : 충남 연기군
- 세종시에서 15분거리
- 전 420평, 전기 도로 되어 있고
- 청정계곡 옆에 있음
- 가액: 6천만원

011-753-0768

사 찰 안 내
-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 총평수 400평
- 종교부지 200평, 임야 200평(주차공간)
-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 고속도로 옆
- 가액: 대출 1500포함 9000만원

010-2407-5899

토 지 안 내
- 충남 공주시 유구읍추계리(금계산 용목동)
- 지목:전, 면적: 1250㎡(1필지), 가액: 5500만원
- 현재 신축하우스 1동 소재함(15m*6m)
- 금계산 정상아래 해발 500m위치함
- 진입도로개설,차량통행,토목공사 평탄 완료, 전기시설
- 당진~대전간고속도로 유규IC 근접(약7km거리)
- 조망 최고자리임,추천용도, 암자, 공부자리

010-2429-2069

사 찰 안 내
- 위치 :파주시 광탄면 (서울에서 시내버스 1시간)
- 산밑에 아담한 법당
- 법당 약 20평, 요사채 약 40평
- 대지 250평 사용
- 즉시법회 가능(사정상 급함)
- 전세 5000만원

010-4718-4123

'현우경' 이야기 (13)

아라한이 된 10명의 아들

전생에 노파를 도와 탑 수리한 공덕…

슈라바스티라는 나라에 사는 수닷타에게는 소만이라는 딸이 있었다. 소만은 얼굴이 예쁘고 총명했다. 수닷타는 그런 딸을 예뻐했고, 어디를 가더라도 꼭 데리고 다녔다. 어느 날 수닷타는 소만을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절을 찾았다.

소만은 부처님을 뵙고 매우 기뻐했다. 소만은 그 이후로 부처님이 계신 절에 자주 들려 공양을 올리곤 했다. 그때 이웃나라 특차시리국 왕자는 아버지인 왕의 명령으로 부처님이 계신 절에 들리게 됐다.

왕자는 공양 올리고 있는 소만의 모습에 반해 첫 눈에 사랑에 빠지게 됐다. 왕자는 곧장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는 지금 슈라바스티에 다녀오는 길인데, 그곳에서 제 아내로 삼고 싶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누구길래 네가 이리도 맘에 들어 하는 것이냐."

"수닷타라는 사람의 딸이 온데,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네 아내를 결정하는 일은 네가 알아서 하도록 해라."

"그럼 아버지께서도 허락 하신 걸로 믿고 그녀에게 청혼하겠습니다."

왕자는 곧장 소만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소만에게 청혼했다. 왕자는 소만을 데리고 특차시리국으로 돌아와 혼례를 올렸다. 얼마 뒤, 소만은 임신을 해 10개의 알을 낳았다. 알에서는 10명의 아들이 태어났다. 소만의 아들들은 용맹스럽고 멋진 청년으로 자랐다.

하지만 소만은 아들들을 걱정스러워 했다. 10명의 아들들이 사냥을 너무 즐겼기 때문이다. 소만이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나는 너희들이 이제 사냥을 그만 했으면 좋겠구나."



삽화 · 강병호

"사냥은 가장 즐거운 일인데, 왜 그만하라고 하십니까."

"생물을 죽이면 그 죄값을 지옥에서 받게 된다. 그리고 수만 년 동안 사슴, 양, 토끼의 머리가 돼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어머님은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아신 겁니까?"

"부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다."

"부처님은 어떤 분시이십니까?"

"카필라국 정반왕의 아들로서 왕이 될 분이셨지만, 도를 얻고자 집을 떠나 공부하시고 결국 도를 얻으신 분이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뵐 수 있습니까?"

"지금 슈라바스티에 계신다."

10명의 아들들은 그 길로 슈라바스티로 향했다. 슈라바스티에 머물고 있던 수닷타는 손자들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이들은 수닷타와 함께 부처님이 계시는 절로 향했다. 10명의 아들은 부처님을 뵙고 설법을 듣고 환희심을 느꼈다.

"저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출가하고 싶습니다. 부디 부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이들의 출가를 허락했다. 이들은 부지런히 도를 닦아 결국 모두 아라한이 됐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다.

"도대체 저 비구들은 어떤 복을 지어 아라한이 되었습니까?"

부처님이 설명했다

아주 먼 옛날 어느 비파시인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사람들은 사리를 나눠 탑을 세웠다.

시간이 지나자 그 중 한 탑이 무너져 내렸다. 무너진 탑을 발견한 어느 노파는 그것을 수리하고 있었다.

마침 길을 가던 10명의 사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노파에게 물었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탑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탑을 수리하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들은 사내들은 노파를 도와 탑을 수리했다. 그리고 노파와 함께 다음 생에서는 모자가 되기를 서원했다.

부처님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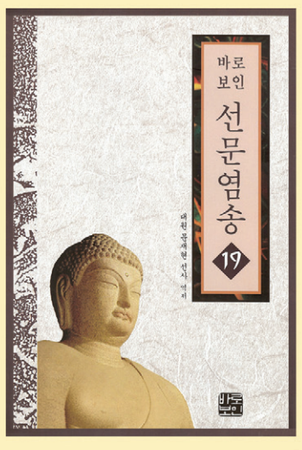
"지금 10명의 비구들이 바로 10명의 사내들이며, 소만이 예전의 노파였느니라. 그들은 하늘사람과 인간으로 한 곳에서 계속 태어나 많은 복을 누렸느니라. 특히 외모, 명예, 수명에 남다른 복을 타고 났다. 그리고 10명의 아들은 이제 티끌과 때를 벗어 모두 아라한이 된 것이니라.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9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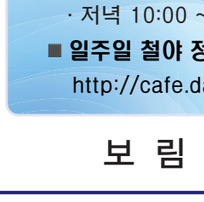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9권 출간!
홍화선사, 관계선사, 설봉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백봉선생님 금강경 백일법문 법회



본 선원에서는 백일동안 고 백봉 김기추거사님의 금강경강송(金剛經講誦) 육성 녹음법문을 청취하는 법회를 엽니다.
한국의 유마로 불리는 백봉 거사님의 사자후에 많은 분들의 동참바랍니다.

■ 날 짜 : 4월 2일(월) ~ 7월 10일(화)
■ 시 간 : 3:00 ~ 4:00 좌선
4:00 ~ 5:00 법문청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회 비 : 10만원 (녹취록 제공)
■ 연락처 : 02)3452-3033 / 010-8751-6611
■ 장 소 : 보림선원 서울선원 (강남구 역삼동 696-33 2층)
선릉역 (2호선, 분당선) 7번 출구로 나와 200미터 직진,
커핀그루나루를 끼고 왼쪽으로 돌면 보림선원 간판이 보입니다.

법 회 안 내

■ 수요법회
· 저녁 7:00 ~ 8:00 좌선
· 저녁 8:00 ~ 9:00 일심행 선원장 법문
■ 토요법회 및 철야 정진
· 저녁 7:00 ~ 8:00 좌선
· 저녁 8:00 ~ 9:00 일심행 선원장 법문
· 저녁 10:00 ~ 익일 5:00 좌선 및 백봉거사님 법문(녹음)
■ 일주일 철야 정진 : 매년 여름 7월말 및 겨울 12월말에 실시
http://cafe.daum.net/borimseoul (보림선원 서울선원)

보 림 선 원 서 울 선 원 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행 스님

우리가 고통스럽게 사는 건 자신을 못 믿기 때문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는지요

문)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이 교도소 안에서도 부처님을 뵐 수 있어 주말 모임에 참석해 법을 듣고 있습니다만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그저 『반야심경』 『천수경』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만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남은 시간이 배로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마음이 나약해서인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던 차에 신문을 접하게 돼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한결같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고 무엇을 시작으로 공부를 해야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남들처럼 그냥 경을 보고 외우며 사경을 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니다 싶고, 현재의 나이 43세이고 사회에 복귀해 48세인데 그때 나가서 공부하면 늦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 마음 내려놓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여쭈고자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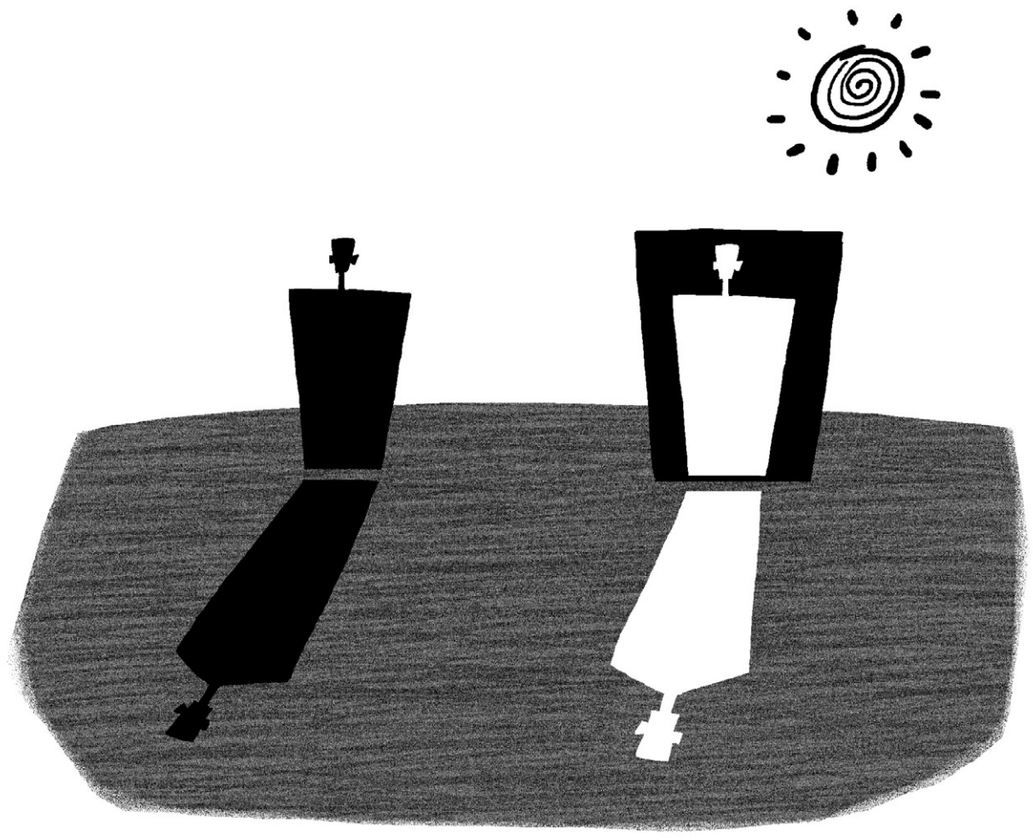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답) 여러분이 부처님의 경을 뚫어지게 위로 꿰고 알로 꿰고 옆으로 꿴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빌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니,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살고 자기가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생활 속에서 외롭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하는 그 문제점을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바로 자기가 있는 데, 부처님은 바로 그 속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내기 이전 본래면목에, 그 실상에게 자기가 '이렇게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니까 당신에게 일임합니다.' 하고 놔 버리는 그런 자세,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당신이 형성시켜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 참 고맙습니다.' 하고 놔라 하는 것입니다. 부어도 부운 사이 없고 꺼내도 꺼낸 사이가 없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처로 알고 항상 일체를 그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해 나간다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울던 것도 웃게 되고, 만약에 운다 할지라도 그건 값비싼 눈물이 될 것이고 값비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즐거움도 거기서 아마 샘솟듯 꽃이 활짝 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음테이프에 녹음을 해 놨는데 그것이 영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이 돼 있는 데다가 다시 지금 착한 마음으로서 착한 도리의 녹음을 한다면 그 앞서의 뭉쳐서 녹음됐던 것은 바로 없어지고 말죠. 사대 오온이 다 공했으니 자기도 공하고 세상도 공했어요. 그러니 공한 데서 나온 거 공한 데다 다시 놓으면 바로 그것은 테이프에 녹음되었던 것이 다시 없어지듯 하는 겁니다. 지금 하루 24시간 동안에도 한 발짝 한 발짝 녹음했다 없애고 했다 없애고 하는 반복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공한 데서 나온 거 공한 데다 놔야 없어지는 거지, 만약에 그것을 '에이구, 될 대로 돼라. 난 착하게 하는 사람 더 잘사는 사람 못 봤어.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겠어.' 한다면 안 됩니다. 착하게 하는 것도 끝이 있고 악하게 하는 것도 끝이 있습니다. 언제나 도둑질을 길게 하다 보면 꼬리가 밟히는 법, 착한 일을 길게 하다 보면 그것도 역시 꼬리가 밟힙니다. 사람이 꼭 악해서만이 아니라 자기가 모르고 저지른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르고 저지르는 일은 모르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저지르는 일은 알고 받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고등 동물이 돼서 인간이 되기 때문에 사회상식이나 인간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나쁘고 좋은 것을 안다는 겁니다, 본래.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저지른 죄가 있다면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모르고 저지른 것이 녹음이 지워지면서 새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녹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바로 지금 현재에 회개하는 마음으로써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 테이프에다 다시 녹음을 한다면 바로 그 앞서 거는 없어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주인공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하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저지른 걸 어떡하느냐 이겁니다. 이왕 저지른 거라면 다시는 앞으로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저지른 거라면 바로 앞으로 저지르지 않겠다 하고 그 녹음테이프에다 다시 녹음을 해 놔라 이겁니다.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놔라. 안되는 건 믿고 놓고, 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모르는 거는 몰라서 놓고, 그렇게 모든 것을 몰락, 자기가 한 발 한 발 떼 놓는 거를 다, 잘한 것도 감사하게 놔라 이랬는데 하물며 잘 안된 거를 갖다가 놓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의식에서 나오는 대로, 팔자운명대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지 말고 앞서 입력된 걸 죄 없애라 이겁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거기다,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너만이 할 수 있어. 안되는 것도 너만이 되게 할 수 있어. 안되게 하는 것도 너, 되게 하는 것도 너니까 너만이 할 수 있어.' 이러고 오로지 거기다가 다 일임할 때 바로 앞서 입력된 것이 없어지는 거죠. 입력이 새로이 들어가니까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로이 입력된 것이 현실에 나오니까 좋게 나올 수밖에요. 그러니 좋게 살 수밖에 없죠. 입력이 좋게 들어갔으니까. 전에는 입력이 그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어지럽게 사는구나 하는 거를 몰랐으니까 그랬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절대로 나쁜 입력을 넣지 마세요. 그러면 현실로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그저 주인공에다 무조건 맡기면 입력이 좋은 입력으로 되고, 절대로 자기 자부처가 자기를 못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사시는 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자기 주처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기 주인공을 모르든 알든 이유를 불문에 붙이고 자기 주인공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주인공만이 자기를 이끌어 줄 수 있으니까요. 남이 대신 죽어 줄 수도 없습니다. 남이 대신 먹어 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자 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아파 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똥 눠 줄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거라도 누가 대신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길에 그냥 갈 수는 없다' 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자기를 자기가 리드해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고 거기에 맡겨 놔 보고 실험을 해 보세요, 그게 체험이 안되나 되나. '주인공이시여!' 항상 이렇게 하십시오. 근본이 당신이니까. 주인공이시여, 모든 것을 당신이 형성시켜놨고, 당신이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 생각을 내게 하는 것도 당신이요, 생각을 안 내게 하는 것도 당신이니 모든 것은 당신에게 일임시키세요. 다 놔 버리세요. 놔 버리시고 모든 망상이 드는 것도 바로 그 자기 주처에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 믿으세요. 믿고 놔 버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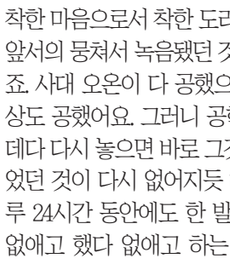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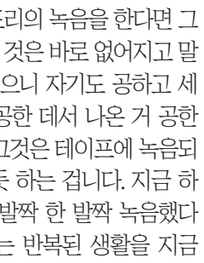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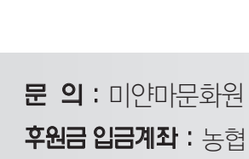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 되놓으세요

☞ 29면에서 계속

또 모든 들이고 내고 하는 것도 전부 주처에서 들이고 내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 주처를 주인공이라고 이름해서 붙이고 꼭 '주인공이시여,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 일임시키십시오. 나는 죄가 많다, 나는 업이 많다, 이렇게 수많은 이름으로 업이니, 팔자운명이니 이런 언어도 붙이지 마시고 내가 죄가 얼마나 많기에 이런가 하는 생각도 마시고, 그런 생각도 그냥 자기 주인공에 맡겨 놓으세요. '모든 게 당신 속에서 나온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할 수 밖에 없지.' 하고 놓고, 또 모든 게 좋게 되면 '아, 감사하구나.' 하고 또 놓고 말입니다.

이 도리를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거지마는 이렇게나마 여러분이 안다면 주인공에다가 놓을 수 있는 자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주인공에서 나오는 일들은 바깥에서 하는 일이나 안에서 하는 일이나, 안에서 생각나는 거나 바깥에서 내 몸이 움죽거리는 거나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내 주인공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그 자리에 되놓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강한 것도 녹고,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용광로에 넣으면 다 녹듯이 그렇게 모든 걸 녹여 나가다 보면 홀연히 과거 자기와 현재 자기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진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살림살이가 다 여러분이 이날까지 해 왔지 누가 해 줬습니까. 자기가 있고부터 이 세상이 있는 줄 알았고, 이 세상이 있는 줄 앎으로써 생활이 어떻게 돌아간다, 또는 나쁘다 좋다를 알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알아야지요.

자기가 어디서 왔나, 어디로부터 왔나?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관하되 '참나가 어딨나? 이 몸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참나는 무엇인가?' 이러고 관하십시오. 바깥으로 말로만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말도 없이 생각 자체에 깊숙하게, 침착하게, 정성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앉으나 서나, 깨나 자나, 변소에 가나, 나거나 들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 불교며 생활 참선이며 바로 이것이 좌선도 되고 참선도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좌선이죠. 이해되십니까. 앞으로도 신문지상으로나마 계속적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점차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열심히 해 보세요.

부처님도 신적인 존재가 아닌지요

문) 불교에서는 신을 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불교에서도 부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처님도 신적인 존재가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겁니까?

답) 신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성신, 즉 주처, 자기 주처가 있기 때문에, 얼른 쉽게 말해서 자기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싹이 있는 것이지 그 싹이 딴 이름과 형상을 믿고 기도를 하면서 '에너지를 주시오!' 하고 애를 써 보더라도 에너지가 그리로 안 가요. 자기 뿌리에서만이 에너지가 올라오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를 타고 허허바다를 건너가는데 선장은 본체만체하고 자기네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가 그냥 뒤집히겠지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 하는 사람도 있겠고, '주여!' 하는 사람도 있겠고, 별신의 이름을 다 불러 대고 야단법석들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마음은 선장한테다 맡겨 놓고 이렇게 좌왕우왕하지 않고 한군데 한마음으로 맡겨 놓는다면 가는 데까지는 무난히 배가 뒤집히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진짜로 그렇게 내 싹이 내 뿌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너만이 싹을 푸르게 살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할 때에 그것이 관하는 대로 대뇌로 통신이 돼 가지고 대뇌에서 사대로 통신이 된단 말입니다.

이 마음의 빠른 이치란, 통신처라는 건 빛보다도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대로 통신이 되면 즉시 어디로 가느냐. 정수로 올라갑니다. 정수는 뭘 뜻하느냐.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은 겁니다. 거기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이거는. 심성의학이라고 해도 되고, 심성과학이라고도 해도 되고, 심성 천체물리학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긴 하지만 진리를 참구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배워서 우리가 갖추어 가지고 여여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가 있지요. 예전에 육조 스님은 내가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여여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또는 불성이 있는 까닭에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있는 까닭에 만법을 들이고 낼 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항상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자유자재하는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여러분은 사시면서 인간이 그냥 먹고만 살면 그냥 제일인 줄 알지 마세요. 누가 굶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어떤 거를 하더라도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에, 즉 말하자면 속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거라고 생각이 안된다면 이 세상의 인간뿐만 아니라 미생물에서부터 천차만별의 생명들, 인간까지 살아나가는 그 원리를 다 알게 됨으로써 그 모든 생명을 내 생명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습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마저도 없이 그냥 여여하게 돌아가는구나. 초월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 이름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지금 참구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겁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알기 위하고 그거를 여러분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나는 머리 깎지 않았습니다, 절대로요.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알게 된다면, 자기 뿌리가 자기 불성이라는 거,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자아부처라고도 합니다.

그런다면 오직 너만이, 아프면은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면 의사가 돼 줍니다. 또 '너만이 이 가난한 거를 좀더 이끌어 줄 수 있잖아.' 하면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보디가드도 돼 줄 수 있고 이끌어 주는 길잡이도 돼 줄 수 있고 해결사도 돼 줄 수 있고, 모든 게 돼 줄 수 있는 거는 자기 바로 원자에서 입자가 나와서 다 조절해 주듯이 그렇게 자기 주인공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인공, 내 불성은 다 팽개치고 그저 기도를 하면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직 달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 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성신이 없다면 자기 몸뚱이는 나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송장이 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근본이 빠지면은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진실된 자기 뿌리를 의지하고 그 싹은 그렇게 푸르게 진짜 살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모두 타의에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인공이 보이지 않는데…

문) 우리가 주인공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주인공을 믿나요?

답) 그럼 보이지 않아서 못 믿는다고 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지금 자기 생명, 마음을 내놔 보세요.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는데도 여여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한 것도 잡을 수는 없는데 말은 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일체 만물은 지 수 화 풍으로 바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거기에 대두돼 있다 이겁니다, 누구나가. 그래서 과거에 살던 것이, 수억겁 광년을 거쳐서 나오는 그 습과 인연들이, 모두 자기 산 것대로, 차원대로 그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 컴퓨터에 그렇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살림살이, 지금 현실에 사는 데에 천차만별로 그 입력된 게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현상 사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천체심성망원경, 물질적이 아닌 자연적인 그 망원경과 탐지기, 팩스 또는 무전통신기, 이렇게 한 시스템이 돼서 같이 돌아가는 반면에 우리가 자유스럽게 거기에다가 다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입력돼서 현실로 나오는 것을 다시 거기다 맡겨 놓으면, 주인공에 맡겨 놓으면 입력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죠. 그럼으로써 자유스럽게 그릇이 비어서 홀연히 자기 주인공이 발견이 된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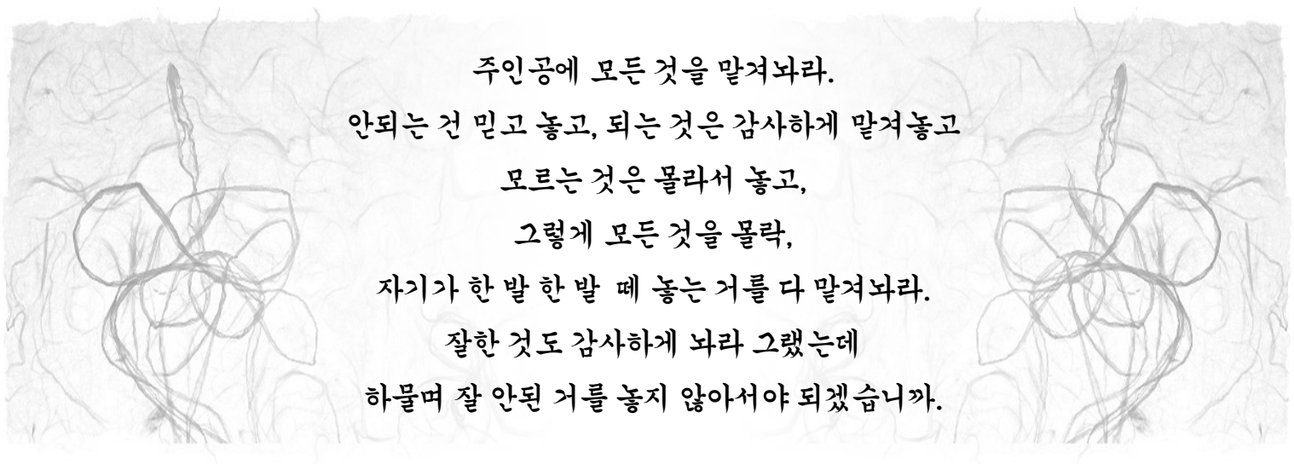
공부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주인공을 찾음으로써 그 누진은 머리 즉, 레이더망으로 비유합니다. 그 레이더망이 수많은 그 살림살이를 하는, 마음으로 들이고 내고 하는, 보고 듣고 하는 작업을 그대로 여여하게 함으로써 이 지금 몸속에 있는 모습들, 의식들이, 잠재해 있는 의식들이 내가 마음먹는 대로 따라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마음을 갖는 대로 내면세계에서 따라 주고, 오장 육부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따라 주는 반면, 즉 말하자면 원자가 안의 주인공이라면 입자, 분자 이것이 삼합이 합동을 해서 그 원자의 능력으로서 다 들이고 내는 작용을 하면서 자기를 마음대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들어가 보세요.

언젠가부터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문) 저는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그래서 계속 관하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마음속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환한 빛이 보여집니다. 제가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요.

답) 그것은 빛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댁에서 이 깊은 마음속에 자기의, 즉 말하자면 수없는 과거를 형성시켜 오고 진화시켜 온 그 장본인에게 통신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것은 의식 속에서 화해서 들리는 소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시면 안 되죠. 어떤 형상이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부처님이 바로 앞에 와 계시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집착할 게 없죠, 생각 자체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고 들리는 것도 댁을 가르치기 위해서 빛으로 보여 주고 환으로 보여 주고 그렇게 걱정마라 이러는 것도 들려줬는데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일임하고 '감사하구나.' 하고 하지, '아, 내가 이렇게 저거했으니까 뭐 좀 알려나 보다.'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몸속의 이 모습, 그 의식들이 그렇게 아프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내 집 식구가 아닌, 내 집 식구라도 내 집 식구처럼 하지 않고 딴 식구로 변경이 돼 가지고 나를 압박을 주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깐 어떠한 소임을 맡아 가지고, 위의 소임을 맡았든 장의 소임을 맡았든 대장 소장 척수 척추, 이런 데로 다 맡아 가지고 있는 소임자들이 어떤 때는 간신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그 나쁜 짓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몸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전부 다스리는 바로 자기 주인공에다, 모조리 다스리는 그 주인공에다, 자기 영혼도 다스리고 자기 그 생명들의 의식들도 다스리고 그러는 자기 '참주인공', 거기다가 다 맡기세요. 거기다 맡기시면요, 그것이 체험이 되고 알아질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아픈 것도 나을 수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특허 참회진언 타올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70×138cm, 450g, 30수, 20,000원

땀 흡수 안되는 마타올은 북편...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큰절할때 참회진언 타올 40×80cm 160g 30수 5,000원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팩스.0505-115-1616 / 농협421012-52-195511 박희철(010-5481-0194)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아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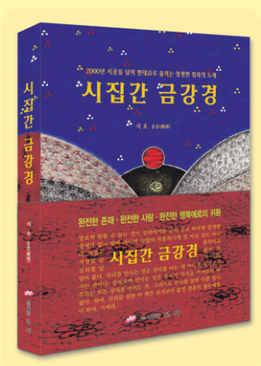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여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영일상사

금강경이 시집갔다?



깨 · 달 · 음

냇가에 돌멩이
하나 둘 셋……
무덤가에 개망초꽃
하나 둘 셋……
과부살이 반평생
울 엄니 한(恨)처럼
널브러져서 흐드러져서
참 헤이기 힘들지만
그보다 흔해빠져
예나 지금이나
없는 곳이 없어
지천에 깔린
깨
달
음
어째서
얻는 이도 있고
얻지 못하는 이도
있사옵니까?

응 송: 석 호 스님
신국판 359쪽
값: 15,000원
도서출판 연 화 刊

'어! 금강경에 시천 게 있나?' 의심이 난다면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이 책을 펼쳐보라. (작업 5년 만에 시집을 갑니다.)

위 詩는 금강경 제14분 '이상적멸분' 말미에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눈밝은 사람이 햇빛 아래서 여러 가지 물건을 보는 것과 같느니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게 만든 수보리의 숨은 질문에 해당한다. (존재여행기 '작은 기적'도 봐 주세요.)

도서출판 연화 053)253-1923

놓아라! 구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라!



인생공부의 필독서!

《구하지 않는 삶 그 완전한 자유》
_윤기봉 지음

신국판 | 칼라 | 416쪽 | 14,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목마르지 않는 자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

삶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얻은 한 구도자의 체험기

극도의 우울증으로 수없이 자살을 생각했던 저자는 치열한 고민과 구도(求道)의 과정에서 그러한 생각의 허망한 속성을 깨닫고 마침내 자유를 얻어, 그 행복을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불자 세상보기

감동 없는 공천, 투표로 심판하자



임 운 택
계명대 사회학과

구태정치 답습 벗어나려면
정당정치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일까?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두 거대 정당이 야심차게 공언한 공천혁명은 소리한 요란했을 뿐, 국민에게 별다른 감동을 주지 못했다. 양당모두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내부민주주의에 강한 불신을 낳을 만큼 공천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노출하였다. 비리전력자, 성추행의혹자, 철새정치인들을 원칙도 없는 정당 오너집단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서 살아남았고, 공천 탈락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당을 바꾸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해서 지역에서 심판을 받겠다고 울분을 토로한다. 선거기간 동안의 굴욕만 넘기면 국회의원만큼 세상에 좋은 직업이 없어서인지 사회양극화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냉정하기 그지없고 입법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잊어버리길 밥 먹듯 했던 구 정치인들이 공천 탈락을 이유로 철없는 아이처럼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모노라면 애처로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 모든 것이 다 익숙한 모습들이다. 제18대 국회에서도 모든 정당은 무려 48%에 달하는 인물교체를 내세워 민의를 위한 정치를 주창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때는 그래도 인물의 물량공세라도 있었지만, 이번 공천은 그나마도 함량미달이다.

보수정당의 비리불감증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자칭 보수 엘리트 집단에 대한 몰이해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소위 개혁세력을 주장하는 민주통합당, 나아가서 통합진보당마저 공천과정에서 보여준 비민주성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불과 한 달 전만해도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총선 승리를 다 거머쥔 것 같았던 민주당의 헛발질은 단지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한편의 잘 짜인 각본처럼 진행되었다. 법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무총장에 내세워 비난을 자초하더니 결국 계파간의 이해다툼 끝에 감동은커녕 허탈감마저 들게 할 공천명단을 내놓았고, 최고위원 한 명은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을 주장하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았다.

통합진보당의 공천과정은 더욱 심각하다. 성추행, 경선조작 등 공천후보자를 중심으로 불거진 각종 의혹은 거대정당을 무색하게 할 정도이며, 문제는 자기반성도 없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에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 쟁점이 된다면 시민들이 여전히 자기를 밀어줄 것이라고 믿어서인지, 불법은 내게만 있었냐는 물타기식 논의로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자면 판단중지 상태를 넘어 오만과 교만마저 느끼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연대가 과연 실현될 수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후보자들의 페어플레이와 공정한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기위해 정당들이 도입되었던 여론조사 방식은 불법과 조작, 확보된 데이터의 비공개로 인해 참여민주주의를 퇴색시켰다. 정책이 있으면 당사자들에겐 대책이 있다고 하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닌 듯싶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입만 열면 민의에 부응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주권자인 시민을 여전히 우습게보기 때문이다. 지역경선이 마치 유권자들의 상향식 결정방식으로 비춰지지만, 후보자 자체가 중앙당에서 결정되는 만큼 내용적으로 하향식 공천과는 거리가 멀다. 오래된 전통을 지닌 서구의 경우처럼,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스스로 선출하는 정당정치의 원칙을 세우지 않는 한, 어떠한 경선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구태정치를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유권자, 정당의 당원들이 들러리를 서는 한, 공천혁명은 공천쇼를 벗어나기 어렵다.

물론 하루아침에 갑작스런 제도의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실망한 시민들이 유권자로서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는 방식은 결국 안이하고 나태한 정치권에 투표를 통해 심판을 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은 현명한 시민들이 그러한 힘을 보여주는 한마당이 되길 기대해본다.

社說

1000일 결사 등불 활활 타오르길

조계종이 1000일 정진결사에 돌입한다.

민족화해 · 평화통일 ·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 실현을 위한 행사는 3월 28일 진제법원 대종사의 종정 추대법회에 입재해 그 의미를 더한다.

행사에서는 1000일 동안 24시간 쉼 없이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차별 없이 참여해 '참나'를 찾고, 그 힘으로 세상을 맑히게 된다. 결사추진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첫 정진은 강정마을 고권일 대책위원장이 참여한다. 통일운동가 백기완 선생, 김정우 쌍용차해고자대책위원장이 뒤를 잇는다. 김진해 목사, 김정일 신부, 이성심 교무 등 이웃종교인의 동참도 예정돼 있다.

1000일 정진결사는 동참하는 각양각색의 대중 만큼이나 우리 시대의 굴곡과 명암을 고르게 해 줄 대작불사임에 틀림없다. 특히, 사회적 의제 등을 조계사 도량 안에서 논의하는 야단법석은 부처님 지혜를 통한 사회 해법과 불교의 사회참여 정도를 높일 최상의 방편이 될 전망이다. 각계각층의 시민을 부처님으로 모셔 공양을 올리는 무차대회 역시 2500여 년 전 부처님 가르침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를 바로 보이는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

자성과쇄신결사는 조계종 제33대 집행부의 정체성인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조계사에 마련된 정진단에서 펼쳐질 1000일간의 릴레이 정진이 반복되는 결사의 구호 속에 피로해진 불자들의 비타민이 되길, 우리의 삶에 감로수처럼 젖어들어 무명의 잡티를 말끔히 씻어내주기를 기대한다.

조계종 '조건부 승인' 의미는?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 14명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을 둘러싼 종단 집행부와의 갈등 때문이다.

조계종은 환경위의 강한 반발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다. 6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공론을 모으고 안되면 그때까지 토지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것이 '조건부 승인'의 조건이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다. 무엇이든 한번 결정이 나면 그것이 관례가 된다. 처음 물이 흐르기가 어렵지 한번 물이 지나고 나면 점점 더 물길이 넓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게다가 개발을 위해 삼보정재를 흔드는 것은 삼독에 근거한 욕심이요, 치심의 발현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불자들은 기억하고 있다. 수차례 장기간 단식을 불사하며 천성산 도롱뇽을 지키고자 했던 지율 스님을, 소신공양했던 문수 스님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다 홀연히 사라진 수경 스님을….

그보다 더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사패산터널 건설이 수행환경을 침해한다며 장기간 농성했던 조계종 스님들 가운데 일부가 배달사고로 경찰서를 드나들었던 사실이다.

불자들은 토지사용 신청건 심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모른다. 환경위의 일괄 사퇴가 몽니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저 지리산을 온전히 후대에 물려주고 싶을 뿐이다. 그것이 1500년 동안 이 강산에서 묵묵히 '산감' 소임을 살다간 선지식들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 찬반 논란 '이렇게 생각한다'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교인 과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본지는 불교계 각 인사들에게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정리= 조동섭 기자

종교인도 국민, 당연히 과세해야
VS
신성한 성직을 근로로 비하말라

"스님들 불합리한 불편 사라질 것"

영담 스님(조계종 총무부장)



종교인 과세해도 상관없다. 하는 것이 옳다.

스님들 사고 당해도 국가에 소득으로 등록된 것이 없어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고 있다. 과세가 되면 스님들이 겪던 불합리한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 다만 과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조계종 차원에서는 아직 진지하게 과세문제를 논의된 바 없다.

"근본적으로는 해당 안된다"

송암 스님(안성 도피안사 주지)



출가자는 걸사 신분으로 무소유가 근본이다. 근본자리에서 보면 과세대상인지부터가 의문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모태인 개신교와 달리 불교는 자본주의와 큰 연관이 없다. 선방스님들이 무슨 돈이 있겠나. 스님들은 생산에 종사 않는 무산자(無産者)이다. 종교단체가 면세 받는 것은 세금 대신 열심히 국민 정서 안정을 돕는 본분에 충실하라는 뜻이다. 정리하자면, 스님에 대한 과세는 현실적으로는 자율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과세점 이하면 면세 받으면 돼"

정웅기(불씨넷 사무총장)



종교인 과세는 당연히 해야한다. 찬성한다.

정부가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와 조세형평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과세도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사회 일반에 준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특수하다면 종교인 스스로 소명하면 된다. 소득이 과세점 이하라면 면제 받으면 될 일이다.

머뭇거리지 말고 시행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선거 앞두고 과세 논하나"

능해 스님(태고종 총무부장)



종교인 과세는 옳지 않다. 종교인 과세는 가끔 한번 씩 나오는 말이다. 왜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다시 논의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종교인 과세의 문제는 종교인을 근로자 대하듯 하는데 있다. 종교의 신성성을 과세로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국가 할 일 종교계가 한다"

무외 정사(진각종 총무부장)



종교인 과세가 제도적으로 시행된다면 따르겠지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종교계는 신도로부터 보시 받은 것을 중생구제를 위해 사용한다. 국가도 세금을 걷어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가 할 일의 틈새를 종교계가 메워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탈 종 공 고

• 법 명 : 삼 화 (속명 : 황말연)
•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산152번지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3일

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법하

해 명 공 고

현대불교신문 제879호(3/14일자)에 25면에 게재된 **'무안 약사사에 관한 탈종공고'**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주지스님으로 임명된 원진스님을 비롯하여 신도회에서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탈종공고 하단에 기재된 비상대책위원장 및 신도회장은 무안 약사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3월 21일

대한불교법화종 약사사

주지 원진. 신도회장 합장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범음범패학인모집

▣ 기초의식 :
1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6시까지
2 반 :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까지
내용 : 목탁불공 및 종성(도량석) 각단청 예불

▣ 중 급 반 :
초의식 교육이수한 자
내용 : 태징,북 다루기,49재 및 각종재,천수바라 다라니,관욕화의재,요잡바라

▣ 고 급 반 :
시련, 괘불이운,종사이운,예수재 등 큰행사에 필요한 향화게,도량게,다게,법고 작법.

▣ 호적 및 관악기 이수반 :
개인교수식,악보화해서 쉽게 터득할 수 있게 지도함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 의 처 : 강주 홍인 010-5325-8123
학장 범성 010-9243-0113 합장

옻가네 농업법인 (주)옻가네

피를 맑게, 아침을 생기있게…"참옻 덕 봤죠"

옻은 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무력증 · 위하수증세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자궁근종 · 생리불순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 해소와 정력 강화, 어혈제거, 혈액순환 등의 효과가 있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산 성분이 강한 항암 · 항산화 및 항균활성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됐고, 아토피와 당뇨에도 좋다고 조사됐다. 다슬기는 칼륨 · 나트륨 · 아연 · 망간 등 성분이 들어 있어 간에 좋은 작용을 한다. 조상들은 예부터 시름시름 기운을 못차리면 다슬기를 달여 간의 조직 원료가 되는 청색소를 공급해줘 간기능을 회복시켰다.



토종 참옻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상품화에 성공한
지용우 옻가네 대표

피로 회복 · 혈액 순환에 좋은 참옻
옻가네, 식품의약안전청 승인 받아
믿고 먹는 현대인의 건강 지킴이

옻추출물은 류머티즘관절염 치료뿐만 아니라 피를 맑게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희대 척추관절센터팀은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류머티즘관절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옻의 효능을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경희대 한방병원은 "한방치료는 순환기능을 개선해 어혈을 제거한다"며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해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여성에게 많은 류머티즘관절염도 옻을 이용하면 어혈 제거를 통해서 염증이 자연스레 소멸된다.

· 참옻다슬기진액

옻가네에서는 옻이 오르는 것을 극복하여 옻오름 염려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참옻제품을 선보였다. 국내에서 옻오르는 성분을 제거하고 옻의 유효성분만 그대로 유지되도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옻가네가 유일하다.

몸에 좋은 참옻과 다슬기의 영양을 더한 옻가네의 '참옻다슬기진액'은 해독작용, 간기능 회복, 피로회복, 혈액순환, 노폐물 제거 등 다양한 기능으로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옻가네에서는 옻나무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순수 국내산 참옻만을 사용하여 '참옻 발효진액' 등을 판매하고 있다.

· 참옻발효진액

옻나무는 세계적으로 600여 종 존재하는데 이중 한국 · 중국 · 일본 등 아시아에서 자라는 나무들만이 약재로 사용된다.

한국의 옻나무 수액은 우루시올 함량이 60%로 다른 나라에서 자라는 옻나무에 비해 함량이 10%정도 많고 약효도 뛰어나다. 특히 강원도에서 나는 옻이 유명하다.

· 홍삼참옻 위간보

옻의 효능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 바로 옻가네의 홍삼참옻 위간보다. 위간보는 만성적인 속병을 다스리는데 효험이 뛰어난 참옻진액에 발기부전 치료효과가 있는 마카 성분과 유황오리를 함께 달여낸 고농축액으로 휴대용으로 간편한 파우치 포장제품으로 만들었다.

위간보의 주성분 옻은 만성 속병(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부인병(자궁근종 · 생리통 · 냉증)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에 좋고 정력강화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속이 아프거나 숙취가 심한 경우. 멍이 잘 들고 뼈속이 시리다고 느끼는 경우. 입냄새, 생리불순, 생리통이 심한 사람. 소변량이 적고 잔뇨감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더욱 좋다.

옻 산성분이 항암 · 항산화 · 항균활성이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도 있다. 옻나무의 수피 및 목질부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 및 전이를 억제하고 정상 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한다. 아토피 치료, 당뇨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가 좋다.

또 옻은 노폐물, 나쁜 피를 삭히는 살균작용으로 혈액 · 체액 순환을 돕고, 몸 안팎의 상처 · 염증이나 장부 · 혈관의 만성 질병을 낫게 한다. 여성 갱년기 증상 자궁건강에 좋고, 어혈을 풀고 강장효과가 있어 임산부들의 산후 관절시림 증상을 치료하는데도 많은 효과를 보았다.

· 식품의약청에서도 인정한 옻가네

옻가네 제품은 특허청의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미국 FDA의 승인은 물론 최근에는 옻 안타는 참옻개발로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대통령포장을 수상했기에 믿을 수 있다. 휴대용으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파우치 제품으로 출시돼 더욱 편리해졌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우르시올에서 추출한 MU2성분이 혈액암과 폐암, 위암 세포 등에 강한 억제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MU2성분은 항산화 기능도 있어 치매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산 옻나무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후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의 증식이나 전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옻은 어혈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고, 만성위염과 지방간 등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참옻을 이용해 옻닭 조리용, 한의원 치료용,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농업법인이다. 대부분의 제품을 식약청 안전성 인증을 받았고 지적재산권 9건을 확보했다.

· 옻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우루시올(옻의 주성분)은 대부분 옻나무껍질 주변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옻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수피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일부 제품은 물이 아닌 고형분 함량이 낮은 경우도 있다. 옻 제품을 구입할 때는 고형분 함량이 높은 지, 수피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참옻진액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옻을 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자주 먹는 것도 위험하다.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독성을 제거한 옻의 경우는 간에도 좋은 약이 된다. FDA승인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은 옻가네의 제품은 독을 제거하면서도 약효는 그대로 지니고 있어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산 토종 참옻나무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2011년 10월 13일

옻이 안타는 토종참옻 개발로
최고의 영예 대통령포장 수상했습니다

2011년 10월1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산업포장)은 농업법인옻가네 지용우 대표가 영예를 받았습니다. 옻가네는 옻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 하였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민 건강은 물론 농촌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옻가네 토종참옻, 15년 역사 이래 꾸준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수상 | 사단법인 한국대학발명협회 하이브리드기업 확인서 | 2010 대한민국식품대전 최우수상 수상 · 식약청장상 수상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 은상 수상 | ISO 9001 인증서 |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 FDA 인증서

국내에서는 식약청 (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 미국식품안전청 FCS/SID제조업체등록, 공정과정등록 | 특허청

- KBS 아침마당 냉증, 가볍게 보지 마라 김달래 경희대 한의과 교수 2011.7.14
- MBC PD수첩 ○기적의 암○○제인가? 2011.6.7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몸을 바꾸는 건강법- 체온건강법 2011.1.7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6시 내고향 2010.2.16
- SBS 출발 모닝와이드 2009.10.2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환경 스페셜 악이 되는 독 2006.11.22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 1949년생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소원 경인에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제품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멸가루 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거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먹고 잠을 잤은 점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2일째 부터 변이 정상적으로 많은양이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점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입맛또한 좋아지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사라지고 아프던 허리가 좋아지고 20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봉을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꺽인 수면제도 먹지않고 깊은잠을 잘수있고 아직은 고기나 멸가루 음식을 아무데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혈도 확 좋아져서 몸이 아주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이와 좋은제품은 만나기 힘들어 모든 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전신에 어혈이 돌아 무척 고생했었으나 김○○ 55세/주부

저는 동네이장님에서 어혈이 잘 풀린다는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2010년 8월 7일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7년전 대형교통사고와 4년전. 11년전 심하게 넘어져 왼쪽 옆구리 갈비뼈와 엉치에 큰 타박상을 입어 전신에 어혈이 돌아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옻가네 참옻제품을 먹으면서 운동이 서서히게 몸이 돌고 서서히 쑤시고 저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게서 진통주사까지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꾸준히 한달을 복용한 결과 거짓말처럼 나았읍니다.

아직 정액에 있어 좋은 정액이 튀어 나왔고 심장도이 소심하게 여려 였었는데 10일 정도 복용하면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필요하시면 궁금한 분들에게 직접 확인해 드릴수 있읍니다.

국내 최초 참옻 상품화 성공
옻가네, 대통령 산업포장 수상

농업법인 옻가네는 지난 11월13일 제 14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 시상식에서 대상인 산업포장을 받았다.

지용우 대표는 옻 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했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 및 옻을 이용한 옻된장, 옻고추장 등의 개발과 옻순채취, 옻나무 재배보급으로 농촌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옻나무추출물은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해주는데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류마티스관절염 예방 및 치료 등에 효능을 밝힌 연구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특히 여성에게 많은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염증성질환에 옻을 이용하면 어혈제거를 통해서 염증도 자연스레 소멸된다. 이밖에 농업법인옻가네는 지난해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하며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콩을 발효시켜서 청국장 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 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훨씬 더 이롭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다.

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지방을 녹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고기맛을 더욱 좋게 한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을 창업전문컨설팅 회사와 손을 잡아 전 제품을 무점포 50곳(중 · 소형 마트, 편의점, 건강식품판매점, 음식점 등)에 오픈하여 사업주 분들은 부담없는 금액으로 많은 시간의 투자없이 부업 및 투잡으로 최고의 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독성만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 안타는** 제품입니다.

무색소
무방부제 / 무과당
100% 국내산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1.5ℓ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다슬기진액(고급형)
참옻다슬기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98,000원

고급형구입시 선착순500분 사은품 증정

16 16th Anniversary 옻가네16주년기념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6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토종환 별도구입시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거기에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토종참옻환은 온가족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토종참옻에 신진대사 활성화, 면역에 도움을 주는 민들레에 항균 작용이 뛰어나 민간요법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인진쑥을 더해 만들어진 토종참옻환을 옻가네 16주년 기념 사은품으로 하루 선착순 500분에 한하여 드립니다.

옻가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